



한살림 협동운동 자료모음

한 살 림 의 협 동 운 동 말 하 다

I

무심과
살림연구소

차 례

한살림 협동운동 자료모음 I

펴내는 글 _ 4

한살림을 시작하면서 박재일(1987) _ 6

콩나물 얘기 좀 합시다 김지하(1988) _ 9

제3세대 협동조합과 사회운동 이와미 다카시, 한살림모임 역(1989) _ 16

새로운 삶의 이해와 생활협동운동 박재일 외(1990) _ 35

한살림 공동체란? 천규석(1992) _ 55

협동조합의 공동구입 생협중앙회 역(2000) _ 73

대중운동의 운동론과 조직론 생협중앙회 역(2000) _ 123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 박재일(2003) _ 149

한살림운동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상국(2003) _ 166

조합원을 중심에 둔 조직운동을 위하여 윤희진(2004) _ 178

한살림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실천 과제 윤형근(2007) _ 190

한살림 협동운동 자료모음 Ⅱ

퍼내는 글 _ 4

생명운동과 생활협동운동, 역사와 전망 김재겸(2011) _ 6

생명운동과 탈근대 협동운동 김용우(2012) _ 32

영성과 협동조합 주요섭(2012) _ 60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한살림 협동운동의 실험 조완형(2012) _ 89

협동조합운동의 경험과 교훈: 한살림 사례를 중심으로 조완형(2012) _ 104

‘생명’의 눈으로 본 한살림 협동운동 모심과살림연구소(2012) _ 144

한살림 협동운동 자료모음을 펴내며

봉준호의 설국열차가 그러하듯이, 한살림에게 있어 협동은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긴밀하게 연결되고 상호의존하는 생산과 소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함축합니다. 일찍이 원주보고서(1982)는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을 천명했고, 1989년 「한살림선언」을 발표하며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는 “협동운동의 광범위한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살림은 어려운 조건에서 사업과 활동을 추스르며 조직을 다지고 확대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 온 탓에 한살림 협동운동에 담아내고자 했던 비전과 가치, 원칙과 목표 등에 대한 학습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마침 협동조합 열풍이 뜨거운 이때, 우리의 협동운동은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어 왔는지, 그 이론과 제도, 실천의 경험들을 공부하고 토론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살림 협동운동의 철학과 가치, 정체성을 밝히고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살림 협동운동의 시선은 새마을운동의 근면·자조·협동의 논리 너머에 있습니다. 소비조합의 경제적 편익론을 넘어서고자 했습니다. 생산과 소비에 대해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한살림 협동운동은 ‘협동’ 농장과 ‘협업’ 마을의 섬세하면서도 거대한 차이를 검토했습니다. ‘함께 만들기’(共

産)’와 ‘함께 살기(共生)’의 관계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살림’의 ‘한’의 의미, 즉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깊이깊이 천착했습니다. 전체주의와 개인주의를 동시에 넘어서는 ‘한’. 하나이면서 여럿이면서 동시에 전체인 ‘한’.

그렇습니다. ‘다시 새롭게’, 혹은 ‘재창조’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한자 말로는 법고창신(法古創新)입니다.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새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협동조합 열풍은 매우 소중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이 같은 새로운 기운을 타고 한살림 협동운동도, 한국의 협동운동도 새로운 차원으로 깊어지고 넓어져야 할 때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이 자료집은 그동안 한살림운동 선배들이 학습했던 자료와 한살림 내에서 발간된 자료들을 묶어서 한살림 협동운동의 길을 밝히는 목적에서 만들었습니다. 학습과 토론에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3년 7월
모심과살림연구소

한살림을 시작하면서*

박재일 | 한살림 살림꾼

오늘의 세상은 너무나 많은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고 써버립니다. 많고 높고 빠르면 좋고, 편리하면 더욱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듯 보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고 믿고 도우며 건강하고 만족스런 삶을 살게 하고 있는지요?

숨 쉬는 공기나, 마시는 물이, 농사짓는 땅이 살아있는 제 모습을 잃어 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만물이 있어야 쓸 수가 있고, 쓰임이 있어야 만물이 필요하고 계속되지요. 원래 생산과 소비, 생산자와 소비자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요, 서로를 필요로 하고 돕는 사이인데, 현실은 서로 갈등하는 사이가 되어 버렸어요. 소비자는 누가 어떻게 만들어 내고 생산자는 누가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과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음식물(먹을거리)을 생산하는 농업의 경우, 농민은 자기가 생산한 것을, 어디서 누가 먹는지 또 사는 형편

* 한살림 소식지, 1987

은 어떠한지, 반대로 소비자는 자기가 먹는 것을 누가 어떻게 만들고 또 사는 형편은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치는 양이 해마다 늘어만 가고, 물은 오염되고 땅은 토박해지고 생명력을 잃어 가고 있지요. 농민은 농약중독으로 고통당하고 농산물은 독극물에 오염되어 먹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농약, 방부제, 착색제, 각종 식품첨가제로 뒤범벅된 식품이 범람하는 속에서,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건강한 식탁을 꾸며야 할 어머니들은 어느 것 하나 믿을 수 없어서 불안합니다.

정말 안심하고 건강한 식품을 구해 먹을 수가 없을까요? 땅과 사람, 물건과 물건,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고 못 믿는 사이가 되는 삶이 살림의 삶일까요, 죽임의 삶일까요? 또한 농산물 값이 내려가면 농민은 울고 소비자는 좋아하고, 농산물 값이 올라가면 소비자는 울고 농민은 좋아합니다. 이처럼 다른 이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옳은 삶일까요? 특히, 농산물은 유통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여러 손을 거치기 때문에 값, 품질, 수량 등이 조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지 않고 믿고 나누며 사는 길은 없을까요?

땅도 살리고 자신도 살고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고 퇴비를 하고 김을 매고 땀 흘리며 정성들여 농사짓는 농민도 있고, 그런 농산물을 고대하는 소비자도 많습니다. 다만, 서로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지요.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게 줄 것은 정성들여 만들지요. 받는 사람 또한 고마워하지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만나게 되고 친한 사이가

된다면, 정성과 고마움이 나누어지지 않을까요?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들 만나게 하고 친한 사이가 되도록 하여,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이가 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줄여서 과도한 유통마진을 줄이는 직거래 활동을 펼쳐서 농산물의 품질이나 수량을 믿을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땅도 살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서로가 믿고 돕는 관계가 되고 모두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 일은 한두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더불어 해야 가능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해야 가능합니다. 이 한살림운동에 많은 분들의 이해와 성원과 참여를 고대합니다.

이 운동은 많은 농민(단체), 소비자(단체)가 협력하고 천주교 원주교구(지학순 주교)가 뒷받침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콩나물 얘기 좀 합시다*

김지하 | 시인

‘죽임’과 맞서 있는 삶

축하합니다. 며칠 전 신문에 한살림공동체에서 콩나물을 스스로 길러서 나눠 먹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콩나물 한 움큼에도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발견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울시다.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죽임과 맞서 있습니다.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인 죽임과 맞서 있습니다.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다가 천수를 다 누리고 고요히 죽는 사람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죽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죽임당하는 급살과 서서히 죽임당하는 서살이 그것입니다. 전쟁판이나 교통사고 또는 광주 사태와 같은 학살로 죽임당하는 것이 급살이라면 매일같이 소음 속에서 매연을 마시고 중금속 수은 따위 온갖 독약을 먹으며 천천히 죽임당하는 것은 서살입니다.

* 한살림 소식지. 1998

오늘날 한 포기 배추나 콩나물에서부터 쌀, 보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먹거리에 혹시라도 무슨 독약이 들어있지 않은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만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자연 생태계와 땅도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은 마치 당연한 것인 양 우리 삶의 질서로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죽임당하면서도 죽임당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또한 천천히 죽임당함. 곧 서살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업화는 다 좋은 것이요, 공업문명은 훌륭한 것이며,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선진화는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는 대의명분이라는 우리의 착각이 죽음의 장본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착각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양식,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은 밥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밥은 우주 전체의 협동의 산물입니다. 한 알의 쌀이 익기까지에는 인간의 협동적인 노동과 물, 흙, 메뚜기, 지렁이, 거미와 바람, 비와 계절의 변화, 해와 달 등이 모두 다 한결같이 협동해서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는 쌀을 먹고 어머니의 젖이 나오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곡식을 먹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과 우주는 정복과 착취의 대상이 아니다

어머니의 젖은 우주의 곡식이요, 곡식은 우주의 젖입니다. 우주의 젖과 우주의 곡식을 먹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곧 우주인 것입니다. 우주를 먹고 사는 우주가 곧 사람입니다. 사람은 바로 그가 먹는 음

식물입니다. 우주를 먹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곧 우주라 할 수 있습니다. 우주 그것도 모두 함께 한울타리로 우주의 솔밥을 협동적으로 먹고 비로소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한울님이라고 합니다. 한울님인 사람이 역시 한울님인 곡식을 먹고 한울님답게 사는 것이 본디 한울의 질서이며 생명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온갖 자연 생명과 똑같이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오줌똥을 싸고 그 오줌똥을 다시 거름으로 해서 곡식을 기르는 일이야말로 천상천하에 가장 거룩하고 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최고로 거룩한 이 일을 가장 천한 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형편입니다. 사람을 천하게 볼 뿐 아니라 자연 생명 전체 곧 우주 전체를 천하게 생각하여 정복 대상이나 착취 대상으로 낮추어 보는 것이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는 산업주의의 잘못된 세계관이고, 가치관입니다. 그 결과 우리 삶 전체에 속속들이 죽음의 공해가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천하게 생각하고 모든 곡식을 천하게 생각하고서는 삶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제 아무리 고상한 예술가, 철학자, 장군, 재벌, 정치가도 제대로 만들어진 곡식을 제대로 먹지 않고서는 그 고상한 짓거리들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고 사람이 먹는 밥을 또한 거룩하게 생각하는 운동이 없이는 오늘날 우리 삶은 오로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당하는 삶일 뿐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죽음의 질서에 항의하고 반대하는 일도 운동입니다마는 그 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동적으로 벌이는 사람 살리는 일, 곧 살림, 살림운동을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여 나가려고 하는 이 자리

한살림운동인 것입니다.

살림운동은 한 계급이나 계층을 넘어선 운동

살림, 살림살이, 살림운동, 생명운동, 그것도 큰살림, 하나의 살림, 한울타리 살림, 한울의 살림, 곧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살림꾼 여러분의 한살림운동이 없이는 오늘의 보편화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죽음당하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 어머니와 자식, 남자와 여자, 있는자와 없는자,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다 같이 거룩한 존재로 드높이는 성화(聖化) 사업은 살림꾼 여러분의 한살림운동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시작될 것입니다.

한살림운동의 특징은 조그마한 콩나물 한 움큼을 죽음으로부터 살려내는 일을 통해 우리 삶 전체의 죽음과 살림, 세계 전체의 죽음과 살림의 이치를 구체적으로 실감하고 깨우쳐 보편적인 생명의 세계관에 도달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생명은 총체적이고 전일체적이어서 하나의 티끌 안에도 우주가 들어 있다는 그 법을 깨우쳐 알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한살림운동을 배부른 사람들의 배부른 짓거리라고 나무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산층이나 되니까 그런 짓거리 하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임금(賃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중요한 살림운동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무라는 사람 역시 제대로 된 밥을 먹고 나서야 제대로 나무랄 힘도 있는 법입니다. 바로 이 점에 한살림운동의 한 알의 작은 밀알,

작은 겨자씨 같은 비밀이 있는 것이며 바로 이 점에서 한살림운동은 어떠한 한 계급이나 계층을 넘어서는 전 민중적인 생존운동, 생명운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살림꾼 여러분은 콩나물 한 움큼을 스스로 협동적으로 생산해서 나누어 먹는 일, 쌀과 배추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협동적으로 생산해서 협동적으로 나누어 먹는 총체적인 생활협동운동을 통해서 참으로 일상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민족통일운동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살림운동이 민족 통일의 시발점이라는 이야기울시다. 민족통일이란 서로 갈라지고 서로 헤어져서 죽임당하고 찢겨져 있는 온 민중의 일상적이고 보편적 삶의 통합, 곧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성화(聖化)운동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며 인간과 우주의 자연적 통일,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통일, 인간과 사회의 혁명적 통일,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적 성화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림꾼 여러분은 밥상에서부터 바로 죽임당하는 콩나물을 살려내는, 그래서 콩나물과 함께 사람을 거룩한 생명으로 드높이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통일꾼이 따로 없습니다. 민중해방꾼이 따로 없습니다. 살림꾼이 곧 구체적인 통일꾼이요, 구체적인 민중 해방꾼입니다.

인간과 대지의 생명회복을 최고의 민중운동으로 아는 생명의 세계관 익히야

이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살림꾼 여러분의 세계관,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의 세계관, 가치관이 생명의 세계관, 생명의 존엄한 가치관에 의해 무장되지 않는다면 이 운동 역시 여타의 조합주의 운동과 마찬가지로

가지로 나중에 흐지부지되어 개인적인 필수품이나 공급받는 차원에서 끝날 우려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곧 우주이며 우주의 곡식을 먹고 사는 한울타리, 한식구, 한울넘이기 때문에 그 곡식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과 모든 이웃과 자연 생태계를 병들게 하고 죽이는 지금과 같은 곡식, 채소뿐 아니라 옷, 그릇, 집 등의 생활양식, 생산양식, 즉 모든 삶의 양식을 바꾸어 인간과 대지의 거룩한 생명을 회복하는 것을 최고의 민중운동으로 알고 실천하는 생명의 세계관, 생명의 가치관을 여러분은 굳게 지니고 익혀야 할 것입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그가 태어나 자라난 대지는 다 같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대지에서 뿌리 뽑히고 비정한 도시로 옮김 당한 사람은 병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지로부터 뿌리 뽑혀 옮김 당한 채 죽음의 질서에 강제로 편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사람 역시 죽음의 질서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현대병 성인병이 만연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방으로 자연건강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말 할 것도 없이 살림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살림운동이 바로 자연건강법이며 틀림없는 처방이 될 것입니다. 살림꾼 여러분에 의해서 차려지는 밥상은 곧 바로 약상이기 때문입니다. 살림꾼 여러분 자신이 이 일을 통해서 싱싱한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며 모든 이웃과 대지까지도 거듭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제세활인(濟世活人), 곧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치료 행위이게 됩니다. 의식동원(醫食同源)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약과 먹는 것은 한 가지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산하고 공급하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약이기 때문입니다.

살림운동은 가장 정확한 민중해방, 민족통일운동

인간과 사회, 사회와 자연을 살려내는 성화운동이 없이는 민중해방도 민족통일도 없습니다. 살림꾼 여러분의 한살림운동은 곧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정확하며 일상적인 민중해방운동이며 민족통일운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않고 실천하시면 오늘부터가 바로 해방이요, 통일의 시작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봉건적인 농업사회도 지금과 같은 산업화 사회도 아니올시다. 우리 모두가 막연하게나마 그리워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편상 제3의 생명공동체 사회라 불러봅시다. 이 제3의 생명공동체 사회는 첨단 산업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그에 따라 무궁무진해지는 공해에 의해서 이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해는 앞으로 모든 것을 제쳐두고 우리 사회의 기본 모순으로 등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모순에 반대하여 생명의 세계관에 굳굳한 자부심을 가지고 굳세게 그러나 넉넉한 마음으로 광범위한 전 민중적 한살림운동을 조직화할 때 ‘죽임’, 곧 기본적 모순을 극복하는 춘삼월 호시절 화창한 후천개벽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생명이란 살라는 명령입니다. 사람은 삶의 긴 말이며 삶은 사람의 줄인 말입니다. 부디 사람답게 삽시다. 🌱

제3세대 협동조합과 사회운동*

이와미 다카시

한살림모임 역

새로운 시대의 개막

1970년대는 우리 사회의 일대 전환기였다. 이 전환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1980년대 들어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의 변화와 일본을 포함한 세계의 격심한 변동, 그리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으며 우리들이 시도하고 있는 주체적인 생활방식에도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전환에 대해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그 실현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전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야가 갑작스럽게 넓혀진 것은 1976년 5월~6월에 걸쳐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국제연

* 편집자주. 이 글은 협동조합이론가이며 일본 르네상스협회 대표인 이와미 다카시(石見尙)가 『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물결』이란 책 속에 실었던 글을 옮긴 것이다. 1980년대라는 지나간 시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라는 이름의 자본주의 시장 일원화의 폭력적인 획일주의에 맞서 협동조합이 그 대안일 수 있는지, 그 대안이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탁월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합 인간주거회의에 참가했던 때였다. 아메리카 원주민을 대표해서 캐나다 인디언이 자연과 토지를 본 모습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를 약탈한 서유럽인과 그들의 체제에 반대하는 당당한 그의 연설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제3세계의 대두를 계기로 국제연합에 참가하고 있는 각국이 내세우는 사상(思想)의 기반과 이해관계가 180도로 변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간공개 토론회에서는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에 대한 고발과 동시에 한정된 지구 자원의 터전 위에서 인류가 공존해 가기 위한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한 논의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일본에서 제출한 미나마타 기록영화가 주목을 끌었으며, 한편에서는 각국의 여러 단체들이 시도하고 있는 유기농업과 풍력발전, 도시 쓰레기의 퇴비 만들기 등의 모형이 전시되었다. 자연보호나 공동체 건설 등에 대한 각국 참가자들의 경험 보고와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것에 관한 워크숍 토론이 밤낮없이 계속 진행되었다. 특히, 미국 시에라 클럽의 주부들은 거침없이 의견을 내놓았다. 민간자연보호단체인 이 단체의 구성원들은 유조선이 좌초되어 중유가 바다에 유출되었을 때, 손수 대야를 가지고 기름을 퍼내 해안을 기름찌꺼기로부터 보호했던 행동과로 알려져 있었다. 나는 거기서 처음 슈마허가 지은 불후의 명저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 1973)의 이름을 들었다. 2달러 45센트인 작은 문고판의 책에서 파국을 향하고 있는 지구 사회의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각해 보면, 1973년 1월 베트남 평화협정이 조인되었지만, 실제로 베트남 전쟁의 향방이 확실해진 것은 1969년 6월 베트남 임시혁명정부가 수립되면서였다. 그때부터 제2차 대전 이후 세계정세를 결

정해 왔던 마소의 양대국주의가 조금씩 붕괴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1973년에는 석유파동이 세계경제를 뿌리째 흔들었다. 소비를 미덕으로 권장하며 대량생산·대량소비와 경제성장률을 지표로 하던 경제적 가치관이 부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대신할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모색이 국제연합 인간주거회의(HABITAT)의 전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1970년대는 인류사의 새로운 생활양식·생산양식 및 사회체제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1980년대는 1970년대란 모색의 단계로부터 무언가 확실한 것을 만들어 내야 하는 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생활양식은 21세기를 향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협동조합의 제3세대

인류사적인 변화의 물결이 사회를 덮치기 시작하고 있다. 사회의 일부분인 협동조합 운동에도 사회변혁의 물결은 밀어닥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의식의 차원에서도, 조직의 차원에서도 협동조합의 대응은 결코 신속하지 않다. 협동조합이 처음 생겼을 때 갖고 있었던 이상을 잃어버리고 지나치게 체제화되었고, 또 비대화되었다는 비판도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전환을 반영하는 획기적이고 양심적인 보고가 1980년에 제출되었다. 그것은 캐나다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었던 A. F. 레이드로의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이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기존의 협동조합론이 가졌던 좁은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연합 환경문제회의와 1970년대 국제적으로 등장하고 있던 다양한 사조(思潮)의 폭넓은 시야에 입각하여 세계 협동조합운동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해결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 논문은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레이드로 보고서’에서도 다루고 있듯이 기존 협동조합 기구의 범주로서는 취급할 수 없는 면들이 1970년대 시작된 새로운 협동조합 활동에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생태주의(ecology)운동, 대안기술(alternative technology)운동, 여성자립운동, 평화운동, 차별반대운동, 유토피아운동 등으로, 이러한 새로운 흐름은 본래 협동조합운동이 스스로 자기 과제로 삼아야만 하는 것들이었다. 이것들을 협동조합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은 기존의 협동조합적 가치관이나 체계로 그것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레이드로 보고 및 1970년대가 마련한 새로운 흐름의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운동을 ‘제3세대 협동조합’이라 불러 이전의 제2세대와 구별하고 있다.

‘세대’라는 말은 인간의 세대에서 따온 것인데, 이 글에서는 사회조직에 사용하기로 한다. 이른바 모든 체제 또는 조직이나 제도, 시스템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환경조건과 그 내부 요소로부터 형성되는데, 그 조건이나 요소가 변하면 수명을 마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사회적인 수명기간을 세대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 세대의 역할이 끝나면 새로운 세대로 교체되는 것이 사회의 법칙일 것이다.

인간의 경우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는 것은, 일을 하는 데 체력,

지력이 교체되는 기간이 30년을 표준으로 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컴퓨터에서는 과학발전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진공관 시대, 트랜지스터 시대, 집적회로 시대로 세대가 급속히 교체되었다. 현재는 제5세대에 이르고 있다고들 한다. 기계와 달라서 사회조직이나 사회체제 등에서는 친구세대 교체의 수명이 비교적 긴 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세대교체에서도 공통되는 점은, 제1세대와 제2세대는 인맥이나 기술, 소재 면에서 어느 정도 연결이 있으나 제2세대는 제1세대의 개량 또는 점진적 변화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제3세대 출현은 제2세대를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제1세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제2세대와는 달리 그 전망을 넓힐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근대 사회의 협동조합운동은 크게 세 단계를 경과해 왔다. 이 변모 과정 속에서 나타난 각 세대의 특징과 시대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제3세대 협동조합운동’의 위치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작업일 것이다.

제1세대는 협동촌, 즉 개척 공동체 건설운동의 모습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해 제1세대는 17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한 청교도가 각지에서 건설한 종교적 공산촌을 발단으로 하고 있다. 그 형태는 프랑스에서는 푸리에에 의해, 영국에서는 로버트 오웬 등의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이론화되어, 산업혁명기에 기업자본에 대항하는 노동자, 수공업자의 협동촌 건설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19세기 전반에 최전성기에 이르나 1850년경에 소멸된다.

유토피아 사회주의가 산업혁명기에 기계의 등장으로 직업을 잃고, 자본가에 패배한 노동자, 수공업자들의 운동원리가 된 것은 협동촌이야말로 자립과 평등, 상호부조의 사회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운동이 1850년경 쇠퇴·소멸한 이유는 그것이 현실사회에서 고립한 소우주의 공산촌이었기 때문이었다. 소우주로서의 유토피아 공동체가 설립되려면 최소한 자급자족 경제에 필요한 생산적 노동력과 조직, 설비에 관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시기의 협동촌은 대부분 현실적으로 그러한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다. 거기에 덧붙여 협동촌 붕괴에 박차를 가한 것은 산업혁명의 성공이 가져온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이었다.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자본 면에서도 인적 구성의 측면에서도 기초가 약한 이들 공동체는 시장경제의 가치법칙에 의해 침식되어 해체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의 문제제기는 두 가지 점에서 불멸한다.

첫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신하는 공동체적 경제체제의 가능성을 사상적으로 정립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생산과 소비의 직결을 목표로, 그 중간 과정에 있는 분배와 교환에 대해 평등과 상호부조의 원리를 분명히 하였다. 둘째는, 협동촌 또는 노동자 공장의 형태에서 자립과 연대, 즉 자주관리사회의 전망을 열어준 점이다. 이것은 1848년 유럽 민주주의 혁명의 주체가 자본가 계급에서 노동자 계급으로 이행하는 근거가 되지만, 이행하는 바로 그 순간 반동화한 자본가계급에 배신당해 좌절하고 만다. 이 좌절은 결국 국가 권력과 자주관리경제의 경계선에 관한 교훈을 남긴다.

협동조합의 제2세대는 19세기 중엽에 등장한다. 1844년 로치데일 공정개혁자가 점포를 연 것이 하나의 지표가 된다. 그 후의 활동은 소비자와 시민의 소비조합 운동이 주류였다. 농업, 영세수공업 등의 생산자들은 공동판매·공동구입의 활동, 저축, 상호금융 등의 형태로 조직되었다. 이들의 공동활동 분야는 개인의 전체 생활 가운데 주로 시장경제에 관련된 부분만을 대중적으로 조직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안에서 불이익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즉, 제1세대와 같이 참가자의 전체 생활을 공동화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은 고립해 있으면서 경제생활의 일부를 분야별·기능별로 조합화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공동사회 건설이 아닌, 공리주의에 기초한 기능의 공동화로, 영어의 ‘cooperative’라는 뜻 그대로였다. ‘cooperative’란 용어는 협동조합운동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제2세대의 공리주의적 조합활동에서 발생한 명칭이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2세대 협동조합이 지녔던 활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 의의로는, 첫째 협동활동을 제1세대가 지녔던 사상, 신조를 기반으로 하는 결사적인 종파주의-섹트성에서 탈피시키고, 개인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을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한 열린 조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협동조합을 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둘째, 경제적 합리주의 사상을 대중조직에 도입시켜 시장경제 안에서 경영시스템을 익숙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점은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경제에 순응하게 된 필연적 결과를 가져왔으며, 제2세대의 의의인 동시에 제1세대로부터의 후퇴를 초래한 약점이기도 하였

다. 약점으로서, 첫째 협동활동을 기능적으로 전문화시킨 결과,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인간생활의 전체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없게 한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인간 존재에 대한 사상성을 상실하고 공동사회의 양식에 관한 사회적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공리주의적 경제주의에 순응하게 된 결과, 둘째 체제에 순응하게 되어 변혁의 에너지가 퇴화해 버린 것이다. 권력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려 했던 유토피아 사회주의의 이상은 수단도, 의미도 상실해 버리게 된다.

제2세대 협동조합은 현재도 존속하며 ‘cooperative’의 모습으로 체제화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역사적 의의와 역할은 1920년대로 막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1930년대 이후 경제의 지배권을 장악한 거대 자본의 카르텔, 트러스트화가 세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제2세대 협동조합은 그 지배구조 안에 종속되어 버렸다. 그 시기 이후를 우리는 제2세대 협동조합 후기라 부를 수 있다. 이 시기 이후 협동조합 부문은 총자본 안의 특수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경제체계 안에서는 역시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다른 기업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제1세대가 추구했던, 대자본과 다른 별개의 원리를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제2세대의 틀 안에서는 새로운 사상도, 활동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제3세대의 등장은 1910년 이스라엘 지역의 키부츠의 개척을 맹아로 들 수 있다. 제3세대의 특징은, 사상적으로는 제1세대를 계승하고, 기능적으로는 제2세대의 기술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터무니없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은 아니고, 경제 현실을 직시한다.

무엇보다도 실무와 경영을 경시하지 않는다. 자립은 경영의 성공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점, 연대는 각 사람의 노동과 기술, 그리고 그 결합의 시스템을 확립하지 않고는 지속되고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제3세대 협동조합운동은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여 자주관리가 가능한 규모를 목표로 한다. 제2세대와 비교하면, 조합을 통해 공동구입한 상품을 점포에서 구입하는 것도 참여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중간이윤을 절감해서 구입가격을 싸게 하는 공동행위로, 이것은 제2세대가 지닌 공리주의적이고 간접적인 의미의 참여일 뿐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제3세대 협동조합 운동에서는 공동구입을 하고 물품을 공급하는 데 조합원의 직접적인 참여를 중시한다. 그것이 협동조합 본래의 뜻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도 크다. 제3세대의 협동조합운동은 직접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범위가 조합(활동) 발상의 출발점이고 중앙집권형이기보다 지방분권형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생산·가공·처리 등의 기술은 거대기술이 아닌 인간의 척도에 맞는 소규모 기술 혹은 공해 없는 적정기술의 관점을 중시한다. 이러한 조직·기술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조합활동은 기존의 협동조합에서는 취급하지 않던 분야에서 분출되고 있다. 이런 조직형태나 활동내용은 제2세대인 cooperative의 틀 안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가장 단적인 예로, 키부츠에서 볼 수 있는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노동자 생산조합은 고도의 공업사회에서, 첫째로 살아남기 위해, 둘째로 자립과 사는 보람을 위해, 생존을 위한 활동으로 1970년대에 다시 꽃을 피우게 된다.

1910년부터 1970년대까지의 긴 공백기에 대해 보충 설명하면, 노

동자생산협동조합의 선구로 볼 수 있는 과도적 활동은 실은 1920년대에 나타났다. 러시아 혁명기에 바쿠 석유공동체들이 있었고, 제1차대전 후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 공장평의회 생산관리라는 형태로 이어졌다. 이탈리아 토리 공장지대에서는 자동차, 피혁, 고무, 목재 공장에서 15만 노동자가 참가한 공장관리와 생산관리가 이루어졌다.

1934~1937년의 스페인공화국에서는 노동자평의회가 농장과 공장, 교통기관을 자주적으로 운영한다. 이것은 작가 J. 오웰이 스페인 시민전쟁의 체험을 그린 『카타로니아 찬가』에 잘 나타나 있다. 이들 선구적인 활동은 정치적인 변혁의 회오리 속에서 이루어졌던 탓으로 정치투쟁의 패배와 함께 진압되어 버린다. 그러나 그 불꽃은 반파시즘 저항운동으로 계승된다. 그래서 독일의 ‘나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족해방투쟁으로 나타나고, 이어 유고의 노동자평의회, 또한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운동으로 계승된다.

협동조합의 제1세대에서 제3세대까지 시대구분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장의 표와 같다. 이 표를 보면, 제2세대는 전기 80년, 후기 50년을 합친 130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존속하고 있다. 그러나 제3세대는 제2세대 전기의 끝 무렵에 이미 활동을 개시하여, 제2세대가 강력한 통제경제로 존재의의가 희박해진 1930년대에 협동운동을 압살하려는 파시즘에 이탈리아에서 또한 스페인에서 대항하고 있었다. 이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재생된 것은 20년간의 공백이 있는 후인, 1970년대 이후 최근 10여 년간의 일이다. 이 20년간의 공백기에 제3세대는 ‘자주관리’를 부정하는 소련형 사회주의와 투쟁을 거쳐야만 했다. 또한 제2차 대전 후 조직화된 자본주의적 성장 정책에 저항하

시대	17 18세기	1800		1900		2000
지표	신대륙의 종교 공동체	유사 토회 파주 악의	로 치 대 일 조 합	유 럽 민 주 혁 명	세 길 노 계 드 농 공 사 자 황 회 공 장 주 의 점 거	제 3 세 계 대 두 두 성 장 의 한 계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며 이를 고발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20년간의 역사적 경과를 살펴보면, 제2세대로부터 제3세대로는 자연스럽게 이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제3세대 협동조합운동은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특징은 앞에서 지적했던 바대로 생태주의, 새로운 대안 기술, 여성의 자립, 평화주의, 유토피아 등을 지향하는 여러 운동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생활운동도 현실적인 영역에서 공해방지, 안전식품의 문제, 유기농업 등으로 관심의 영역이 넓혀지고 있다.

제3세대 운동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인은 인간소외에 관해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비판함과 동시에 기존의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지극히 회의적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3세대 운동은 제2세대

가 이데올로기로 갖고 있는 좌우 기성체제에 대해서 사상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독자적인 길을 가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이른바 정치로부터 중립이나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소외가 없는 사회체제, 즉 자치와 사회참여가 가능한 체제를 지향하고 주권주민의 참된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협동조합운동에 확립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3세대 협동조합의 과제

제3세대 협동조합운동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성은 제3세대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공동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론이 확립되어야 한다.

제3세대 협동조합운동을 이론적으로 해명하고, 실천적으로 추구해야만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안전식품의 추구하고 유기농업에 대하여

안전한 식품의 추구나 유기농업의 목적이 단지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안전성을 위협하는 질이 안 좋은 상품 생산에 대처하는 방법을 실천적으로 찾는 것이라 한다면, 우선 이 운동은 사업화되어 장기적으로 존속하여, 경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해야 할 것이다.

슈마허가 ‘중간기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 낼 수 있는 조직

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소유’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자본주의적인 사적 소유에 대항하여 일하는 사람이 자본을 소유하는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의 기업형태를 주장했던 것이다. 안전식품이나 유기농산물이 일본에서는 개인 경영으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슈마허가 지적한 소유 문제가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그와는 다른 의미에서 소유가 문제시되고 있다. 즉, 농업 경영을 계승할 후계자가 없거나, 생각이 바뀌면 사업을 지속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개인 경영 형태를 법인의 형태로 바꾸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즉, 소유자가 바뀌어도 후계자가 나타나 경영체로서 존속하는 방도를 사전에 강구해야만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법인이 적당할까? 법인에는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농사조합 법인, 그 밖에도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생산협동조합이 유력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협동조합의 경영과 운동의 과학성에 대하여

협동조합의 경영적 약점은 자본의 부족, 기술 개발과 기획력의 취약함, 폭넓지 못한 정보망, 낮은 판매력 등이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이 제2세대 협동조합의 경영방식이었지만, 규모가 큰 경제를 추구하면 조합원의 참여가 줄어들어 결국 일반기업과 같은 길을 걷게 될 뿐만 아니라 수익성 면에서도 자본주의의 거대 기업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기존 협동조합에서 자본의 부족은 어떤 조직과 관계에서 일어났는가, 기술 개발과 기획력의 취약함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인가,

폭넓지 못한 정보망에서 정보는 어떤 정보를 말하는 것일까, 판매력이란 어떤 시장을 지향하는 것인가를 규명해야만 할 것이다. 생활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은 경영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별 조직을 기업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통해 경영의 체질 개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협동조합 전체로 보면 통일성이 없고 효과도 별로 없는 노력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협동조합은 본래 생산과 생활을 분리시킨 기능적 조직으로서 개별적으로만 이루어진 존재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인간은 생산하고 또한 소비하는 존재이다. 이것이 현재의 분업과 시장경제 하에서 분열되어 버렸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즉, 생산과 소비가 분리·분열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면 생산과 소비를 분리·분열시키고 있는 시장 메커니즘에 대항하여 의식적으로 그것을 통일시켜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제3세대 협동조합이 최초로 취급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하는 협동조직의 이론화가 과제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협동’이란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라는 추상적인 슬로건만이 아닌, 생산과 소비의 예처럼 본래 하나였지만 분화 또는 분열되어 대립적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통일시키는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구조적으로 분열된 사회에서는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선이나 악을 명백하게 분리해 낼 수 없다. 생활의 모든 면에서 자기모순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즉, 탁한 공기나 소음의 피해자인 자신이 하천의 수질오염의 원인인 경우처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며 가해자가 또한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모순의 연쇄 구조가 정착되어 있는 것이다. 이 연쇄 구조를 타

과하기 위해서는 대립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 외에는 모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3세대 협동조합은 자주와 연대라는 슬로건을 내걸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자기 반성적이며, 분열하고 대립된 입장의 상호연대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결된 협동조직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협동조합과 국가의 관계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분열된 현대사회를 통일하는 것 중 한 가지 방법은 주권재민의 기초 위에 새롭게 형성된 ‘복지국가’이다. 이것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교차로에 선 교통경찰과 비슷한 것이리라. 그러나 ‘복지국가’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국민 생활의 근거인 생산과 생활을 현장에서 통일하는 사회경제 체제의 확립 없이는 복지국가의 이상이 이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치적인 협동조합공동체를 전면적인 기반으로 하여 성립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3세대의 협동조합은 기존의 제2세대 협동조합, 특히 국가체제에 종속되어 자주성을 상실한 그 후기 과정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출발한다. 즉, 당연한 사실이지만 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회 기능의 일부로 국가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기초 위에서, 국가에 흡수되고 집중되어 버린 재정, 경제정책, 후생, 복지, 교육, 정보, 그 외의 제반 분야 및 권력을 본래의 사회로 환원하고 주권주민의 실체를 쌓아가는 과정이 협동조합의 한 가지 역할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 점은 중요한 논점이므로, 그 실현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보기로 하자.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각종 협동조합이 지역에서 조직되고, 그것들의 다양한 연대로 협동조합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때, 경제·복지·교육·위생 등에서 자주관리 능력을 잠재적으로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숙도에 따라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순차적으로 분할하여 협동조합 지역공동체에 이행시키고, 국가에 조건부로 맡길 기능과 민중의 자주관리에 맡길 기능을 분류·정리하여 질서 있게 국가를 해체해 가는 것이 협동조합운동의 국가론 전략인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자치 능력이 갖추어진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국민이 자주관리 해야 할 기능까지도 국가의 관료기구가 장악하고 있는 형편이다. 어떤 권력이라도 국가기구에 집중되면 국민을 지배하는 도구가 되어버린다. 그 한 예로 식량관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한다면 어떨까? 쌀을 예로 들어보자. 생산지와 소비지에 있는 정부 식량창고와 운송시설을 협동조합에 이관한다.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쌀의 수급계획을 세워 운송 및 미곡대금 결제실무를 담당한다면, 수출수입 업무를 제외하고는 국가에 의존할 필요가 거의 없을 것이다. 현대의 생산·소비·유통 업무를 협동조합 전체의 자금력·조직력·기술력·실무 능력으로 해낼 수 없을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인 농민은 농협을 사무국으로 하여 생산계획을 정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고, 소비자는 스스로 생활협동조합을 조직하여 공동구입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생산자·소비자가 각각 성실하게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양자가 쌀에 관한 국민회의를 조직해서 생산·유통·소비

업무를 자주관리 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협동조합만으로 부족한 점은 그 업무의 일부를 국가나 민간업자에게 위탁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한다. 그 중 기상정보나 국가경제 및 해외식량 사정에 관한 정보는 국가에 위탁할 부문일 것이다.

이런 전제 위에서 국가는 ‘독점의 금지’나 ‘시장 메커니즘이 가지고 있는 경쟁원리의 도입’, ‘효율화·합리화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을 명목으로 종합상사나 미곡 메이저를 끌어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외부기업이 참여하지 않고도 전체 협동조합조직의 자주관리 체제하에서 경쟁과 시장 메커니즘에 해당하는 기능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맡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협동경제 원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그렇게 해나가는 쪽이 사회적으로 더 합리적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들은 단순히 ‘생산수단의 합리화’나 ‘중요 기간산업의 국유화’ 등의 관념적인 슬로건이 아니라, 국가기구를 세부에 이르기까지 조사분석함으로써 전면적으로 협동조합에 이행시킬 기능, 국가에 위탁할 기능, 사기업에 맡길 기능, 또는 제3부문을 통해 운영할 기능 등을 구분하여,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밀실 속의 행정개혁을 통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중토론 및 협동조합의 참여와 강화를 통해서 비로소 계획을 실행할 수 있으며 올바르게 추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식량이 국가의 안전보장의 도구가 되어 ‘식량안보’라는 말조차 생긴 지금, 국민의 생존은 국민 스스로의 손으로 식량을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식량문제를 단순히 식량자급론이나 증산운동, 국가 논쟁, 무역자유화론, 농민보호 논의 등 추상적인 논의로 빚나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쨌든 협동조합운동의 관점에서 국가론을 다룬다면, 민중의 자주 관리 능력, 통치 능력에 대한 실제 분석과 그 강화를 위한 확실한 방법론적 전망을 수반하지 않는 한, 공론에 그치고 말 것이다. 협동사회의 이론적 전망을 결여한 종래 사회과학의 국가론이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던 전철을 이번에는 반드시 극복해내야 할 것이다.

전망

마지막으로 제3세대 협동조합운동은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까, 그 전망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기로 하자.

모든 사회운동은 객관적 조건의 성숙과 주체적 조건의 정비가 일치 되었을 때 발전할 수 있다. 그 어느 한쪽이 갖추어지지 않았어도 운동은 충분한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

객관적 조건으로는,

1. 경제성장이, 국내에서는 과잉생산을 야기하고 해외에서는 무역 마찰을 초래한 결과, 그 생산력을 제어하는 방법을 노동자를 필두로 모든 계층의 국민이 심각하게 생각할 때
2. 경제성장이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에 대한 강한 반발이 생기고, 적정한 규모의 경제로 돌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3. 자본이 인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일·노동을 돕기 위

해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노사간 합의할 때

주체적 조건으로는,

1. 노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그 밖의 모든 대중 조직 속에서 조합원 자신이 문제해결을 위해 학습하고 협의하면서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습관이 정착되었을 때
2. 각 지역의 풀뿌리 운동을 연결하고 횡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가 활동가 속에서 많이 배출되어 조합원의 대중운동을 전문지식에 의해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전문직원은 이러한 의미에서 전문가여야 할 것이다.
3. 전문 분야별로 횡적인 네트워크가 가능한 풀뿌리운동을 총제적이고 입체적으로 조직하고 방향을 설정해 갈 리더가 성장될 때 세 측면의 주체적 조건을 정리하여 전체적으로 조직 안에 운영능력을 축적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주체적 조건과 객관적 조건이 성숙해 갈 때 협동조합운동은 제2세대로부터 제3세대로 급속하게 이행할 것이다. 

[좌담] 새로운 삶의 이해와 생활협동운동*

생활협동운동, 특히 유기농업과 소비자운동의 연대를 중심으로

김영원 | 한살림생산자협의회 회장

박재일 | 한살림모임 의장, 한살림농산 대표

이순로 |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 이사장

한살림모임이 결성되기 전부터 이미 생산자인 농민과 도시 소비자들 사이에 유기농산물을 매개로 한 직거래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1986년 12월에 서울의 제기동에 <한살림농산>이 개설되어 생산지와 소비자가 연결되는 창구역할을 담당하였고, 이것이 발전하여 1988년 4월에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이 창립되었다.

그와 더불어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참여하던 농민들이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1988년 11월에 100여 농가가 중심이 되어 <한살림생산자협의회>를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이러한 활동은 농촌과 도시의 직거래운동 차원을 넘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와 만남, 생산과 소비의 통일을 지향하여 상품사회를 넘어선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한 생산자인 농민들은 생명의 농업인 유기농업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있으며, 주부들이 중심인 소비자들은 유기농산물을 사먹는 데 그치지 않고 환경문제, 교육문제 등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죽음의 질서를 극복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생활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다. 그리고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운동을 통한 생활협동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생활협동운동의 구체적인 현황과 가능성 모색을 위해 이 활동들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 무크지 『한살림』, 1990

박재일 먼저 멀리 경상도에서 농사 지으시라, 유기농업을 펼치시라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영원 회장님께서 <한살림생산자협의회>(이하 생산자협의회로 줄임)에 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원 생산자협의회는 지난해 2차 총회를 치렀을 정도로 역사가 짧습니다만, <한살림농산>이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기존 농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 가운데 유기농업을 하고 있던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한살림농산> 활동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지난 2차 총회 및 연수회에 참여한 인원이 100여 명이고 회원은 거의 전국 각지에 고루 퍼져 있습니다. 지역중심 운동이 활발하고 지금은 한살림 유기농산물의 규격을 제정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회원은 연수, 교육과정을 거쳐야 할 정도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유기농업은 기술과 함께 자연과 인간에 대한 믿음과 올바른 마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재일 유기농업을 하시는 농민들이 이렇게 땀 흘려 생산한 소중한 농산물을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이하 한살림소협으로 줄임)에서 그동안 공동으로 구입해서 나누어 먹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순로 이사장님께서 소협의 모습과 활동 상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이순로 1986년 12월에 시작한 <한살림농산>을 이용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1988년 4월 21일 70여 세대가 모여 한살림소협을 창립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조합원이 약 2천 세대에 이르렀습니

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보다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해 관악구 봉천동과 강남구 대치동에 공급소를 마련하고 지역에 따라 협의회도 구성했습니다. 5~10세대가 함께 생활공동체를 만들어 이 공동체를 단위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받아 서로 나누어먹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구입 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단절되고 폐쇄된 도시생활을 나눔과 친교의 마당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교육을 중시하고 자기발견과 이웃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보다 커다란 공동체 사회를 향해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김영원 저희 생산자협의회가 100여 농가에 이르고 한살림소협은 180여 공동체에 2천여 세대가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데 불과 2, 3년 사이에 이렇게 발전한 까닭을 알아볼 필요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 활동은 먹을거리, 특히 일차 농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농민운동이나 농촌현실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듯한데 이 운동의 산과역할을 해오시며 고생이 많으셨던 박재일 한살림모임 의장님께서 지금까지의 한국농민운동의 흐름과 이 운동과의 맥락을 설명해 주시길요.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

박재일 제가 참여했던 운동은 가톨릭농민운동과 천주교 원주교구가 강원, 충북,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전개한 농촌개발활동이었습니다.

먼저 가톨릭농민운동은 농촌현실과 자기 자신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농업·농민 문제의 해결과 잘못된 구조, 제도, 정책의 개선과 민주화를 위한 활동으로 전개되어 이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운동과 삶의 일치, 자연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람을 이루어내는 데는 미진했습니다.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 평가와 반성의 과정을 거쳐 ‘공동체적 삶과 사회의 민주화’라는 큰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운동의 일환으로서 유기농업운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게 되고 지역에 따라 실천에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농민운동 내부에 깊숙이 뿌리박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중요하고 절실한 운동으로 크게 자리매김 되리라 봅니다.

1973년부터 시작된 강원도 지역의 농촌개발운동은 일을 같이하는 생산협동활동이나 그것과 연관된 신용협동, 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용협동, 나아가 생활물자를 공동구입하는 소비협동 등의 협동운동과 마을 민주화운동이었는데, 이 운동 또한 농업정책, 경제정책, 급격한 사회변화 등으로 농민이 농촌을 떠나게 되고 농촌의 공동체 삶과 공동체문화가 붕괴되면서 마을 규모의 협동운동은 와해됩니다. 지역권으로 발전한 운동은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형편이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반성과 새로운 방향모색을 한 결과 ‘생명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협동적인 삶’을 실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의 변경’이지요. 이때부터 생명의 세계관을 확립하고 공동체 삶을 실현해 가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기농업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갖게 되면서 실천하게 되고, 도시와 농촌, 생산과 소비가 만나고 연결되고 연대해 가는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을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1985년 6월에 창립된 원주소비자협동조합운동입니다. 그 후 1986년 12월에 서울에서 한살림농산이 문을 열고 활동하게 되었고, 1988년 4월에 한살림소협이 창립되어 현재 크게 확산,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김영원 1980년대 중반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서 오늘과 같이 생산과 소비의 연대, 농촌과 도시의 농산물직거래를 통한 연대가 나타나기 전에도 도시 나름의 공동체운동이나 생활협동운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땅에 있어왔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종교단체이건 자생적인 모습이건 농촌과 연대는 되지 않았더라도 생활공동체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십시오.

이순로 교회나 성당은 반 조직이 잘 되어 있지만 각기 방향과 뜻이 달랐습니다. 사회운동, 도시빈민운동, 노동운동 등 다양한 내용의 활동들이 있어왔지만 이런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드물고 대부분은 교회 소모임이나 계모임, 헬스클럽, 각종 문화센터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모여 천주교민족자주생활운동을 조직하게 되면서 생활공동체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부모임을 해오다가 1987년 1월 정호경 신부님과 박재일 의장님을 만나 한살림운동을 소개받고 지역 중심으로 본격적인 생활공동체 운동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재일 농촌과 도시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유기농산물인데 김 회장님께서 어떤 계기로 유기농업에 손을 대셨으

며 그리고 종전의 관행농법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김영원 앞서 박 의장님 말씀대로 1980년대 농민운동의 방향이 사회정의 실현과 공동체의 구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민운동에서는 유기농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행농법의 피해 속에서 생존의 위기감을 느낀 현장 농민들이 농약의 심각성을 깨닫고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신문을 통해 공해와 농약 문제로 인한 엄청난 피해상을 알게 되었는데 제 주변의 여러 사람과 가족이 농약으로 인해 죽거나 병 때문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하나뿐인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생산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유기농업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12년 전의 일이지요. 저도 중독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아내의 권고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이젠 과수에도 전혀 농약을 치지 않고 있습니다.

관행농법은 증산과 신품종개발을 이유로 화학비료와 독성농약을 사용케 하여 농촌경제를 가난에 허덕이게 하고 농민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고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 관변학자들은 항상 농약의 무해성을 주장합니다.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해충이 제거되고 농업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해서 농가소득이 오르며, 농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다, 즉 자연분해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단지 농약사고는 농민들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농민을 계몽하고 교육하면 피해를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기획원 공식통계에 의하면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는 1년에 평균 1,200명 정도입니다. 1985년도엔 1,561명(여자 455명)이 농약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그밖에 비

공식 사망자나 만성중독환자는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피해를 입게 되자 농민 스스로 각성을 하고 유기농업으로 전환해야 삶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생활공동체

이순로 유기농업 이야기를 들으니 단순한 도농직거래나 경제적인 의미의 생산과 소비의 연결을 한 차원 뛰어넘어서는,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 절실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기농운동을 통해 어려운 농촌과 도시 현실을 통합하는 새로운 생명문화의 큰 판이 있어야겠다고 느낍니다. 이에 대해 박 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재일 기나긴 인류문명의 역정(歷程)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서로 어울려 친교를 이루면서 살아왔는데 최근 수세기 동안 공업기술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농촌에서도 농민들이 땅을 죽여 가면서 약탈농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사람들은 편리만 추구하여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웃으로부터 단절되고 있으며 먹을거리는 독극물에 오염되고 생태계, 즉 물, 공기, 땅, 오존층 등의 생존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됨으로써 인류의 생존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되지 않았나 할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자연스런 모습을 되찾기 위해 생활공동체운동이나 유기농업운동 그리고 그 둘의 연대에 관심을 가지게 됨은 물론, 총체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운동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어 생명을 살리자

는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먹을거리를 서로 나누는 일이 그 시작입니다. 앞으로 생활 전반, 삶 전체에 관련된 운동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원 사실 생태계의 파괴, 죽음의 환경도 무섭지만 인간의 본성이나 도덕성의 파괴 또한 그에 못지않습니다. 농촌에선 농민들이 구분농장(區分農作)을 합니다. 시장에 내다 팔 농산물은 농약을 듬뿍 치고 자기와 가족이 먹을 것은 농약을 안 뿌리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조차 생산량과 돈에 집착한 나머지 반생명적 농사에 매달리는 것을 보면 신앙도 삶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그만 이기심이 자신과 이웃 모두를 죽이는 것인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한살림운동은 유기농산물을 매개로 해서 가치관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로 소비자도 마찬가지지요. 소비자 측이 오히려 생산자인 농민보다 편의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가족 이기주의에 더 심하게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의 파괴나 인간관계의 단절, 구조적인 사회악을 해결하려면 생활공동체운동밖에는 길이 없을 것 같은데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마음을 갖기가 제일 힘들지만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사회와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책임을 느끼며 남을 받아들이고, 보람 있는 일들로 생활을 채워나가도록 해야 할 텐데 이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지요.

김영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산업 위주의 기계적인 사고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석유를 에너지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산업사회는 이미 한계에 와 있고 앞으로 공생의 사회만이 지금의 죽음의 사회를 살려낼 수 있는데 편리함과 물질적 풍요를 꿈꾸는 허위의식을 버리지 않고는 이 공생의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생산자교육에서 심성의 변화를 무척 강조합니다. 생산자의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소비자도 변한다는 생각이지요. 소비자와의 연대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농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산업문명의 뿌리와 한계를 명확히 깨닫고 농업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마음과 시각의 근원적인 변화와 각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이순로 동감입니다. 교육을 하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처음엔 이웃도 필요 없고 자신이 공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도 모르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무농약농산물을 사먹겠다던 사람들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먹을거리가 농약과 식품첨가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고, 수입농산물이 무서운 독성식품이란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면서 원인을 캐어가다 보면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밥상, 먹을거리, 인간관계, 사회구조 등을 알게 되고 자신이 사회 속에서 할 일을 찾게 됩니다. 가정에서 사회로 뛰어들면서 가정과 사회가 생활공동체를 통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처음엔 사회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 욕심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소공동체 중심 활동을 하면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소수이고 더군다나 인

간 본성과 도덕성을 온전하게 각성하고 활동하는 사람은 더욱 드물지요. 서로 교육하고 배워가면서 가다듬어 가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크게 겪고 있는 어려움이 편의주의에 빠진 습관을 고쳐 자발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하도록 이끄는 일과 불신풍조에 사로잡힌 마음들을 물건과 인간에 대한 신뢰감으로 바꾸는 일인데 소공동체운동을 통해 세계관과 가치관을 생명의 세계관으로 바꾸고, 일에 참여하면서 자주성과 믿음을 키우도록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원 이러한 운동이 일본의 생활구락부 생활협동조합 같은 데서도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활협동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은 없는지요. 그리고 그쪽의 현황은 어떤지 박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박재일 일본의 생활구락부 생활협동조합은 1965년 우유를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활동으로 시작해서 1968년에 생활구락부 생활협동조합을 창립하여 생활운동을 하고 있지요. 약 25년의 역사를 지녔는데 주로 반 조식을 중심으로 자기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공동으로 계약주문해서 나누는 것이 주요한 활동이고 자신이 생활의 주인이라는 자각에서 출발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한살림소협과 비슷하나 처음부터 생산자를 직접 만나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 먹는 방식이었고 우유부터 시작한 것이 농산물에 이르러서는 땅과 생태계를 살려내는 유기농업과 연관을 갖게 되어 갈수록 운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단위조합이 있고 몇 년 전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은 14만 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놀란 것은 그분들이 25년 동안 운동을 해오면서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적

인 물자를 하나씩 확정짓고 이용하는데 현재 취급하는 물품수가 340가지 정도밖에 안됩니다. 한 백화점에서 보통 수천 가지의 물건을 취급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불필요한 낭비없이 필수품만 구매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영원 정말 소비자운동은 소비물자 총량뿐만 아니라 소비품목 수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것은 늘려야겠지만요.

이순로 한살림도 1990년에는 백여 가지 품목을 취급하는데 굉장히 많지요. 일본의 경우 340품목이라면, 생산공장에 위탁한 것과 소협 안에서 출자해서 직접 생산한 것이 있을 텐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일까요?

박재일 자료를 종합해 보면 주종을 이루는 것은 생산자가 직접 생산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은 농민이나 농민단체와 연대를 하고, 공산품의 경우는 자기들이 필요한 물자를 주문해서 생산을 위탁하는 주문, 계약생산을 합니다. 품목에 따라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생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의 생활협동운동은 일본의 생활구락부생활협동운동을 연구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주체로서 필요한 물자를 결정짓고,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해 구매력을 집중시켜 생산을 가능하게 하거나 자치의 원리에 근거해서 생산자를 직접 찾아가 의견을 나누고 꾸준히 출자하여 필요한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은 본받을 만합니다.

유기농업 - 생명의 회복을

이 순 로 한살림 식구들도 생활주체의식이 강합니다. 공동체생활 속에서 자신이 자기 삶의 주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크게 성장하거든요.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생활의 주체로서의 자각이지요. 그래서 한살림소협에서는 여성운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성, 남성을 넘어서 삶 차원의 운동이고, 의식의 성숙과정을 통해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창조해 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한살림소비자운동 안에는 공해운동, 여성운동, 교육운동, 반핵운동 등이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재 일 그러니까 유기농업운동도 연관이 있겠지요. 농촌과 농민운동에서는 유기농업운동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운동이 되리라 보는데요, 예를 들어 화학영농, 기계영농과 같이 자연과 인간을 파괴하고 죽이는 일을 방조하는 삶이 아니라 자연과의 생태적 순환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유기농적 삶의 방식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기농업운동은 농촌과 도시가 서로 연대하여 협동하는 구체적인 생명운동이라 봅니다.

김 영 원 유기농업을 하려면, 죽음의 질서와 구조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의 지배 때문에 우리 농민이 농약을 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됨으로써 이익은 외국자본이 챙기고 우리나라 농민은 생산의 도구로 전락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학

비료공장은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서 화학비료를 많이 써야만 하는 품종을 권장하고 농약을 팔아먹지요. 거기에서 유통까지 장악해서 수입 농산물을 들여오거나 개방정책으로 농민은 생산비도 못 건지고 부채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위기, 농업위기를 국제화와 개방이라는 미명 아래 한국 농업이 떠받치면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신음하는 꼴이 되었지요. 이렇게 독극물에 오염된 수입농산물을 들여올 수밖에 없고 농약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인식인 선행돼야 합니다.

이 순 로 유기농업 생산자 조직과 거기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 먹을거리를 나누는 소비자협동조합이 서로 의지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소비자 활동이 커질수록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반면에 유기농업 생산자들의 노고로 저희 소비자들의 생명이 보장되는 공생의 관계가 더욱 광범하게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기농업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김 영 원 농민들도 농약의 무서움을 알고 유기농업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확산이 잘 안 되는 것은 첫째 노동력의 부족입니다. 관행농법보다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농업정책의 부재와 도농 간의 불균형 심화로 일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다음은 농민들도 상당히 편의주의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힘들여 농사짓기보다 재수 좋게 수지 맞춰 파는 게 더 주요 관심사가 될 정도니까요. 정부의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이라는 것도 농촌인구를 줄여가면서 전문농업을 권장

합니다. 이와 같이 노동력 부족, 농민들의 편익주의와 사행심, 정책 부재가 유기농업운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개선을 위해 앞으로 농민운동은 기필코 사회정의와 생명회복을 위한 공동체 운동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방향 이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주부들의 역할과 여성운동

박재일 도시나 농촌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회운동단체와도 열린 가슴으로 연대하여 새로운 차원의 운동을 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원 우선 유통 과정도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살림을 생명운동의 하나의 커다란 지체로 보고 겸허한 자세로 다른 유통단체와 연대를 맺어야 된다고 봐요.

박재일 연대란 주체성을 지켜 나가면서도 서로 돕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단체 같은 경우 소모임이 많은데 그런 종교운동과 생활운동을 엮어 풍성한 생활종교운동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순로 한살림소협의 경우 80%가 천주교 신자입니다. 생활의 진리로서 삶의 내용을 채우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신천동 본당 같은 경

우 지역주민 교육을 한살림공동체운동으로 채우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필리핀의 기초공동체운동 연수프로그램을 옥수동 성당에서 가졌는데 거기에서도 한살림이 교육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기업화된 교회, 성당 등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일 또 탁아소운동과도 연결이 되리라 봅니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야 할 새싹 같은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지역탁아소 활동과 가능한 연대를 맺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민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한살림운동을 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결과물인 많은 폐기물, 즉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일에 소비자공동체운동이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순로 그럼요. 쓰레기를 줄이려면 불필요한 소비생활을 줄여야 하고 생활 속에서 비닐 사용을 안 하고 자연스럽게 보자기와 장바구니를 써야 되겠지요. 합성세제도 안 쓰고요. 그런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체험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운동이고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일 더불어 사회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운동단체와도 연대가 필요합니다. 생활혁신도 중요하지만 사회실천 운동단체의 역할도 소중하니까요. 삶과 운동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농민운동도 유기농업운동의 완성이 아니라 인간다운 농민생활을 가로막는 구조나 제도, 불합리한 정책 등을 같이 깨쳐나가야 합니다.

김영원 쓰레기나 학교급식문제는 정책이나 문화제국주의와도 관계가 깊어요. 쓰레기 재활용문제는 학계와 정치권에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농산물이나 외국식품 전시회에 가보면 입맛까지 바꾸어 소비성향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식생활문화까지 침탈하려고 하는 것같이 보여지는데 이것이 결국 농촌을 파괴하고 도시에 사는 소비자의식까지 잠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로 아이들의 입맛이 햄, 치즈에 길들여지고 있잖아요. 고추장, 된장 소비가 줄고 전통 음식문화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국산식품의 애용과 유기농산물의 사용으로 수입농산물, 농약, 인스턴트식품의 무서움을 일깨워야 하지요. 이를 위해서는 다른 여러 소비자운동단체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박재일 한살림생활공동체운동은 먹을거리를 통한 생명문화운동인데 여기에서는 밥상문화의 주역인 주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살림정신은 주부와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심성을 가지고 세상을 가꾸려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여성들의 사회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스스로 바람직한 활동을 찾아나가면서 기존의 남성적인 사고가 빚어낸 지배와 대립의 산물인 사회의 병폐를 고치는 주체로서 여성운동의 자리매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

김영원 이런 연대를 바탕으로 한 한살림소협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순로 전에 고추가 대풍이 되어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소비자들이 울면서 연초 계약가격으로 사서 먹고, 배추 값이 폭등했을 땐 싼 값으로 웃으면서 사먹은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새로운 경제관념과 더불어 먹을거리의 나눔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생활협동운동이 필요합니다. 소협은 동네 단위의 공급장을 늘려갈 생각인데 단순하게 물건만 주고받는 공급장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어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밝은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광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박재일 생산자협의회 쪽은 어떤가요?

김영원 농업을 산업 본위로 보는 사고방식부터 고쳐야겠지요.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가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는 올바른 농업관의 정립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상대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인위적인 계획생산이 불가능하고 항상 과부족과 과잉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피해를 입기가 쉽습니다. 유통과정을 더욱 발전시켜 해결을 해야지요. 그리고 이렇게 도농직거래와 협동조합운동을 통하여 결국 시장경쟁원리 자체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표어인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

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것도 결국 시장경쟁 원리를 극복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획생산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와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해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 어려운 만큼 이해를 바탕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먹을거리를 나누면서 삶 전체를 공유하고 믿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려 합니다.

이 순 로 한살림소협과 생산자협의회 그리고 다른 운동단체가 서로 연대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자기 일을 책임지며 보다 큰 공동체사회를 지향해 나가야겠지요. 교육운동에 보다 충실하고 세계관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리라 봅니다. 박 의장님께서 생명의 세계관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생활양식 창조를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종합적으로 포괄해서 결론을 맺어 주시지요.

박 재 일 우선 이 지구상의 만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의 가치, 특히 인간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소중한 생명이 기계문명, 산업문명의 문제와 전체 구조의 잘못과 인간 자신의 욕심으로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는 현실에 대해 모두가 각성을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운동을 통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야 된다고 봅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생활 속에서 마음을 모으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작지만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가는 출발단계에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모색한다면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본적인 먹을거리인 농산물은 물론이고 생명의 원천이면서 인체에 불가결한 물이나 다른 여러 가공품에 대한 문제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아서 생산이나 소비생활 속에서 그런 것을 오염시키는 원인들을 찾아내어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비누나 세제를 만드는 일 같은 것이 중요하지요. 만약 확실한 소비가 보장되고 가격이 보장된다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처럼 다른 것도 생산이 가능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운동을 통해 깨닫게 되는 새로운 생각과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새로운 생산, 유통, 소비양식, 생활양식을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이 정치에 종속되어 있던 것은 정치가 생활에 필요한 도구가 되도록 바꾸어 나가는 새로운 삶을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삶이 정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삶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정치와 삶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지요. 이런 시각에서 언론이나 교육 그리고 문화 전체를 제 모습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밥이 밥답게 공기, 물, 흙, 자연이 자연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온 생명이 제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활동해 나갈 때 생활협동운동, 생명운동, 한살림운동이 제자기를 찾고 발전해 나가리라 봅니다.

김영원 우리의 동물적인 본능인 욕심을 버릴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거기에 이웃이 있고 공동체가 있잖아요. 생산활동이나 소비활동 모두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마음들을 서로 나눌 때 살림운동이 발전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으리라 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

다.

오랜 시간 말씀 나누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한살림 공동체란?*

천 규 석 | 한살림대구 이사

한집 살림, 같은 살림, 살림은 하나라는 작은 뜻에서부터 모든 생명은 유기적 연관 속에서 더불어 무한하게 공생한다는 큰 뜻까지 포용하는 다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일상적 살림살이 말이 이제 와서 새삼스런 의미증가와 함께 이데올로기적인 이름이 될 수 있는 이 시대의 한살림은 공생으로서의 실질적인 한살림이라기보다 그 반대의 징표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오늘의 한살림은 다음과 같은 자잘한 생활 변화 실천의 거듭으로 명실 일치의 한살림을 더불어 찾아간다.

내 밥상 살리는 삶으로부터 시작하는 한살림은 비료, 농약, 생활하수, 공장폐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성비, 오존층 파괴, 지구 온실화 등의 복합오염에 죽어가는 땅을 살린다. ‘약보보다 식보’라는 옛말처럼 생명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건강과 수명과 성격까지 결정된다. 그러므로 한살림 가족은 원칙적으로 무농약 우리 농산물을, 농약

* 한살림 소식지. 1992

없이 안 되는 농산물일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저농약 농산물로 우선 내 밥상부터 살린다. 한살림 생활자는 의도적으로 무농약 농산물을 먹어줌으로써 농민들로 하여금 비료와 농약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생명 유기농법을 확대시키고, 스스로는 합성제제 안 쓰기, 쓰레기 적게 버리는 절약생활로부터 궁극적으로는 대기오염, 악성 공장폐수 등을 이웃과 더불어 줄이는 생활 변화를 통해 우리의 큰 밥상인 땅을 살린다.

무농약·저공해 계절농산물의 직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땅이 곧 밥상이라면 농민은 이 밥상을 차리는 우리의 살림꾼이다. 그런데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했던 전통 농업공동체 시대와는 달리 산업이 극도로 분업화되어 가고 도시와 농촌이 천당과 지옥 만큼이나 단절된 오늘날에는 우리가 매 끼니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이 밥상이 불특정 다수의 농민이 불특정 다수의 도시 소비자에게 몇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쳐 오로지 시장 상품관계로 매개될 뿐, 밥상을 차리는 사람과 받아먹는 사람끼리 얼굴도 이름도 성도 알 턱이 없게 됐다. 사람의 생명 자체인 농산물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시장 상품으로 전락했을 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농산물이라기보다 시장판의 속임수와 불신으로 죽은 단순한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고 생산자가 곧 소비자가 되는 생산·소비가 통일된 세상은 한살림의 이상이자 인류의 이상임이 틀림없겠는데,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직거래

다.

농산물의 직거래는 유통이윤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다 같이 이익을 주기 위한 경제적 목적보다 소비자는 내가 받는 밥상이 어느 농촌 어떤 농민이 지었다는 것을 알고 먹고 생산 농민은 자신이 차린 이 밥상을 어느 도시의 어떤 시민이 받고 있다는 사실이라도 알게 됨으로써 시장 유통 과정에서 잃어버린 생산·소비자 간의 이름과 신뢰를 회복하여 농산물에 쌓인 불신을 무너뜨리자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직거래를 통해 이름만이라도 익힌 생산·소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비자가 직거래 농촌에 친선 방문하거나 농번기 노동 봉사를 통해서, 생산자는 기회 있는 대로 자기 농산물의 공급에 직접 동참해 봄으로써 실제로 낯을 익힌 이웃 형제가 되어 신뢰와 우애를 더 높여 가게 된다.

그러므로 한살림은 생산자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확실한 무농약·저공해 제철 농산물의 직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만인 재생순환이 가능해서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서도 사람에게 꼭 필요한 가공식품과 공산품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자주관리 생산방식으로 생산·소비의 통일 살림에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한다.

농촌과 도시가 함께 사는 삶이다

공업 우선의 산업사회에서 우리의 밥상이요 인류의 영원한 고향인 농촌은 전 지구적으로 분해·파괴 당하고 있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완전 수입개방을 내용으로 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강대국의 이익을 앞세운 무역자유화의 강풍 앞에 선 우리 농민은 이제 설 자리가 없다. 근대 이후 공업화 과정에서 끊임없는 해체와 예측의 대상인 농민, 그들은 대체 누구인가. 못나도 내 부모, 내 형제가 아닌가.

오염의 심각성에 있어서나 식량안보의 측면에서뿐 아니라 수입농산물에 우리의 밥상을 통째로 내맡긴다는 것은 민족의 공동체성과 자존심을 스스로 짓밟는 자해 행위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농산물, 그 중에서도 생명 유기농산물을 - 반생명적이라서 당연히 값도 싼 수입농산물 때문에, 아니면 정부의 가격통제정책 때문에 보통 생산비보다 낮게 결정되는 시장가격에 따라 선택할 것이 아니라 - 그 생산비와 생명값에 마땅한 제값을 치름으로써 우리 부모형제들로 하여금 우리의 고향 농촌을 지키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일은 농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생명인 제 밥상을 지키는 일이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다

생명은 근본이 공생이다. 예컨대 식물들이 태양열과 빛과 공기와 수분과 땅 속의 무기·유기물을 흡수하여 광합성작용을 통해서 하나의 유기적 생명을 창조하는 생산자라면, 동물은 그것 없이 못 사는 소비자요, 보통 더럽고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 미생물은 생명을 다하고 죽은 식물과 동물의 시체를 분해하여 이 땅을 깨끗이 청소하며 그것을 다시 유기·무기화시켜 식물과 동물의 생명으로 되돌려주는 순환·

공생 관계에 있다.

자급자족용 전통농법에서도 명발 군데군데에다 배추나 열무를, 콩 밭에도 열무·수수·옥수수를, 밭가에는 들깨나 참깨를, 언덕에는 호박, 울타리엔 오이나 가지를, 논두렁엔 두렁콩 등등 온갖 먹거리들을 골고루 섞어 심음으로써 비료·농약 없이도 병 없이 일정 소출을 내는 공생의 지혜를 실천했다. 하물며 사람이 혼자 살 수 있겠는가. 농촌이 있으니까 고추 한 포기 안 심고도 잘 먹고 잘 사는 도시가 있고, 땀 흘리는 생산자가 있으니까 편안한 소비자가 있고, 부모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고, 이웃이 있으니까 새삼스럽게도 내가 있다.

한살림 농사는 이웃 농민과 함께 두레로 지어야 한다

한살림은 개인 농민의 생산도 공생농법을 되찾아야 하겠지만 그것을 이웃 농민과 두레적으로 확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온 들판이 화학물질로 찌들었는데 홀로 생명 유기농을 고집한다면 농사가 되지도 않겠지만 설사 된다 한들 이웃 농토의 농약 비료물이 흘러들고 농약 가루가 날아드는데 그게 무슨 무농약 생명유기농인가. 시작은 한 사람부터일지라도 일정한 세월을 두고서도 이웃 농민과 더불어 짓지 못하는 무농약 농사는 한살림 농사로 인정할 수 없다.

돈 많은 사람의 개인 건강식을 위한 유통업소가 아니다

한살림은 돈 많은 사람이라고 배척하지 않는다. 이들도 크게는 한

살림 식구이기 때문에, 물론 돈 많은 사람일수록 자원을 많이 소비하고 그만큼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자동차도 한 대 이상 큰 것을 가지고, 그 중에는 악성 폐수를 흘려 보내는 사업체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공기 오염, 물 오염을 통해 결과적으로 내 밥상을 죽이는 데 큰 공헌을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살림 가족이 됨으로써 그것을 미안해하고 이웃 눈치를 보는 도덕성을 회복하여 종 내에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자기 생활방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배척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돈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한살림 생활에 자신은 없으면서 만일 순전히 무농약 농산물이나 사먹겠다고 한살림 식구가 된 사람이라면 다른 무농약 유통업소로 떠나기 바란다.

한살림 물품은 가격이 아닌 생명가치로 따진다

한살림 물품은 많은 이들이 무농약이기에 비쌀 것이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다. 당국의 정책이나 수입 농산물에 의해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쌀이나 국내산 밀가루, 유정란 등 몇 가지 품목은 시중가보다 비싼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우리 농민에게 사회적 평균임금 이하로 매긴 생산비, 곧 제값에 가까운 가격이지 실제 생산비에는 못 미친다. 농약을 친 일반쌀의 실제 생산비도 한 가마에 14만 원에서 16만 원이 된다. 무농약일지라도 한살림 농산물은 농민으로부터의 직거래이기 때문에 오히려 싼 것도 많다. 정작 따질 것은 값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 농산물인가 아니면 먹어서 되려 나쁜 반생명 농산물

인가 하는 생명의 가치다.

이같이 농산물의 제값을 다 치르지 못해 농민에게 직접 진 빚 말고도 오늘의 도시 사람들은 우리 밥상 파괴에 지고 있는 빚이 너무 많다. 합성세제 빨랫물과 공장폐수와 지난날에는 귀한 거름으로 쓰였던 똥오줌을 흘려보내 물을 죽이고 대중 교통수단 대신 별 볼일 없이 자가용을 몰고 다녀 교통체증·대기오염을 심화하고, 비료·농약 등 화학물질을 과잉생산하고, 오염식품을 유통시켜 이웃 생명을 해친다. 이같이 알게 모르게 진 사회적 빚에 대한 부채의식 없이 이웃과 한살림을 살 수는 없다.

물품 이용은 다섯 세대 이상 이웃과 더불어 공동체 봉사자를 통해 공동으로 해야 한다

이쭈시개 한 통도 전화로 배달받는 그 편리주의·소비주의·유통주의는 없어도 될 이른바 서비스 유통인구를 폭증시키고, 잘살면서도 더 잘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탐욕주의로 이 땅의 생명들은 하나하나 상처 입고 파괴된다. 그래서 한살림은 이 편의주의·탐욕주의에 병든 개인과 세상을 더 병들게 하는 또 다른 편리한 유통체계이기를 거절한다. 한살림은 이웃과 한 살림이기 때문에 나 혼자 잘 먹고 오래 살기 위한 개인 소비주의도 거절할 수밖에 없다. 좋은 것일수록 이웃에 권유하고 나눌수록 더 좋아진다. 그래서 한살림 회원은 반드시 다섯 세대 이상의 이웃과 더불어 가입해야 그 공동체 단위로 물품이 공급된다.

다섯 세대 이상의 공동체는 자체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 돌아가면서 하는 봉사자를 통해 한 주일에 한 번 공급하는 물품을 조합에서 정하는 날까지 미리 주문하고 봉사자는 바로 이를 취합하여 조합 사무실에 공동으로 주문한다.

공동체 가족들은 물품이 오는 날엔 되도록 봉사자와 함께 기다리다 물건을 바로 받아가고, 출근 등 부득이한 일로 외출하는 경우에는 돌아오는 즉시 자기 물건을 찾아감으로써 봉사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봉사란 자기도 반드시 받아 해야 할 자기를 위한 봉사다.

일정기간 안에 다섯 세대 이상의 이웃을 가입시킬 것을 전제로, 만일 개인이 가입을 원한다면, 물품은 한살림 사무실에 직접 와서 가져가야 하며,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이웃을 못 만들 때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웃과 대화를 통한 자기 변화를 거듭해야 한다

공동체 가족들은 매주 물품이 오는 날엔 가능한 함께 모여서 기다리는 동안 이웃간의 친교를 더하고 더 나은 한살림의 방법을 함께 생각한다. 공동체 구성원 중 직장 출근 등의 부득이한 외출로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따로 날을 받아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 마당을 가져야 하며, 이를 조합 사무실에 미리 알려야 한다.

자원을 절약하고 재생·순환시키는 구체적 생활 실천 없이 한살림은 있

을 수 없다

다시 쓸 수 있는 쌀 자루, 과일 상자, 빈 병 등의 용기들은 다음 물품을 받는 날 한데 모아 되돌려줘야 한다. 쓰레기처럼 던져주는 이들 빈 용기들을 되돌려 받아 정리하여 생산자에게 되보내는 이 일도 공급 실무자로서는 또 하나의 고역임에 틀림없지만, 때로는 쌀자루를 세탁해서 차곡차곡 개어 주는 낫 모르는 가족도 없지 않아 ‘큰 살림’에 지쳐 좌절하는 우리 실무자를 감동시킨다.

쓰레기 없는 세상을 지향한다

전통 농업사회에서는 쓰레기라는 말조차 없었다. 하기가 사물과 행위가 이름을 만드니까 쓰레기 없는 세상에 쓰레기란 말이 있을 수가 없다.

음식이 귀하거나 결핍된 시대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을 수 없었다. 혹시 있는 지주나 도시의 부잣집에 남는 음식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그 집 행랑하인 권속이나 이웃 가난뱅이들의 차지였지 버려지는 법은 결코 없었다. 구정물 통에 몇 톨의 밥알이 떠 있다 해도 그것은 지체 없이 개·돼지·소 등 가축의 먹이가 되었지 그대로 버리다간 천벌 받을 일이었다.

사람이 먹지 않는 것들이라 해도 그 시절에는 버리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일체의 농업부산물은 가축의 먹거리가 되거나 땀감이 되거나 퇴비가 되어 종국에는 땅으로 되돌아갔다. 사람 똥오줌과 개똥은 거름성분(요소)이 높아 오늘의 화학비료처럼 귀하게 쓰였고, 쇠

똥·말똥은 말려서 땀감을 한 뒤 재거름이 되거나 아니면 그대로 발효되어 땅을 기름지게 했다. 길가에 있는 개똥·쇠똥은 물론 심지어 산과 들에 있는 것들조차 말끔히 거두어져 뒷간에서 발효되어 땅으로 돌아가는 세상에 쓰레기가 있을 수 있겠는가? 심지어 몇 년 만에 한 번씩 고쳐줘야 하는 온돌 밑바닥을 긁어 낸 구들미와 ‘마당을 한 번 쓸면 거름이 한 소쿠리’라는 농사말처럼 굽거나 썩힌 흙도 거름으로 장만해서 생명을 키웠던 것이다. 이 시절엔 오로지 ‘거름’이 있었을 뿐 쓰레기는 없었다.

그런데 오늘의 농촌은 어떤가? 눈에 잘 띄이지 않는 첩첩산골의 농토도 경작을 하는 곳이라면 비닐 쓰레기가 널브러져 바람에 흩날리고 모든 골짜기와 개울은 유리 농약병, 비닐 포장지, 쇠붙이 깡통, 석유화학제품 용기와 파손된 전기 제품 등의 생활 쓰레기로 무덤을 만들어 간다. 현생대의 모든 생명이 이 쓰레기 무덤 속에 묻혀 멸종하고 혹시 수수만년 뒤 다른 형태의 고등 생명이 되살아나는 후천개벽 시대가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조개 무덤 따위의 선사유적을 발견하듯이 그들은 전생대의 인간 공룡이 자기 쓰레기에 묻혀 멸종된 고고학적 사실 앞에서 전율하리라.

하지만 이 정도의 농촌 쓰레기는 쓰레기 축에도 들지 못한다. 그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반생명적 정보의 정직한 공개를 오히려 꺼리는 환경 당국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하루 평균 생활 쓰레기 배출량은 2.2kg으로 전체 8만3천9백 톤이나 된다고 했다. 쓰레기에 관한 한, 이른바 선진국 - 다시 말하면 자원을 탕진함으로써 가장 크게 생명을 파괴하는 미국의 1.3kg, 일본의 1.0kg, 영국과 서독의 0.9kg보다 갑절 이상 앞선 선진국 중의 선진

국이다.

물론 여기에는 변소에서 버려지는 똥오줌과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의 액체 쓰레기와 산업 쓰레기가 포함되지 않았다. 쓰레기 종류별로는 연탄재가 33%로 아직은 가장 많고, 전체 음식물 중 먹지 않고 버리는 33.4%나 되는 음식 쓰레기가 쓰레기 총량의 27.4%로 두 번 째고, 나머지가 종이류와 각종 화학포장용기 순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먹거리로부터 시작하는 한살림의 최고 관심사인 음식 쓰레기를 무게로 환산하면 8톤 트럭 2천873대 분으로 모두 2만2천988톤이나 되고, 다시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음식물 값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나겠지만 아무튼 일 년에 버려지는 음식물 값이 놀랍게도 9조 원에서 14조 원을 헤아린다고 한다.

세상에 살아서는 생명의 다른 형태인 음식물까지 이렇게 파괴하고 서도 자기 죽음을 위해 제 무덤 장식에까지 생명 파괴의 탐욕을 자행하는 지금의 인간들이 죄 안 받고 과연 제 무덤을 지켜줄 자손이 대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손은커녕 짧은 당대의 생존도 보장할 수 없는 핵폐기물을 비롯한 쓰레기 무덤으로부터 생명이 살아남을 길은 꼭 전통농법이 아니더라도 생명순환의 농업이 중심이 된 농본사회로 세상을 바꾸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 도시라는 현대 공룡은 농업을 가운데 둔 작은 생활공동체로 마땅히 해체되어야 하고, 먹거리는 값싸서 마구 버리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 없이는 바로 죽는 생명 필수품이기 때문에 최고로 값이 비싸서 아무도 감히 낭비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서울의 한살림 식구 중에는 막걸리를 미리 공동주문해서 한 주일이 나 기다리다 그것도 갖다 주는 대로 받아먹는 한살림 방식이 슈퍼마

켓 앞에 장사진을 치는 소련 방식을 닮아간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소련식 아니라 달나라식일지라도 이것 말고 생명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길이 달리 없다면 그만한 불편쯤은 차라리 아무것도 아니리라. 거둬 말하거니와 나락 한 포기 안 심고도 어쨌든 심는 농민보다 거룩한 밥상을 차려받는 도시 사람들이 그만한 수고 없이 어찌 자신과 자손의 생명을 영원히 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국내외의 농민들이 도시가 만들어 지어주는 화학병기와 농기계 등으로 당대의 한시적 증산만을 부추기는 상업체제 농업에 매몰되어 있기 망정이지, 모든 농민들이 이 글을 쓰는 나같이 약빠른 농민으로 깨어난다면, 도시에서 줄서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농촌 내 집에 찾아와 절을 열두 번 한다 해도, 재생 순환하는 농업 중심 세상을 위해 뭔가 몸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쌀 한 톨도 어렵었다.

사람의 몸과 그것의 다른 모양인 어머니 땅이 외부 매개물 없이 직접 사랑으로 만남으로써 쓰레기 없는 생명을 창조하는 세계, 그것이 다름 아닌 한살림이다.

한살림은 스스로 공생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린 세계이지 특정 집단의 소유가 아니다

한살림은 경쟁적으로 조작된 시장 가치가 아닌 공생의 가치를 제일로 친다. 이같이 전도된(?) 가치관에서 보는 한살림의 주인 또는 전위는 누구일까? 지금의 가치체계에서는 생명을 구속하고 파괴하는

사람이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해 왔지만, 공생세계를 이상으로 삼는 한살림에서는 누구나 그 주인이 된다.

한살림 관계자들은 모두가 그 주인임을 자부하고 있을지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무농약 농산물을 가운데 놓고 크게 세 부류의 이해 집단이 갈등한다. 하나는 질과 맛이 좋으면서도 계절 없이 대량 생산되어 값도 싼 무농약 농산물을 바라는 소비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고달픈 큰 살림 일을 하는 만큼의 보수와 자존심을 요구하는 공급 일꾼 집단이며, 또 하나는 힘든 무농약 농사를 짓는 만큼 그만한 대가를 요구하는 이른바 유기농 생산자들이다.

한살림이 공생농을 중심에 둔 공생세계를 추구하는 한에서 이제까지 그 전위 주인은 당연히 농민이라고 모두 생각해 왔다. 사실 완전 분해의 벼랑에 선 긴박한 농민 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먹고 살아야 할 도시 사람들과 더불어 해결해야 할 생명 전체의 문제로 파악한 일부 농민과 운동가가 한때의 전위로 선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살림 농민이 이 나라의 수입개방 정책, 농업포기 정책에 서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자위 수단으로 유기농을 하고 그것을 유통·공급하는 일로 밥 먹고 사는 한살림운동이라면, 구성원 자격도 없다. 예컨대 전통 농업 공동체의 살림살이 말이었던 ‘한살림’을 자기 고유 이름으로 먼저 사용한 한살림서울 공동체가 이 시대 반생명 문제의 절박성에 상업적으로 자극된 매스컴을 타게 되자 한살림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모색도 없이 그 이름만 따라 붙인 유통소비 기구가 있는가 하면, 그 이름과의 우선 관계를 기득권으로 내세우며 이름과는 관계 없이 일찍부터 공생(한살림)을 말없이 현장 실천했던 사람을 심지어

음해하면서까지 제 농산물을 팔아먹기에 급급한 한살림 이름의 농민도 없지 않다.

자급자족용의 공생 농업을 도외시한 채 -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을 수 있는 모든 농작물을 골고루 다 심어서 비료·농약을 안 쓰거나 덜 쓰는 대신 오로지 돈을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 단일 작물만을 일방적으로 다수확하는 농사는 아무리 비료·농약과 인연이 없다 해도 한살림 공생농사와도 인연이 없다. 또 농약을 안 치거나 덜 친 농작물은 자기가 먹고 팔아먹기 위한 농산물에는 마구잡이로 치는 영리한(?) 농민과는 대조적으로 농약 친 일부 논외의 나락은 자기 식구가 먹고 안 친 것만 한살림에 팔겠다는 가혹한 한살림 농민도 없지 않지만 이 또한 한살림과 인연은 멀다.

한살림 농사는 우선 모두가 내 먹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화학물질 없이 가능한 여러 가지 농작물을 골고루 공생시켜 내가 먹고 남으면 다른 가족들과 돈 안 받고 그냥 나눠 먹겠다는 공생의 각서 없이는 짓지 말아야 한다. 극도의 이기주의로 공멸해가는 광기의 시대일수록, 돈을 전제하지 않는 또 다른 의미의 미친 소수 농민들이 짓는 공생농이 역설적으로 돈도 되고 자기도 살리는 법도 없지 않다. 생각해 보라. 어떤 한살림 소비자가 자기는 아무 것도 안 주고 어려운 농민의 공생 농산물을 계속 공짜로 그냥 받아먹고 앉아 있겠는가.

대부분의 농민들은 비료 대신 퇴비를 쓰고 농약 대신 효소 쓰는 농사를 유기생명농으로 열버무리고 있고, 필자 또한 공생농으로 가는 전 단계로서 유기농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제약으로 두 말을 때로 혼용하고 있긴 해도, 유기농과 공생농은 차원이 전혀 다른 세계의 농사다. 어떤 한살림 농민은 비료를 안 쓰면서도 비료한 만큼의

다수확 욕심 때문에 너무 많은 퇴비를 넣어 나락까지 썩히고 있다. 그런데 이 다수확을 위해 현재 쓰고 있는 그 퇴비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가. 한 사람 몫의 동물 단백질을 위해 다두 사육하는 가축의 창자를 통해 썩힌 열 사람 몫의 수입곡식과 지구의 허파라는 수입 산림을 목재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온 톱밥과 기술과 유통이 역시 외국에 종속된 수입 효소가 그것의 원자재가 아닌가. 곡식, 산림 등 수많은 다른 생명을 죽여 극소수의 이기적 인간생명을 살찌우는 이 농사가 유기농인지는 모르지만 더불어 사는 공생세계의 생명농은 결코 될 수 없다.

한시적·당대적일 수밖에 없지만, 과잉생산과 과소비가 생산·소비자를 함께 죽이는 공멸의 세상이다. 설사 비료와 농약에 기대지 않는다 해도 개인의 경제적 잇속을 위해, (현실적으로 쌀이 남아 썩는 판에) 병충해에는 강해도 미질이 떨어지는 다수확 품종에다 화학비료보다 다른 이유에서 더 반생명적인 유기물의 남용에 기댄 다수확을, 약삭빠른 농민 몇 사람끼리 해먹을 때 말이지, 모든 농민이 경쟁적으로 이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관행농법과 물질수단을 달리했다 뿐 현재의 체제 농법보다 더 많은 생명 희생을 강요하는 살생농법이지 공생의 한살림 농법과는 역시 인연이 없다.

이웃 생명을 위한 자율적 봉사와 희생 없는 한살림은 없다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관계로 공생체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흔히 이상 없는 약육강식의 존재로 알고 있는 자연 생태계에서도 제 먹고사는

것 말고, 인간처럼 수많은 생명을 죽여 그 시체를 재산으로 싸 쟁이는 법은 없다. 그 알량한 이성 존재로 자부하는 인간이 동식물과 다른 점은 사람이 사람고기를 바로 식인하지 않는 대신 이성과 지식과 질서와 법이라는 이름의 제도적 덧과 함정으로, 자기의 끝 모를 독점 소유욕을 채우기 위해 동족까지 간접 식인하는, 그야말로 동식물이 흉내낼 수 없는 이성적 약육강식을 가치없이 자행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람의 이성적 약육강식의 결과 오늘날 이 땅에 넘치고 있는 반생명적 거짓 풍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원주민들이 고향으로부터 추방·격리·분해됐으며,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강요된 희생이 있었으며, 그보다 얼마나 더 많은 생명들이 파괴되었던가. 오늘의 이 넘치는 풍요가 참다운 계약의 땅 아닌 거짓인 이유는 그것이 생명 파괴의 시체 위에 선 풍요요, 원주민의 의사와는 달리 타율과 강요에 의한 수많은 희생과 봉사로 이루어진 풍요이기 때문이다. 거짓 풍요에는 강요된 봉사와 희생이 따르듯 그러나 참다운 살림의 땅을 위해서도 자율적인 봉사와 창조적인 희생은 요구된다.

농민이 봄부터 가을까지 땀 흘려 일하지 않고서는 겨울 한때의 농한기(사계절 땅 죽이는 하우스 농민에게는 해당 안 된다)를 맞보지 못하고, 추운 한데서 군불을 지피는 자기 봉사 없이 따뜻한 방에서 잠잘 수 없고, 미생물 살리는 퇴비 장만 없이 땅 살림의 유기농은 있을 수 없고, 생명자원 절약을 위한 공업성장의 중단으로 당할 뼈 깎는 아픔 없이 재생 순환하는 공생 세상은 있을 수 없다.

만일 소비조합원이 공동체를 만들고 스스로 봉사하기보다 먼저 물건의 질과 값 트집과 개별 배달의 타성에 안주하기 바라고, 생산 회원들이 참다운 공생농보다 값 타령과 이기적 기득권을 주장하고, 공급 일

꾼들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봉사하는 희생 제사 대신 제 밥이나 빼어 먹었다면 그것은 더불어 사는 한살림이 아니라 백년이 가도 더불어 죽이는 판살림 곧 지금과 똑같은 죽음의 체제가 되고 말 것이다.

거짓 풍요를 위해서도 비록 강요에 따를망정 봉사와 희생이 요구되었는데 하물며 참다운 살림의 땅이 봉사와 희생없이 실현될 수 있겠는가. 다만 그것이 강요된 희생이 아니라는 점이 다를 뿐, 한살림이 야말로 생명에 대한 자율적인 봉사와 창조적인 자기희생으로써만 실현할 수 있는 ‘계약의 땅’이다.

생명의 유일한 도리이자 의무이다

흔히 무농약 농산물을 매개로 하는 한살림은 그 값이 비쌀 것이라는 선입관을 가진 많은 이들로부터 부자들끼리나 잘 먹고 오래 살자는 개인 이기주의적 반동 집단이고, 잘해 봐야 개량주의 농민운동 정도로 오해 받고 있다. 그렇게 보면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 잡아떼지는 않겠다.

하지만, 이 운동의 구성원 중의 하나인 농민 그들이 누구였던가. 그들에게 노동자로 신분을 전신할 젊음이 우선 없어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사회변화를 주도할 기회도, 능력도, 흔히 말하는 전망도 없다. 그럼에도 이들조차 인간이 만든 화학병기로 땅을 죽이고 수많은 생명을 죽여 일부의 생명을 키우는 한에서 공생세계의 층구조 안에서는 일종의 파괴자나 수탈자가 된다. 그런데 하물며 처음부터 생명파괴를 전제한 공산품의 맹목적 대량생산과 공업폐수와 매연과 산업 쓰레기

나 양산하며 생명 전체를 물리·화학적으로 파괴하는 공업생산 체제에는 오불관언이면서, 생명을 생산수단과 방식으로 대상화시켜 그것의 소유관계라는 잣밥의 크기에만 매몰된 폐쇄적인 계급으로부터, 자기 계급은 모르되 일체 중생의 해방을 어찌 전망하겠는가.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하고 있다고 계급의 실존성과 변혁성이 부인당할 수야 없겠지만, 어떤 계급이든 저항성과 함께 창조성을 잃을 때 그 자체가 거부되어야 할 또 다른 죽음의 관료체제가 되고 말지 않던가. 전체 세계의 변화 없이 내 밥상만의 살림도 생각할 수 없겠지만, 제 밥상의 변화 하나도 실천 못하는 세계변화란 영원히 실현 불가능한 ‘공상주의’이다.

한살림은 잘 먹는(무농약이니까) 대신 나누어서 적게 먹고 오래 살겠다는(자손 대대로 살아야 하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갖는 기본적인 욕망을 부추김이 사실이나, 더불어 공생하는 생활 실천을 전제하는 한, 저희들끼리만 오래 잘 살아남겠다는 이기적 폐쇄성은 없다. 실제로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 합성세제와 똥오줌, 살인적인 공업폐수로 복합오염 된 죽음의 물과 하늘을 희뿌옇게 가리는 저 죽음의 공기를 함께 마시면서, 내남없이 외식이 주가 되는 오늘의 생명 조건에서 한 두 끼 집안에서 먹는 한살림 밥상으로 자기만 건강하게 오래 살리라고 믿는 어리석은 한살림 생활자는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건강한 밥상살림을 실천의 출발과 종점으로 삼는 한살림은 그것이 온 생명의 어머니인 땅과 더불어 앓고 살 수 없는 사람의 도리요, 최소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

협동조합의 공동구입*

생활협동조합중앙회 역

공동구입이란 무엇인가

1. 생활인의 구매수단인 공동구입

상인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 갖가지 판매수단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크고 작은 '점포'를 비롯하여 '카탈로그 판매', '방문 판매', '텔레비전·전화 판매'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50년대 말에 미국에서 들어온 슈퍼마켓은 일반 시장에서 판매수단으로써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구입'이란 소비자가 이러한 판매수단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이웃과 함께 공동의 구매수단을 만들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왜 직접 구매수단을 만든 것일까요? 현재 사회는 남아돌 만큼 물건이 많고,

* 생활클럽생활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중앙회 역. 2000. 『일본의 생활협동조합운동』 '제2편 공동구입과 대중운동조직론'(p78~146), 생활협동조합중앙회 출판부.

판매 수단도 가지각색으로 물품이 구석구석까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2. 공동구입 발생의 배경

역사적으로 생활인들이 생활필수품을 손에 넣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방법들은 생산된 것만 소비하던 자급자족 사회로부터 지금처럼 모든 것이 상품화된 사회에 이르기까지 생활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공동구입이라는 수단이 생긴 것은 아마 상품화폐 경제의 발생과 거의 동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사회가 붕괴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구입이란 행위 역시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공동구입은 공동체가 만들어 낸 부산물이었지 생활필수품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상품경제의 발달에 따라 생겨난 갖가지 판매수단들 속에 갑자기 과묵혀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구입이 중요한 생활수단이 되어 생활인들에게 논의된 시대는 언제였을까요?

1) 산업혁명과 공동구입

산업혁명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일어나 오늘날과 같은 산업사회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사회구조나 문명의 성격 등 역사의 가장 핵심부분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가

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난 영국에서는 공장에 기계공업이 도입되어 공업이 농업을 압도하고, 사회의 중심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업의 중심지였던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어, 급격하게 도시형의 소비자 집단이 형성됩니다. 도시의 소비자들은 이전의 공동체를 대신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활동의 일환으로서 생활필수품을 구매하기 위한 점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도 있었고, 점포가 노동조합 활동 안에서 하나의 기관으로밖에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곧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1844년 영국의 로치데일에서 생겨난 공동구입운동은 처음부터 생활인들의 공동체를 목표로 하여 그것을 실천을 통해 꽃 피우려는 운영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 단순히 공동으로 만든 이전의 점포와는 달랐습니다. 이 공동구입 점포의 성공은 운영 원칙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오늘날 협동조합의 정신적 지침이 됩니다.

2) 1830년대 일본의 공동구입

1838년 일본 치바 현의 초오베무라를 중심으로 센조슈 조합이라는 농민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이 조합은 니노미야 손도쿠와 함께 일본의 유명한 농민지도자였던 오오하라 류우가쿠(1797~1858)의 주도 아래 결성된 것입니다.

거리 면에서 도쿠가와 막부와도 가깝고 에도(江戸)와도 가까웠던 이곳은 화폐경제의 침투가 심해서 마을사람들의 생활을 돈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우선 농업협동조합을 만들고, 한편에서는 생활필수품을 공동구입하기 위해 소비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공동으로 구입한 것은 필수품 외에 면, 손수건, 밥공기, 나막신 등이었

습니다. 손수건은 전체가 무늬가 없는 흰 빛깔이었고, 나막신은 나무로 된 밑판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끈은 자신이 직접 달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화폐경제의 초기, 즉 낭비가 늘기 시작한 생활을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공동구입 활동을 통해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3) 2차 대전 직후의 일본의 공동구입

로치데일에서 공동구입이 성공했다는 사실은 이미 1870년대에 일본에 소개되었습니다. 일본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그 부속사업으로서 공동판매소가 설치되었지만 일시적인 융성 후에 소멸되었습니다.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지방행정기관이었던 부현(府縣)의 장려로 고용주가 노동자를 배려하는 시설로서 설치한 공동판매소는 있었지만 시민의 자발적 의지로 생겨난 공동구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1947년에 걸쳐 시민들이 중심이 된 공동구입운동이 도시를 중심으로 일제히 일어납니다. 패전 후의 통제경제 정책은 미군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암시장을 급속하게 생겨나게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식량을 확보하려면 생활이 어려운 시민 상호간의 결속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당시 일본 적국에 공동구입을 하는 생협이 엄청나게 생겨났습니다. 1947년 3월에는 4,652조합이 생겼고 그해 9월에는 5,487조합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동구입은 소비자들이 건전하고 굳세게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 무렵 처음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발전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을 얻기 위한 일시적 결속은 식량사정이 점차 나아짐에 따라 차차 해산되고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에서 패한 지 5년이 지난 후에 생협은 1,130조합으로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4) 고도 경제성장 정책과 공동구입

당시 이케다 내각이 내걸었던 소득증대 정책은 물가를 상승시켜 가계지출을 세 배로 늘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비물자의 유통은 점차 확대되어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을 옛 이야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통 근대화(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뒤져서는 안 된다'고 외치면서 생협이나 농협에서는 점포를 확대하는 데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격심한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매스컴은 그런 활동을 '물가대책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구입은 퇴색해 버렸습니다.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대형점포의 설치-그곳에 모인 조합원이라는 고객'을 추구하는 정책이야말로 바람직한 생협활동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공동구입은 기존 생협에서 새로운 모습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대량생산과 대량판매의 출현은 그 풍부함 덕분에 도리어 빈곤한 생활양식을 가져옵니다. 공기, 토지, 물 등 가장 기본적인 생활조건은 오염되고, 모든 식품은 유해첨가물 덩어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갖가지 공해 사건으로 나타나지만 그때는 이미 많은 희생자를 내고 난 뒤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반공해운동이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진정한 사회의 모습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그 느낌을 단지 비판에만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 일상 활동의 하나로써 공동구입을 선택한 것입니다. 공동구입하기 시작한 물품 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구입하는 행위에는 이 사회에 대한 이의(異意)를 제기한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구입 활동은 현대적인 의미를 부여받으며 부활한 것입니다.

5) 석유파동 이후의 공동구입

1973년 전 세계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석유와 식량 수급의 어려움은 일본에 물자부족과 공황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생협에 가입하는 사람 수가 급증했습니다. 2차대전 직후와 같은 현상입니다만, 위기에 대비하는 자위수단으로서 공동구입 활동이 일시적으로 다시 평가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석유파동이 가져온 가장 큰 영향은 고도 성장에 대한 비판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도 보다 나은 서비스로 규모가 줄어든 소비시장을 수탈하려고 경쟁하는 산업사회에서는 금방 화석화되고 상품화됩니다. 즉 무농약 야채나 안전식품, 자연식품 등이 장사꾼들이 거래하는 분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런 상술과 서비스경쟁을 하기 위하여 공동구입 활동과 판매수단도 변하고 있습니다.

'귀찮은 것은 싫어요, 쉽게 구입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 아닙니까'라는 식으로 편리한 서비스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하고 있는 것이 요즈음 상술의 한 단면입니다. 소비자들이 스스

로 만든 구매수단인 공동구입이 뜻 깊은 내용을 담고, 보다 넓은 영역에서 지속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3. 공동구입 성립의 조건

공동구입은 생산, 유통, 분배, 소비를 국가권력이 획일화하지 않는 한,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은다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뜻을 모으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점이 정해져야 합니다.

- 무엇을 구입할 것인가(구입목적)
- 무엇을 할 것인가(공동행위)
- 무엇을 이익으로 할 것인가(이익 분배)
- 누구와 할 것인가(구성원)

1) 일시적인 공동구입

위와 같은 4가지 요건이 갖추어지면 공동구입은 성립합니다. 비록 단 한번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공동구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동구입에 참가한 사람들의 뜻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아도 결국 일회에 한정된 타협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순이 표면화되기도 전에 공동구입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2) 연속적인 공동구입

공동구입을 계속해서 하는 일, 다시 말해서 앞의 네 가지 요건을 지속적으로 모아내려면 모아진 뜻의 불완전성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

타나게 됩니다. 원래 사람의 생각은 섬세한 부분까지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 각자의 인식력 정도나 주어진 생활조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구입을 계속해서 하려면 각 개인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공동구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만나서 논의하고, 결정된 사항을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뜻을 모으는 것과는 달리, 보다 차원 높은 인간의 지혜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뜻을 모으는 데서 출발하게 됩니다. 생활클럽에서 반 조직을 결성한 것도 또한 일시적인 뜻모음 현상입니다. 생활클럽이 생협활동을 지속해 가는 일과 새로운 반이 공동구입을 지속해 가는 일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의 반 조직은 그 반 나름대로 공동구입을 지속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생활클럽 공동구입의 조건

생활클럽은 우유를 공동구입하던 사람들이 만들어 임의단체로 활동하다가 1968년에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생활협동조합으로 법인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갖추게 되자 이전과 같은 공동구입을 계속해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 생활클럽은 공동구입을 계속해 나가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왔을까요?

1) 반 조직의 정착과 활동

생활클럽의 공동구입은 모두 반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동구입은 반을 만드는 일에서 시작해서 반이 해체되면 끝납니다. 당연히 지금 활동하는 모든 반이 해산, 또는 활동을 정지한다면 생활클럽의 공동구입 활동은 정지하게 됩니다. 생활클럽에서 반-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이 공동구입 활동을 지탱하는 토대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와 같은 구조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활클럽의 공동구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반을 형성하고 반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느냐 하는 데 관건이 있습니다. 생활클럽에서는 이러한 반에 대한 자리매김을 토대로 반 활동의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가. 공동구입에 알맞은 적절한 반 구성원의 확보 :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가입을 권유할 것
- 나. 공급량(단위)의 설정과 그 소화 : 매주 공급량을 통해서 생산과 경영의 문제를 살피고, 또한 개인소비를 협동적 소비로 받아들이는 계기로 만들 것
- 다. 반 회의 개최와 필요사항의 결정 : 생활조건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그 위에서 서로의 공통점을 확인하는 일 - 반 운영의 규칙을 만드는 일
- 라. 가족에게도 공동구입 활동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공동구입이 갖는 의의와 이웃간의 협동관계를 이해시켜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협동적인 소비공동체를 지향하도록 한다.

이렇게 반 활동을 설정한 것은 일시적인 결합으로 만들어진 반이

이러한 과제를 풀어나감으로써 모순을 발견하고, 그 모순을 해결하면서 보다 높은 의미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2) 반과 반의 연합을 통한 자치활동

생활클럽에서 반은 공동구입의 규칙만을 지키면 활동이 자기완결적이 되기 때문에 폐쇄적인 집단이 되기 쉽습니다. 이럴 경우 생협 전체와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반의 수준을 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처하지 못하여 활동이 중단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생활클럽에서는 반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활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① 지구(地區)의 설정과 지구위원 제도

지구는 일정지역 안에 있는 반이 연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한 지구 안에 있는 반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도우면서 공동구입 활동을 활기차게 해 가도록 하는 곳입니다. 지구는 단지 이미 존재하는 반들이 연합하는 장소라는 의미밖에 지니고 있지 않으며, 거기서 연합활동이 지속되고 지역사람들에게 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참여를 촉진시킬 때 비로소 지역적인 존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② 지부의 결성과 자치제도

지부라 함은 일정지역에 있는 반이 연합해서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반은 지부를 형성하면서부터 지부의 자치를 담당하고, 그 자치활동을 통해서 생활클럽 생협을 자신들의 조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지부 활동을 통해 길러진 자치 능력이 지구를 통해

서 지역사회에 나타날 때 지역사회와 생활클럽 생협의 일상적인 사회 관계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③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위원회 및 부회(部會)제도

지부의 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구와 지부를 대리하는 위원들의 지구 활동이 주축이 됩니다. 그 지구가 능동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리제에 구애되지 않고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각종 위원회나 부회의 역할은 개인이 갖고 있는 관심을 반영하면서 공식기관과는 색다른 능동성을 발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제도가 서로 보완하면서 그 성과를 항상 반의 유지와 발전으로 이어간다면 생활클럽의 공동구입은 내적, 외적인 모순을 말끔히 씻어내면서 역사적인 연속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냉엄한 현대사회에서 왜 서로간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구입을 하지 않으면 안될까요? 다음 장에서는 공동구입의 목적에 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공동구입의 목적

1. 자율적인 생활환경을 창조하기 위하여

1) 생활환경의 변화와 생활요구

사람들의 생활환경은 역사가 흐름에 따라 자연적인 것에서 보다 인공적인 것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지금 도시 사람이 마시는 한 잔의 물은 멀리 떨어져 있는 수원지에서 파이프라인으로 보내진 상수도 물입니다. 그것은 거액의 설비나 일상관리를 위한 영업비를 투자하여 고도의 기술로 만들어진 인공수입니다.

겨우 한 잔의 물을 마시는 데도 그 배경에는 복잡한 사회기구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물은 산에서 샘솟는 맑은 물에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속의 맑은 물을 직접 마시고 싶어 하는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지금의 생활조건을 전부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개 그러한 욕구를 가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도꼭지를 틀면 수돗물이 쏟아져 나오는 편리한 생활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물과 지하수가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마실 수 있는 것은 수돗물뿐입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우리 생활환경은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타율적인 제도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율적인 제도나 생활환경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행제도 아래서 새로운 생활모습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은 확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인들에게 지금보다 잘산다는 것은 항구불변의 요구이고, 그것에 대응하는 제도들이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제도로서의 존재가치를 재고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제도들이 생활인의 욕구를 파헤쳐서 그것

을 생활요구인 것처럼 사회에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인들은 우선 접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진 생활요구에 매일 광적으로 유혹당하며 현혹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런 행정 서비스 제도, 보다 완비된 의료제도, 보다 신속하고 쾌적한 교통제도, 보다 풍부하고 화려한 소비유통제도 등의 혜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생활인들은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생활인들은 이 요구가 자기가 원하는 것인가 아닌가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의 하나로서 지각할 것을 강요 받으며 그것이 행복의 목표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2) 조장되는 생활요구와 획일화의 문제

여러 제도가 생활인들의 생활욕구를 조장하고, 생활인이 그것을 추종한다는 것은 생활인 스스로의 생활에 대한 요구와 그것의 실현을 타인에게 맡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인의 요구를 구현하고 있다는 제도들이 어떻게 우리 생활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도시사람들의 식생활에서 시장유통 제도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채소와 과일의 경우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각 생산지에서 중앙도매시장으로 전량 모였다가 그것이 소매점을 통해서 밥상에 오르게 됩니다. 토마토를 좋아하는 소비자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토마토를 먹고 싶어할 것이라는 생산자나 유통업자의 짐작이 그것을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별레먹은 양배추는 기분이 나쁘겠다는 생각이 생산자와 학자들로 하여금 더욱 성능이 뛰어난 농약을 만들게 하여 생산지에서는 달력에 살포하는 시기까지

표시해서 살포할 정도로 화학영농을 제도화하여 지금은 벌레먹은 양 배추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활상의 요구를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또한 그 실현수단을 만들지 않더라도 타자(他者)로서의 제도는 이 정도까지 진보를 약속해 준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제도들이 우리를 지극히 획일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데 있습니다.

토마토를 좋아한다는 발상은 겨울에 토마토가 없으면 풍요롭지 못하다는 획일적인 생각을 만들게 되고, 겨울에는 당연히 토마토를 먹을 수 없다는 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생각을 없애버립니다. 이리하여 겨울에도 토마토가 자랄 수 있는 비닐하우스가 만들어지고, 그 온도 관리를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며, 농가에서는 하우스에 가득찬 위험한 농약을 무릅쓰고 생산을 위해 힘쓰며, 유통시장은 그 판매를 약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겨울에 토마토를 먹는 것이 과연 풍요로운 것일까' 되물을 사이도 없이 정신을 차려보면 그것이 이미 밥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을 일률적으로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업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만드는 사람,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이 나누어지므로 위에서 말한 경우도 그 필연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시장의 토마토는 없는 것을 찾는 인간의 정당한 욕구의 일면적인 표현이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일상적으로 생겨나는 소박한 생활의 요구가 타인에 의해서 개발되고 타인에 의해 획일적으로 실현되어도 좋은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의 손으로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스스로의 힘

으로 실현했을 때 살아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생활상의 요구와 그 실현을 타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내팽개쳐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생활물자의 공동구입이라는 생활인들의 생활수단과 그 조직적 실현에는 단지 물질적 요구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가치실현이라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체의 형성과 실천

1) 협동으로 경쟁의 모순을 극복하며

'인간은 본래 협동하도록 되어 있다. 경쟁이나 투쟁을 위하여 태어나지 않았다'(몽테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협동을 인간성이 표현으로 생각하고, 경쟁을 비인간적으로 여기는 사상은 예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와 같이 모든 것이 상품화 되고 금전적 가치가 인간적인 가치에 우선하는 시대에는 그러한 사상에 다시 한번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만을 신봉하고 경쟁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낭만적인 반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현대사회의 강력한 경쟁원리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 협동의 이념이나 목적은 경쟁사회가 낳은 모순을 역사적·사회적으로 비판하는 데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아무런 실제성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 경쟁사회는 자체 모순을 가지고 우리에게 협동과 인간성에 대한 자각을 막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인간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가치의 자기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가족관계를 포함해서) 뿔뿔이 흩어져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을 상실한 채 획일화된 사회로부터 삶의 방향을 되돌려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필요로 하는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삶(자치적 생활)을 만들어 가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뿌리를 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 공동구입을 협동을 실천하는 터전으로

협동의 구조와 기능을 지속시키고자 한다면 연속적인 협동 행위를 실천할 터전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협동의 실천은 경쟁이 가져오는 폐해와 대결할 뿐만 아니라 경쟁이 만들어낸 성과보다 뛰어난 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동은 순식간에 말장난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면 공동구입은 왜 협동의 실천 터전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경우 공동구입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시민들의 생활필수품입니다.

첫째로, 공동구입의 대상이 생활필수품이라는 것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공동구입이라는 구입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협동의 실천적인 터전으로서 공동구입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활필수품은 가장 많이 상품화되어서 경쟁의 핵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는 한, 경쟁의 핵심에 있는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누릴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생활이 지배되고, 그 모순이 일상적으로 생활인들에게 실재적인 어떤 느낌을 갖게 합니다. 거기에 공동구입이라는 자율적인 구입 수단이 생겨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셋째로, 이런 상황 속에서 생겨난 공동구입은 항상 경쟁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비스 경쟁에 휘말려 판매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 행위로 이루어진 공동구입인가 아니면 서비스로서의 공동판매인가 하는 선택에서 어느 것이 협동의 참모습을 담고 있는가 항상 물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협동 행위와 그 성과는 명료해야만 합니다. 공동구입의 성과가 협동 행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사람 눈에도 명백하게 보여야만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공동구입에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가장 경쟁이 심한 서비스가 있는 분야에서 그 모순을 극복하려는 공동구입은 그것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협동의 실천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구입의 이론과 실천

1. 상품과 소비자에 관하여

1) 상품의 발생

상품이란 교환을 예상해서 만들어지고 교환을 통해서만 가치가 생기는 생산물을 말합니다. 교환을 할 때 평가의 수단으로써 생겨난 것이 화폐입니다.

상품과 화폐가 인간사회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노동해서 만든 생산물에 의존하지 않게 된 시대, 다시 말하면 19세기 이후 자본주의사회가 성립하면서부터입니다.

산업혁명은 자가노동을 대신하여 사회노동을 일반화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공장에서 기계처럼 종사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그것으로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여 생활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자가노동을 대신하는 사회노동에 참가할 수 있는 높은 생산성을 지닌 남성을 중시하고 여성은 가정에 남게 하여 오늘날 남성 본위의 사회를 확립했던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2백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래 상품과는 거리가 먼 가사노동까지도 상품화되어 화폐 평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품이 아닌 것(금전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상품화가 이루어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2) 상품학이라는 것

상품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자리잡은 것은 18세기 말 독일이었습니다. 영국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따라가기 위해 상품학은 체계화되어 점차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① 무역에 관한 상품지식학

- ② 자연과학적인 원재료의 상품감정학
- ③ 원재료시장 등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경제지리학
- ④ 공업경영을 위한 원재료학

이 무렵만 해도 상품학이라는 것이 생산재로서의 상품을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려는 모습을 가지고 발달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생산방식이 일반화되고 고도의 대중소비시대(일본의 경우 1955년 이후)가 도래함과 동시에 상품학은 생활물자(생활에 필요한 물자로 소비의 대상)로서 상품을 유통소비하는 과정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으로 변했습니다. 이른바 ‘마케팅 상품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결국 상품의 판매론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라는 말은 판매 대상을 규정하는 사회적 용어가 된 것입니다.

3) '현명한 소비자'론에 관하여

오늘날 고도 대중소비시대의 특징은 누구라도 상품화된 물건을 구입해서 소비하지 않고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더욱이 그 상품은 특정인과 관계없이 널리 퍼져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 걸맞는 소비자론이 차츰 생겨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학계나 행정계에서 대두된 '현명한 소비자론'은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한 상품학과는 달리 소비하는 측의 상품학으로 발전됩니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비자는 모든 생활수단을 유통시장의 상품 중에서 선택해 구입해야 한다.
- ② 상품들은 거의 완제품화되어 가사노동의 시간을 줄였는데, 한편 상품

선택이나 구매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부가 소비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 ③ 신제품이 줄지어 나오고 상품의 사회적 수명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상품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연구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만다.
- ④ 상품이 다양해져 과연 이 상품이 꼭 필요한 생활수단이 될지 상품의 진위를 분별할 수 있는 식견이 중요하게 되었다.
- ⑤ 상품구매의 수단은 가정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단적으로 말하면 생산, 판매하는 측에서 내세우는 판매전략에 흔들리지 말고, 소비자는 스스로 구매전략을 세워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논리는 고도 대중 소비사회의 성립과 제반 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생산, 판매, 소비의 분리와 경쟁이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에 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4) 상품과 소비자의 부정은 가능한가

오늘날 사회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모든 재화나 서비스가 상품화되고 그만큼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품을 부정하는 일은 소비자이기를 거부하는 일이며, 그것은 보통 인간으로서 살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품의 소비자라는 사실을 한꺼번에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끊임없는 상품화와 소비자화가 유한한 자원을 독선적으로 탕진하여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인간들은 한편에서는 기아선상에 놓이고 한편에서는 포식에 길들여진 소비 로봇화

되는 가운데 인간성을 파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상품화와 소비자화에 이의를 제기하고 동시에 스스로 생활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노력의 시도가 공동구입입니다.

이것은 상품화된 소비물자를 보다 잘 구입하려는 '현명한 소비자'의 활동이 아닙니다. 소비자화 되어 버린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생활의 구조를 고쳐가는 가운데 무엇이 유용한 소비물자인가 생각하여 만 들어가는 활동입니다. 그 실천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상품을 부정하고 소비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2. 소비재와 생활인에 관하여

1) 왜 소비재인가

생활클럽은 상품이란 말 대신에 소비재(消費財)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재(消費財)란 말은 있어도 소비재(消費財)란 말은 없습니다. 이것은 생활클럽이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이 말을 만들어낸 이유는 우리가 실천하는 공동구입은 모든 것이 상품화된 사회를 추종하지 않고 우리 생활을 우리 힘으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만들고자 하는 희망을 담은 것입니다.

상품은 크게 생산재(生産財), 즉 공장이나 농장에서 생산적인 소비의 대상이 되는 것과 소비재(消費財), 즉 가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소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품이 교환경제 내에서 생산되어 평가되고, 거래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유용성, 즉 쓸모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상품의 사용가치라 부릅니다. 그러나 사용가치가 있더라도 그것이 시장에서 끊임없이 교환되고 소비되지 않으면 생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평가기준을 상품의 교환가치라 부릅니다.

사용가치는 품질로 나타나고, 교환가치는 가격으로 나타납니다. 상품은 언제나 이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시장에 나오는데 생산자나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교환가치의 향상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오늘날 상품의 교환가치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매스컴을 통해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소비자에게 주입시켜 대량의 수요를 창출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용가치는 사용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나 판매자가 사용자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들면 결과적으로 생겨난다는 시각이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상품의 품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얼마만큼 '유용하다'라고 하는 교환가치를 평가받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품질의 립스틱이라도 대기업에서 팔면 천 원이 되고 무명메이커의 것은 백 원이 됩니다. 이 예는 본래 질을 나타내는 고급이라는 말이 단순히 가격(교환가치)이 '비싸다', '올랐다'라는 말만으로 대기업에게 부여되는 것임을 확실히 알려줍니다.

생활클럽이 공동구입을 하는데 일부러 소비재(消費材)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처럼 상품이 가지는 본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상품화에 맹종하는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활동의 핵심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비재'의 재(財)라는 글자 속에 감춰진 교환가치를 부정하고 단순히 생활하는데 필요한 의미에서 '생활자재

(生活資材)의 재(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2) 왜 생활인인가

'소비'라는 경제학 용어가 생활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이게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일입니다. 이전 사회에서 소비라 함은 생산을 말하며, 소비의 잉여물이 상품이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상품생산 자체가 목적화하여 소비는 '상품을 구입하여 소비하는 일'로 변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노동력을 상품으로 제공(판매)하고 그 대가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래의 '노동을 해야만 생활이 가능했던 상태'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생존은 각자가 상품구입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는 상황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개개인이 필요한 상품을 공동구입함으로써 일상 소비생활을 안정시키자'는 뜻을 가지고 생겨난 것이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져 이미 소비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운동, 즉 생활인들의 협동조합운동이었습니다.

그 이후 백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상품이란 모습으로 생산되고 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물건이 상품의 형태로 구입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란 말은 모든 것을 상품화해서 팔려고 할 때 시장을 구성하는 대중을 부르는 말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자유라든가 주체성은 상품화된 사회에 종속되어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될 뿐입니다. '소비자는 왕'이라는 말 뒤에는 황제인 기업(생산자, 판매자)이 있고, 그들이 황제의 권능을 갖가지 방법으로

휘두르면서 상품사회의 번영을 꾀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소비자가 아닌 생활인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에는 상품에 대한 수동적인 소비자로서 개별적이고 이기적인 현대인이기를 거부하고, 상품화가 가져온 폐해를 비판하면서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과 협동하면서 생활을 만들어가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3) 주체성을 가진 생활인

우리는 모든 것이 상품화된 사회의 대중, 이른바 소비자이기를 거부하고 생활인이라는 말을 중시합니다. 그러면 소비자에서 벗어나 생활인이 되고자 할 때 어떠한 사회관계를 만들어야 하는가 생각해 봅시다.

① 획일화에 대한 문제제기

상품화사회란 인간생활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금전을 매개로 상품이란 형태로 구해야 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런 사회는 금전으로 평가하기 쉬운 통일적인 기준을 사회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성립합니다. 그것이 유행이라든가 유명 브랜드라는 것이고, 최근에는 심지어 풍습, 풍속, 제도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부부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하여'라는 기업들의 선전문구에 현혹되어 부부가 반지를 교환하면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확인하는 부부관계의 상품화가 한 예입니다. 일본에서 어머니날에는 카네이션, 아버지날에는 넥타이, 크리스마스 케익 등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은 극히 최근에 생긴 풍습입니다. 또한 백중 때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과 전통을 이어온 설날의 풍속도 상품화되어 더욱 번창하고 있습니다.

식생활을 예로 든다면 2차 대전 이후에 등장한 화학조미료가 손쉽게 맛을 낼 수 있다고 하여 가공식품에 많이 쓰이게 되고 가정에서는 상비품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맛이라면 화학조미료 맛을 생각하고 그 맛이 '좋다' '훌륭하다'는 식으로 조장되어 국민의 미각을 획일화시키고 있습니다.

요리교실에서도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여 맛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본래 맛을 내던 천연의 다시(다시마, 가다랭이, 멸치 등을 끓여 우려낸 것으로 국물음식의 맛을 내는데 쓰임)를 만드는 소재가 점점 사라져버리고, 다시마에서 국물을 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늘어갑니다. 국물을 내는 일에서 시작하는 조리기술이 가정에서 사라짐으로써 종래의 식생활문화는 붕괴하고 있습니다. 또 국물의 소재인 연안에 사는 작은 고기의 수요가 줄고, 어업도 경시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야흐로 대다수 국민들은 음식맛이 화학조미료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매일 화학조미료로 맛을 낸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이러한 현상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려면 모든 음식을 자기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품화, 획일화를 강압의 문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이 상태에서 자립하려고 합니다. 공동구입하는 식품들에서 일체의 화학조미료를 배제한 것도, 국물의 소재개발에 노력하는 것도 생활인이 가져야 할 주체성을 생활의 기본적인 곳에서부터 되찾는 일을 중시하기 때문이며, 이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② 자각적인 타인과의 협동 행위

오늘날 경제는 곧 시장경제를 말합니다. 시장에 나와서 화폐로 평가되지 않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경제란 자유롭게 시장을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시장에서 누구나 경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필연적으로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는 곳입니다.

사실 전체 경제란 실제로 시장경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사노동을 비롯한 생활이 비시장경제로 존재하면서 시장경제와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경제는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시장경제화하는 것을 궁극목표로 삼기 때문에 오늘날만큼 경제 전체가 급속도로 시장경제화한 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생활이 모든 측면에서 산업화의 물결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현상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이대로 산업화가 추진된다면 지구 규모의 절멸(絶滅)을 가져올 것이라는 장래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로마클럽에서 작성한 인류의 위기에 대한 보고서는 '단적으로 말해서 세계조직은 이미 그 주민들의 자기중심적이고 동시에 항쟁적인 행동을 허락할 정도로 관대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물질적인 한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문제가 갖게 되는 어려움은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역사의 전환기에 인류가 처한 조건을 진실로 이해하는 것만이 균등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희생이나 정치력이나 경제력의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동기를 만들어 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개인, 지역, 국가, 세계를 막론하고 모두 경쟁적, 분산적, 이기적 환경이 심화되어 그것을 제동할 만한 힘이 점점 없어

져 갑니다. 그 근원은 산업주의적 가치관 때문인데 인간을 이성적이기보다는 경제적 존재로 파악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생존의 지혜로서 유사 이래 형성해 온 공동체를 완전히 붕괴시키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 하루도 생활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타인과의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돈이나 물건을 매개로 성립된 인간 관계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보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알 수 있지, 가까운 타인과의 의존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배수는 하수도가 처리하는 것이지, 그것이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이 개입되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이 상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동안은 별 문제가 없지만, 일단 그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는 수습하기 힘든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불안한 의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인으로서 가져야할 주체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무자각적인 의존관계를 자각적인 협동관계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타인과의 의존관계를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의존하는 상태를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구입을 통한 협동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의 정성어린 산 노동이며, 그것을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동(즉 인간 그 자체)의 협동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소비재를 손에 넣게 되는 것이며, 거꾸로

소비재를 통해서 인간과의 의존관계를 자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③ 생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각

상품화는 말 그대로 소비자화를 나타내는데 이로 인해 생기는 ‘물건을 만드는 일과 물건을 사용하는 일이 가져오는 정신적인 황폐’는 극심할 정도입니다. 모든 것이 매매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매매행위를 중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만드는 쪽은 팔기만 하면 되고, 사용하는 쪽은 짠 것을 사서 편리하게 쓰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의식구조를 만들어 냅니다. 결국 상품생산의 무정부성은 소비태도의 무정부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10킬로그램의 쌀을 산 사람이 그것을 시궁창이나 도로에 마구 버리더라도 자신의 경제적 손실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식의 정신적 풍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쌀이 상품화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자연의 혜택과 쌀농사를 지은 농부들에 대하여 미안하다’는 도덕적인 생각이 보통이었지만, 지금은 ‘쌀을 살 때 낸 돈이 아깝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상품화, 소비자화란 모든 것이 매매를 통해 완결되므로 물건을 만드는 과정도, 물건을 사용하고 난 결과도 모두 아무런 반성 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은 생활인으로서 어떠한 사회적·자연환경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전혀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해물질을 비롯한 약투성이인 낙농생산물을 출하하고 유통하며, 플라스틱 제품의 찌꺼기를 마구 버리고 위험한 합성세제를 마구 흘려보내는 소비생활 등, 이 모두는 상품화, 소비자화

속에서 지극히 이기적으로 되어버린 인간생활을 나타냅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들의 앞뒤 처리를 위해 행정서비스 기관을 확대하여 세금부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환경은 계속 오염되어 그것이 지구 규모로까지 널리 퍼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소비자가 아닌 생활인을 부르짖는 이유는 독선적인 소비생활이 한편으로는 사회와 자연에 대한 가해적 행위라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소비재의 개발과 공동불매

1) 개발의 이념

우리는 왜 소비재(消費材)를 개발해 왔을까요? 안전한 생활물품을 손에 넣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안전성은 대량생산·대량유통의 사회에서 절박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생활클럽에서 개발된 소비재는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벽하게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생활클럽의 소비재는 완전하고 계속적으로 안전성을 갖을 수 있을까요? 그 대답도 아니올시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산과 소비의 존재라도 일반 사회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활클럽에서 취급하는 미역은 일부 오염된 바다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나지 않습니다. 또 간단하고 편리한 것을 찾는 소비자가 합성세제를 마구 써서 버리는 한, 그것은 언젠가 우리

몸속에 다시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비재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서도 말한 생활인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한 식품을 만들어내는 사회를 단순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비판하며 자기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타인과 협동하는 모습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재의 개발이란 '이렇게 결정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회에 '아니, 그렇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불복종을 관철하기 위하여 개발한 소비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실천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소비재를 개발하는 기본이념입니다.

그러므로 생활클럽의 소비재 개발은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위하여 종래의 수동적인 소비태도를 버림으로써 그만큼 우리의 자치 영역이 생기고, 또 그 태도가 조직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조직의 자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비와 연대하여 생산하는 생활인들에게도 자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 안에서 자연적인 자치가 탄생됩니다.

소비재의 개발을 통해 이루어내려는 지역자치의 확산은 앞으로는 일반적인 생활과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활클럽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2) 개발의 기본관점

① 기초적인 생활물자를 (소재주의)

오늘날 소비재가 다양해짐에 따라 실로 다양한 물건이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품화의 주된 특징은 인스턴트화, 완성품화, 소형화 등으로 손쉽게 사용하고, 사용하고 난 뒤에 보관을 위하여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극히 기초적인 부분을 가공이라는 손조립을 통해 어떻게든 다양하고 풍족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시중에는 프랑스식 양념간장이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사실은 식초와 기름과 조미료를 섞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조리기구도 「○○용」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물리적, 화학적인 본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을 살펴보면, '있으면 편리해'라는 생각을 반복하는 가운데 어느새 '없으면 곤란하다'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없으면 곤란한 것처럼 한 번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화되고(결국 상품이 시장화된다는 것), 그 결과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던 시대에 쓰던 도구의 사용방법과 기술을 망각해 버리고 맙니다. 화학 조미료를 비롯해서 인스턴트의 국물맛 다시를 사용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은 다시마로 다시를 끓여 만드는 기술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다양화된 상품의 도입은 생활의 안전성을 위태롭게 하며 가계의 지출을 더욱 늘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소비재 중에서 특히 기초적인 생활자재를 개발하면서 이것을 소재주의라고 부르는데, 생활클럽이 소재주의를 택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기초적인 생활물자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측면과 그것만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했던 갖가지 기술을 상품화로 인해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② 사용가치의 추구

현재 일반시장의 상품정책은 격렬한 시장경쟁 속에서 더 많은 부가 가치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생활물자의 품질이나 기능은 별다른 차이가 없고, 그 가공기술도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써 최소한의 품질로 새로운 기능을 갖추게 하는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다른 상품과 미관상의 차별을 두는 판매전략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품정책 아래에서 소비자는 어느새 물품이 본래 가져야 할 품질이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일상화되면 오히려 본래의 질이나 기능을 갖춘 물품을 이상하게 여길 정도까지 세뇌됩니다.

만화그림이 부착된 운동화와 경품이 붙은 과자가 어린이들 세계에서 유행하고, 유명인의 서명이 들어있는 물건, 물품과 아무 관계도 없는 경품이 걸려있는 물건이 팔리게 됩니다. 혹은 빈약한 소재를 착색료나 화학조미료로 얼버무리 보기 좋게 포장해서 고급품인 것처럼 보이게도 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신제품을 개발하여 구제품과 대체하고, 개성화시대라고 하여 소량 다품종화를 통해 비싼 가격으로 매출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세태를 반영하여 에너지절약형이나 근검절약형이라고 하는 제품을 사서 쓰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들의 운동이라고 선전하여 많은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재를 개발하는 관점은 이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추구하는 시장 속에서 생활인에게 본래 필요한 재질이나 기능이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물품의 사용가치를 추구하는 운동으로 나타나며, 그 과정에서 소비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③ 소성(素性)의 확인

물건의 소성(素性)이라는 것은 누가 어떠한 생각과 방법으로 어디서 어떻게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어떤 물건이 온전하고 사용가치를 갖추고 있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 물건의 소성이 명백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물건을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환경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 현상을 파악할 수도 없고, 장래를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물건의 소성은 생산기업의 비밀주의, 생산공정의 고도한 공업화, 세계 규모의 원재료 교류, 그리고 유통기구의 복잡화 등으로 인해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그 영향은 광범위해서(시간적으로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큼)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도 쉽지 않고, 그 책임규명도 또한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소성을 확인하는 것은 책임을 추구하며 단순히 이기적으로 안전성을 찾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소비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점을 세우고 실천해 가는 과정을 통해 구조적으로 물건의 품질과 기능을 확보해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무리 공적·사적인 갖가지 검사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시기의 한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소비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포함한 소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야말로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④ 공정한 가격의 추구

일반적으로 가격은 물건의 가치와 그것을 표현하는 화폐가치, 그 물건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라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격은 시장가격이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바로 이 시장가격이 앞서 말한 일반적인 가격형성의 논리에 의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물건에 대한 가치관은 기업의 판매전략 등으로 매우 다양화되어 무엇을 가지고 물건의 가치라고 해야 할지 모를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장의 수요관계는 의도적으로 조작되어 물건에 따라서는 투기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 무정부적인 시장에서 생겨나는 시장가격에 가계(家計)가 흔들려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무정부 상태는 단순히 가격의 폭등, 폭락이라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생산활동 그 자체를 퇴폐적인 상태로 빠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팔리는 것이 곧 가치있는 것이라는 사실은 거꾸로 팔리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거기에 아무리 많은 노동이나 자금이 투자되었더라도 그 자체는 평가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구조 안에서 누가 생산에 애정을 쏟을까요? 트랙터로 양배추를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생산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바라는 것은 무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비재를 개발할 때 공정한 가격을 추구하는 이유는 우선 우리가 물건의 사용가치를 추구하고 그 물건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가격을 보장하지 않으면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격이 시장가격과 비교해서 싼가 비싼가라는 사실보다는 그 가격이 사용가치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⑤ 생산, 소비 모두의 책임수행

위와 같은 소비재를 개발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생활클럽의 소비재 개발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조건이 만족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단순한 품목에서부터 하나씩 그 조건을 충족시켜 나가면서 소비재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노력은 당연히 생산, 소비 쌍방 모두가 생활인의 논리에 맞게 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발에 즈음해서는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 기본 관점에 관해 협의하고, 현 시점의 문제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책임을 자각하지 않은 채 소비재를 개발해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것이 좋다고 희망해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약속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소비재를 개발할 수는 없고 또 이미 개발된 소비재라도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서 계획적인 이용의 결집이며 확대계획의 실행이며 공급단위의 설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각 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요구를 조직화하고, 그 결집된 힘을 가지고 소비재를 자주관리해 나가는 일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산자들도 그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재는 생산과 소비 모두의 책임수행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유통(배송, 공급, 분배)과 소비의 구조

① 시장외 유통과 그 노동

시장유통의 특징은 특정 생산자가 만들어낸 생산물을 특정인이 이용하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산자는 자신이 세운 계획에 따라 생산하여 생산된 물품을 유통과정(시장)에 내놓을 뿐이고, 이용자는 판매시장에서 자신이 필요한 양만큼 구매할 뿐입니다.

이에 반하여 생활클럽의 소비재는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유통은 하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시장 밖의 유통기구와 그것에 대응하는 소비방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시장의 유통이 어떠한 특성을 지닌 노동을 창출하는가를 계란을 예로 들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닭이 알 낳는 날짜를 맞추고 신선도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생산자는 약속한 대로 공급날 하루 전에 계란을 모아 판매 담고 무게를 답니다. 닭이 그날 산란하는 양은 정해져 있지만 한꺼번에 알을 낳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알을 모으는 노동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선도를 중시하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계란된 계란은 그날 밤 안에 하적되어 다음날 아침에는 각 공급 센터에 도착됩니다. 센터에서 반으로 당일 안에 공급되어 반에서는 각 가정으로 계란을 나누게 됩니다. 반에서는 그날 공급받기 위해서 전달 20일에 주문을 모아 센터로 보내고, 센터에서는 25일까지 다음 달 주문량을 집계하여 생산자에게 알립니다.

반면 시장유통에서는 노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기계화된

곳도 있다) 일정량이 산란된 뒤 알을 모으고, 다음날 전량을 출하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배송효율을 고려해서 집란장(集卵場)에 모아둘 수도 있습니다. 또 시장 시세가 올라갈 것 같다고 예측되면 배송을 조금 늦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상점에 진열된 계란은 그날 팔리지 않아도 다음날 팔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완숙된 토마토를 시장의 유통시키려면 생산자의 노동이 일정한 시간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또 그것을 즉시 공급하는 생협 내부의 노동과 그것을 나누는 반원(班員)들의 노동이 없으면 완숙된 토마토가 지나치게 익어버리고 맵니다. 시장유통에서는 그런 노동이 생겨나는 것은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토마토가 익기 전, 파란 상태에서 따서 유통과정 중에 색깔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유통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특유의 노동을 동반하게 되는 데, 이 점에서 일반시장 노동과 위화감이 생겨납니다. 당번인 사람은 '돈 한푼 벌 수 있는 일도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생협 직원은 '당일 공급하는 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며, 센터에 공급하는 사람은 '야밤에 나 혼자 이렇게 매달려야 하다니'라고 생각할런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힘들어 하는 데 대한 현실적인 배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노동은 시장의 유통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 있는 노동으로 보는가 아닌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것을 타인과 공유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노동과 비교함으로써 손익계산을 할 것인가, 생활클럽이 만들어내고 있는 시장의 유통의 성패는 위의 둘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② 계획소비와 계획생산

특정한 생산과 소비의 결합이 시장유통과 비교할 때 우수한 점은 계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소비를 규정하는 것은 1인당 평균 계획 이용량과 조합원수입니다. 1인당 평균 계획 이용량이란 '1인 평균 필요량 * 이용자의 비율'이므로 이용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계획이용량은 증가합니다.

1973년 석유파동이 일어났을 때 다른 곳에서는 물건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활클럽에 지금까지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당연히 물건이 부족하게 되어 지금까지 단골로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조차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공급 전달 20일 전까지 다음달 필요한 양을 주문하는 체계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기간의 이용량 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폭적인 이용량의 변동이 있으면 생산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계획소비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모든 조합원이 항상 안정적으로 물품을 이용하는 것이며, 그 이용결집의 역량에 따라서 계획의 안정성을 높아집니다.

그 다음으로 계획소비에서 중요한 것은 조합원 수입니다. 각 사람이 이용하는 양이 안정되어도 조합원 수의 증감이 심하면 계획이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확대활동은 우선 안정된 조합원 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특히 도시사회에서는 인구유동이 심하기 때문에 항상 적극적으로 조직확대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정된 숫자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획소비라는 것은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이용결집과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타인과의 협동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이 운동의 유지와 발전은 계획적으로 수식화되어 생산자에게도 연간 생산계획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생산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서 계획생산을 하게 되는데, 생산하는 쪽에도 계획대로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은 많습니다. 특히 농산물이나 해산물은 기후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것은 시장의 생산유통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활클럽의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은 항상 생산정보를 통해 파악되고, 그 대책 또한 계획적으로 세워집니다.

이와 같이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계획성을 가져다주는 경제적 합리성은 계획적인 노동의 분배, 공급의 사전준비, 잉여생산물의 방지 등으로 나타나고, 품질의 보존과 가격의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③ 단품집중주의와 무규격주의

단품집중주의는 소비재의 형태와 내용을 한 가지로 통일해서 그것에 구매력을 집중하는 일로 생산, 공급, 분배의 합리성을 높이고 동시에 품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슈퍼마켓의 진열장에는 수많은 종류의 물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간장 하나만 보아도 회사별, 용량별, 용기별 그리고 등급별, 종류별로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만약 전국의 간장을 모두 모아 늘어놓는다면 필경 몇백 가지가 될 것이지만, 실제로는 몇 안 되는 품목에 불과합니다. 마치 굉장히 풍부한 물품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연출하면서도 몇 가지 안 되는 품목으로 수렴해가는 것이 슈퍼마켓의 판매기술입니다. 이 방법은 지금 제일 잘 팔리고 있는 상품, 이익이 많아 더

팔고 싶은 상품, 너무 팔리지 않아 곤란하므로 손님에게 보이고 싶은 상품 등을 진열 기법에 따라 진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팔려는 것은 한두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한정된 품목만으로 숫자를 줄이고 싶으면서도 앞서 이야기한 연출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열장을 잘 살펴보면 날짜가 오래되어 빨리 팔고 싶은 상품이 맨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님은 다양하다고 느끼면서 진열된 물품 중에서 선택하고 있을 뿐입니다.

생활클럽의 단품집중주의란 이와 같이 메이커나 슈퍼가 많이 팔기 위해 만들어낸 다품목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생활인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하는 선택을 집중적으로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품목에 구매력을 집중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생활자재로 사용하는 빈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품질, 소비량과 품질을 보존할 수 있는 용량과 포장방법 등입니다. 또 사용 후 폐기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환경오염을 배려하여 용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단품주의는 생활자재 자체가 가지는 지역성이나 문화성, 그리고 역사성을 헛되이 부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생활클럽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짬간장뿐인데, 예를 들어 간장은 간사이 지방에서는 싱겁고 간토우 지방에서는 짭니다. 우리 것만이 진짜 간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요리기술이나 문화를 생각하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규격주의에 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지금 시장의 유통규격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꿀을 예로 들면 크기별로 여섯 종류, 이것이 다시 품질 면에서는 3단계로 나뉘어 전체적으로 보면 열여덟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산지에서는 선별을 위해 기계설비나 노력이 투하되어야 합니다. 청과물시장에서는 각 단계마다 각각 거래가격이 달라 배달하는 데도 잔손이 많이 갑니다. 이와 같이 고생고생하면서 유통규격을 지키고 있지만, 과연 그 규격이라 매겨진 것이 궤의 품질을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지, 혹은 그것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 하는 점들은 지극히 애매합니다. 궤의 품질인 당도와 산도의 균형을 입증하는 것은 생산지와 그때그때의 기후, 수령(樹齡)과 육종관리 기술 등 인데 유통규격으로는 그런 것을 모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규격은 앞서 말한 개발의 기본관점에 기초한 것이며, 판매를 위한 시장유통 규격은 아닙니다. 만약 궤이라면 '특정한 산지의 생산자가 어떻게 궤를 육종하고 관리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어느 정도 궤의 품질만 보존되어 있으면 선별하지 않고 상자에 넣어 생활클럽으로 직송됩니다.

또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그 밖의 가공품에 대해서도 규격이 본래의 의미를 잃었을 때에는 그 규격 자체를 무시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농림성이 정한 궤 통조림의 규격은 궤껍질에 붙어있는 섬유질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공정에서 섬유질을 제거하기 위한 약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궤질의 섬유질이 붙어있는 채로 통조림을 만들어 안전한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농림성 규격에 맞지 않아 통조림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본 농림성 규격 자체가 통조림의 안전성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쓸데없이 상품화되어 그에 따라 규격화된 것은 결코 물품의 사용가치를 담고 있지 못하며, 생산유통을 불합리하게 하여 쓸데없는

비용만 생활인들에게 부담시키게 됩니다. 단품집중주의, 무규격주의는 이러한 시장유통경제에 대한 이의제기이기도 합니다.

④ 생산단위와 공급단위

생산단위란 한 생산공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생산단위를 말하는데, 그것은 소비재의 종류에 따라서 갖가지입니다. 일반 시장에서는 생산단위에서 생산효율이 중시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생활클럽 소비재의 경우에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품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유지하면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양은 어느 정도인가란 점이 덧붙여집니다. 전체 생산공정의 생산물 속에 묻혀 버리거나 그 소비재의 특징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차(茶)를 예로 들면, 무농약 유기농법을 하지 않는 주변 농법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양이 늘면 주변의 농법에 영향을 주어 효과적으로 그 안정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마요네즈, 식용유, 간장 등과 같은 모든 가공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양이 일정한 생산효율을 보장하는 수준이 되면 생산비용의 하락, 가격 하락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우유공장과 같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만든 공장이라면 최초의 설립목적인 품질도 중요하지만 보다 안정적인 경비 및 가격을 추구하기 위해 효과적인 가동률이 중시됩니다. 공급단위는 기본적으로 평균 소비량과 평균 반원 수를 곱해서 결정되지만, 동시에 그것은 위에서 말한 생산단위에 대해서 반을 단위로 하여 협동적으로 이용을 책임지게 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생산단위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일상적인 공동구입 활동 속에서 공급단위를 날마다 지켜나감으로써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앞에서 얘기해 왔던 생활인이 지녀야 할 존재양식 그리고 그 표현인 협동활동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갈까라는 문제와도 통하는 것입니다.

4) 공동구입활동과 공동불매운동

소비자로서 상품사회에 끊임없이 쫓아가기만 하는 삶을 거부하고 자각적인 생활인의 삶을 추구하는 것 속에는 필연적으로 공동불매의 운동논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① 큰 힘을 지니고 있는 무자각적인 불매행위

일상적인 구매 행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자각적인 불매도 추적되면 큰 힘이 되어 생산이나 유통 자체를 뒤흔듭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정보사회에는 마스크 정보가 발단이 되어 전국적인 불매행위를 일으키곤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일찍이 다랑어의 수은중독이 말썽이 되었을 때, 전국적으로 다랑어 불매운동이 일어나 초밥집 매상에 큰 영향을 미쳤던 적이 있으며 또 최근에는 설날에만 주로 쓰던 말린 청어알이 투기로 인해 값이 뛰어 오르자 모두 외면해버려 사재기를 해놓았던 회사가 끝내 도산한 적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로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으로 영향을 받은 해역 내 어패류의 불매운동, 카드뮴에 오염된 쌀의 집단폐기 처분, 충치의 원인으로 밝혀져 세상을 놀라게 한 유산음료에 대한 불매운동

등 그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자각적인 불매운동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시간과 함께 잊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② 공동구입이 산출해 내는 구조적 불매

일정한 가치관에 바탕을 둔 공동구입은 한편에 거부의 논리를 내포하고 있는데 불매행위는 그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유해하다고 여겨지는 첨가물을 배제하여 생산된 소비재는 제조공정에서 첨가물의 불매를 동반합니다. 또 재사용을 목적으로 개발된 용기는 플라스틱과 같이 한 번 사용하고 이내 버려지는 용기의 불매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매활동은 일정한 가치관에 바탕을 둔 공동구입이라는 구조가 산출해낸 결과이며, 주된 목적은 역시 공동구입인 것입니다.

③ 목적의식을 지닌 공동불매운동

우리는 공동구입을 실천하면서 소비자라는 위치를 부정하고 생활인의 자각적인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공동구입활동 속에는 이미 목적의식을 지닌 불매운동의 논리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동구입을 하지 않는 물건으로 화학조미료, 인스턴트식품, 합성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구입의 확산에 비한다면 목적의식을 지닌 공동불매활동이 지닌 힘은 대단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입 행위만으로 공동구입활동은 자기 완결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생활인이란 사회적이고 자연환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공동의 구입행위에 머

물지 않고 타인에게 공동의 불매운동을 호소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자각적인 존재와 그 자립은 일정한 범위를 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실천 예로서 가나가와 생활클럽 조합원이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비누센터 500곳 설치운동은 지역 전체를 겨냥한 합성세제 불매운동으로서 유효합니다. 이는 비누 공동구입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합성세제 추방과 불매를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확산하려는 활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공동구입은 이렇게 목적의식을 지닌 공동불매운동을 조직의 안팎에서 전개함으로써 보다 큰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게 됩니다. 공동구입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을 이용해야만 하는가’와 함께 ‘무엇을 구입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밝혀 그것을 협동을 통해 실천하는 것입니다.

5) 지역공동체의 전망

① 공동구입의 질적 향상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공동구입이란 소비자 자신이 만든 유일한 구매수단입니다. 공동구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소비자가 지니고 있는 구매력의 결집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협동적인 행동입니다.

생활클럽은 이러한 공동구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상품화에 추종하는 소비자의 모습을 부정하고 자각적인 생활인이 되고자 노력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운동의 과제는 각기 다양한 생활영역으로 퍼지게 되었는데, 공동구입을 계속해 가는 과정에서 자각된 협동행위가 그 에너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근본적으로 변함

이 없습니다.

우리 운동의 목적이 풍요로운 생활을 창조하는 데 있다면, 그 풍요의 수준은 항상 공동구입 자체의 질에 의해 규정되며, 보다 발전적인 전망은 공동구입 자체의 질적인 변화를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 질적인 변화를 위해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공동구입을 유지시켜 주는 구매력의 결집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소비재를 개발하고 공동구입해 가는 데 있어 그 최종 귀착점은 각 가정의 소비입니다. 공동구입되기까지 일어나는 갖가지 협동 행위도 소비재가 각 가정에 배달되어 소비되는 단계에서는 각 가정으로 분산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매력의 결집은 각 가정의 독자적인 소비력에 따라 늘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준은 소비재 구입을 위한 협동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어 소비를 위한 협동화에게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의 협동화 그 자체가 자각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소비를 위해 소비재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거나 조리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활동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비의 협동화를 지향하여 한걸음 전진한 것이 우유공장의 건설입니다. 지금까지는 메이커에서 공동구입해 온 우유를 ‘우리 스스로 생산하고 우리 자신이 소비하는 우유’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야 할 상대가 없어지고 소비하기 위해 생산하는 구조로 변화되었을 때 종래의 구매력 결집이라는 관점은 최소한 우유에 관해서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소비력의 결집이 생겨납니다.

구매력의 결집을 위해 가꾸어 온 협동행위가 ‘소비력의 결집을 위하여’ 어떠한 질적인 변화를 해야 하는가를 묻는 일, 바로 그것이 공

동구입의 질적 향상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② 협동적인 소비의 모색

협동적인 소비 구조는 공동구입의 체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구매력의 결집과 가정의 독자적인 소비라는 관계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유를 예로 들면 우유의 공급 단위, 즉 한 반의 최소 구매단위는 열다섯 통입니다. 지금 어느 반원이 ‘애가 이제 컸으니까 우유를 그만 마시겠다’고 세 통의 구매를 그만두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급하는 최소단위를 채울 수 없게 되어 다른 반원의 구매도 없어집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기계적이지 않지만) 결국 이러한 모습은 한 반원의 소비가 다른 반원의 소비와 직결되어 그 가정 독자적인 소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협동적인 소비가 개인의 소비를 충족시켜 왔다(아이가 클 때까지)는 것입니다. 이 사례를 공동구입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 반원으로서의 어린애가 컸다고 우유구입을 그만둔 구입의 정지일 뿐이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소비에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물건이 풍부한 시대에는 얼마든지 개인적 구매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2차 대전 후의 배급제도 등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틀림없는 일종의 협동적인 소비입니다. (다만 전 후에는 지금과 달리 누군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의 몫이 없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생활클럽의 소비재는 특정한 생산과 특정한 소비의 결합을 통해 생겨나는 시장의 유통을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동으로

구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동하여 소비하고 있다고 자각하는 것이 점차 중요시됩니다. 물론 협동적인 소비는 각 가정의 독자적인 소비를 획일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 가정의 독자적인 소비를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해 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소비재의 생산과 소비가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공유하며 생산자와 함께 자주관리해 나가는 일, 그리고 ‘자기와 타인의 소비를 위해 생산이 되고 있는 것이며, 구입이라는 행위는 그것을 경제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해를 보다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 일이 판매와 구입이라는 경제 행위를 경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구입이 시장경제에서 경제적인 논리에 따른 판매와 구입을 추종하는 한 시장경제를 극복할 수는 없다는 관점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③ 협동적인 소비가 만드는 사업

협동적인 소비를 향하여 공동구입을 질적으로 전환시키는 가운데 공동구입에 대한 새로운 전망이 생겨납니다.

첫째는 현재 생산자와 관계를 단순히 물품의 구입처라는 관계에서 생산과 소비의 협동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이 일은 생활클럽의 소비재를 생산하는 농업과 공업 그리고 물품을 유통하는 운송업까지도 생산과 소비의 협동적인 산물로 만들어내는 일로 이어집니다. 둘째는 어느 정도 역량을 쌓아 독자적인 자주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비재를 자주적으로 생산하고 그 유통도 자주적으로 해나가는 일입니다. 이미 신생낙농주식회사나 태양식품주식회사, 판매주식회사처럼

독립적인 운영과 재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생기고 있습니다. 협동적인 소비는 계속 이러한 소비를 뒷받침하면서 그 사업이 가져오는 효과를 소비재의 질과 가격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경영효율을 높여가면서도 그 이익을 증식시키지 않고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한 협동적인 소비의 주체들에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공동구입하는 소비재를 협동적으로 소비하는 과정에서 쌓은 협동의 힘을 다른 분야의 소비의 협동과 사업화로 나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소비는 단순한 생활물자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건강, 이웃과의 교류, 육아 등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본래 이러한 것들은 가사노동으로 충족되어 가게 지출을 수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산업화되어 어느 사이엔가 막대한 지출의 대상이 되어 버렸으며 최근에는 점차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비를 협동사업화하는 것은 쓸데없이 상품화된 생활에서 벗어나는 일이 됩니다. 이것은 가게지출을 줄이거나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는 일이며, 조합원 자신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기술이나 지식을 살려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일이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활을 자율공간 속에 두는 것이 됩니다.

현재 국가재정이 곤궁한 상태인데도 공적(公的) 지출은 늘어나고 가처분 소득의 감소는 굉장합니다. 한편 주부들의 파트타임제 노동을 비롯하여 각 산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치가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한 상태에서도 늘어나고 있으며, 남성노동과 경합이 의도적으로 조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정책은 별개로 생각하더라도 고령화된 사회는 인간이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지역에서 직장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놓고 볼 때 벌써 수많은 협동의 실천을 거듭 쌓아 온 생활클럽은 다양한 협동화와 사업화의 전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④ 지역적인 협동소비체의 전망

협동적인 소비가 전망하는 사업은 당초 우리들의 주체적인 역량에 따라서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지역사회 안에서 자리잡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지역사회의 산업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부분은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에서 소비된 돈이 그 지역으로 환원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 규모의 슈퍼체인이 지역소비의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그 나머지를 지방의 상점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항하려면 각종 사업과 그에 따른 노동이나 소비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소비력을 협동화하고 그 성과가 지역사회와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되돌아올 지역 전체의 협동소비체야말로 협동조합의 공동구입이 가장 바라는 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대중운동의 운동론과 조직론*

생활협동조합중앙회 역

대중운동의 실천

1. 왜 대중운동인가

여기에서 말하는 대중운동이란 이른바 ‘대중사회’라고 일컫는 현대 사회에서 대중들이 다른 사람과 모여서 자기의 존재를 표현하려는 행위 전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당, 노동조합, 협동조합, 각종 시민운동 단체는 물론이고 직장이나 학교 내의 동아리나 동호회, 하다못해 ‘OO 연합’이라고 자칭하는 폭주족까지도 포함됩니다. 그것이 좌익이든, 우익이든 혹은 체제 내적이든 체제 외적이든 또는 사회적으로 유용한지 어떤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대중운동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생활클럽생활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중앙회 역. 2000. 『일본의 생활협동조합운동』 '제2편 공동구입과 대중운동조직론'(p78~146), 생활협동조합중앙회 출판부.

이와 같이 생각하면 모든 운동이 개인에게도 지역사회 속에서도 서로 겹치고 맞물리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이 모든 운동을 대중운동으로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하나의 운동이 다른 운동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노조의 조합원이 전철에 슬로건을 휘갈겨 쓰는 행위와 폭주족들이 강다리 위에 스프레이로 자기가 속한 단체 이름을 쓰는 행위를 대중의 자기표현이라고 볼 때 이렇다 할 만한 차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의 것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운동 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뒤의 행위와 무의식적으로 차이를 주장합니다. 이리하여 양자의 운동은 대중사회에 동시에 존재하는 대중행위이면서도 영원히 관계맺는 일 없이 서로를 그 사회의 풍속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평행선을 따라 갈 뿐입니다. 어떠한 정당도 노동조합도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서 생겨난 대중사회의 산물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운동론의 계보가 있든지, 그 시대 대중의 참가와 능동성을 받아들여 시대에 맞는 운동관, 조직관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존속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항상 대중운동이라는 자기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은 노동운동이고, 정당은 정치운동이기 때문에 각기 그 운동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대를 규정하고, 각자의 운동논리에 따라 대중 스스로의 의지에 공통된 욕구가 존재하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그 결과 상호간에 운동의 에너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 폐해는 단순히 정당, 노조 사이에 머물지 않고, 대중사회에서 잇달아 생겨나는 새로운 대중운동과도 유효적절한 연대의 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운동 상호간의 불신이 생겨나 서로를 공격하게 됩니다.

한편 대중사회를 주체적으로 생겨나게 한 자본주의 체제는 체제 자체의 모순을 심화시키면서도 그 모순을 솔직히 받아들여, 대중조작의 기술을 발달시키면서 확실한 대중사회의 운동론, 조직론을 성숙시켜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운동을 대중사회의 대중운동이란 동일한 차원으로 다시 정립하려는 것은 대중 자신의 능동성을 둘러싸고 헛되이 계속되는 주도권싸움을 책상이나 밀실에서 해방시켜 대중사회라는 개방 공간에서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대중사회가 만들어내는 운동

오늘날 대중운동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평준화된 대중을 전제로 성립되는 갖가지 제도가 대중 전체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대중이라는 인간의 모습은 추상적인 존재인데, 그것을 구체적인 그릇 속에 넣으려는 것이 사회제도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강제로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제도에 대한 위화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공동체사회에서는 타인과의 의존관계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위화감은 타협하고 동의하는 과정에서 해소됩니다. 그런데 대중사회에서는 그 위화감을 해소하려면, 먼저 타인과의 의존관계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중운동의 출발입니다.

대중사회가 점차 성숙하고 환상적(幻想的)인 갖가지 사회제도가 갖추어지면 갖추어질수록 그것에 대한 위화감은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고도화합니다. 이와 함께 대중운동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운동내용은 각 위화감의 양상에 따라 지극히 감정적인 것이 됩니다. 또한 그 운동체가 갖고 있는 욕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분류하는 것도 의미 없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저항감을 타인과 관계를 통해 공유하고, 더욱 깊이 자각’하는 것이 운동의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폭주족들의 운동도, 그 밖의 대중운동도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갖가지 제도의 일환으로까지 성장한 기존의 대중운동 조직은 이러한 대중운동에 위화감을 느낍니다. 또는 기존의 운동론, 조직론을 가지고 지극히 정치적, 제도적으로 계열화를 시도하려 하거나 그 목적이나 행동양식에 따라 구별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논리를 새로운 대중운동에 접근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정을 통해 대중운동의 발생배경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중운동의 자기 운동론, 조직론을 만들어내어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기존의 운동론을 (자각적이지는 않지만) 비판하면서 이룩해 온 갖가지 대중운동 조직도 객관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도구로서 운동론, 조직론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비판과 평가를 받아야 할 시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대중운동의 실천적인 운동과 조직론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중운동의 발생과 전개

1. 발생의 시대배경

생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이 주체가 된 조직이 생긴 것은 1965년 6월입니다. 60년 안보조약 체결 이후 5년이 지나면서 노동조합과 정당을 중심으로 한 당시 사회운동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각지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시민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절입니다. 64년에는 도쿄올림픽이 개최되고, 각 가정에 텔레비전이 보급되어 베트남 전쟁의 실상이 순식간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활클럽은 우유의 공동구입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하루 종일 시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부들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조직을 형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사회를 발전시킨다는 확실한 운동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원수폭 금지활동이나 그 밖의 정치적 활동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은 경제활동을 수반하는 시민운동 조직과 조금도 차이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조직 형성은 무엇을 계기로 발전해갈 것인가

생활클럽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럴싸한 운동목적을 가지고 조직이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조직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우유의 공동구입을 실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경과와 아래와 같습니다. - 집단행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우

유의 공동구입운동은 곧바로 기존의 우유판매업이라는 사회제도와 충돌을 가져왔습니다. 판매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공급하는 우유가 아닌 다른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전문가의 명예를 걸고 그들이 취급하는 대형 메이커의 것이 아닌 우유는 우유라고 말하기 어렵고, 그것을 마시면 건강을 해친다고 공동구입을 하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선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전문가의 말이 맞을거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다른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의견들이 대두되어 조직 탈퇴가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대중운동에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생활클럽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전문가에 반론할 수 있는 학습’이나 ‘결코 건강을 해칠 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인가?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탈퇴자가 나오지 않는 지구(地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며 우유 전문점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면서 우유가게에서 생활클럽을 좋게 말할 리가 없다고 아주 쉽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중적인 자각만이 조직을 지키고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기가 되어 반론이나 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학습활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누가 지적해 주지 않았는데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움직여온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대중운동의 조직형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① 사람은 가장 가까운 타인과 관계를 통하여 자신을 재발견하는 계기를 갖는다.
- ② 위기감이나 증오를 부채질하는 선전, 혹은 즉흥적인(어떤 일에 대한 반론이나 변명 등) 학습은 해로울 수밖에 없다.
- ③ 운동의 목적은 각자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유효성을 가져야 한다.

3. 운동의 가치관 형성

우유를 공동구입하면서 우유에 대한 학습이 권장되었습니다. 결국 우유를 모든 사람이 마신다는 행위와 우유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동시에 추구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도쿄에서는 가공유(비타민 우유, 농축 우유 등)라는 것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여 보통우유(생우유를 살균하여 균질화한 것)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우유를 달라고 하면 아무 말 없이 가공유를 건네주고 또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가공유와 보통우유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는 쉽게 우유업체의 시장정책에 부딪치게 됩니다. 즉 값싼 탈지분유를 물에 녹여 비타민을 조금 첨가한 것이 농축(고급)우유라는 이미지를 갖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추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동네 우유가게에서도 그것을 취급하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식품의 사용가치를 생각하며 사려고 하지만, 시장정책 속에서 어느새 교환가치만

중시하는 상품을 사게 되는 것을 깨닫고는 합니다. 우유가게들이 공동구입활동을 욕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단지 가게의 매상이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구입운동이 가공유 시장정책에 대한 반항이라 생각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우유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상품의 본질과 자본주의의 시장메커니즘을 알게 된 셈입니다. 따라서 단지 현명한 소비자가 갖고 있어야 할 지식에 머물지 않고 운동의 가치관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동구입 활동이 갖고 있는 의미를 스스로 익힌 것입니다. 즉 소비물자의 사용가치를 추구하고 획득하는 것을 운동의 가치관으로 삼고 또한 그것이 퇴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모든 운동방식과 교육을 그 주제에 집중시켰습니다.

대중적인 운동의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여 그것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본다. 그 발견과정 자체가 운동이 갖는 가치다.
- ② 문제(테마)를 발견하면 즉시 실천행위와 관련지워 검증한다. 그 성공과 실패 여부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것은 가치관과 현실의 차이를 확인하고, 원칙인 가치관을 퇴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③ 모든 운동 행위를 활동의 주제로 삼아 총괄적으로 전개한다. 이것은 가치관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4. 운동의 도달점과 한계의 확인

생활클럽은 2년 남짓 활동한 결과 공동구입하는 우유가 하루에 2천 병(병당 180cc), 회원 수 8백 명이 되었습니다. 규모의 확대는 운영에 여러 가지 왜곡된 모습을 가져오고 운동 자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금전관리에 따른 경영의 문제, 회원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결정의 문제 등이 생겨납니다.

생활클럽에서는 운동이 도달하는 상황에 따라 항상 그 한계상황을 명확히 인식합니다. 그래서 임의단체에서 벗어나 생협법인을 결성하자는 논의가 시작됩니다.

생협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회원들은 각지의 생협을 방문하여 각자 나름대로 받은 인상을 안고 돌아와서 다양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점포로 할 것인가, 조직적인 공동구입을 할 것인가, 상근직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누가 맡기인이 될 것인가, 법인화하였을 때 회원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등, 대중적인 토의가 이어지고 그 자체가 운동의 도달점과 능력의 한계를 확인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헛된 환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관론에 휩싸인 논의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논의 끝에 ‘반’을 기반으로 하는 생협의 조직과 유통을 추진하기로 결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우유를 각 가정마다 개별적으로 공급하였는데, 그 방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반조직에 반대하는 20%나 되는 회원이 탈퇴합니다.

1968년 11월에 생협이 설립되었는데, 인적자원, 자금, 시설 등 모든 것이 불충분하였습니다. 그 한계가 솔직히 알려지는 과정에서 반대로 조합원의 능동성은 높아져 갔습니다. 70년이 되면 우유는 병에

서 500cc 종이통으로 바뀌고 공급도 격일제가 됩니다. 이때에도 조합원의 30%가 생협을 떠났습니다. 우유는 매일 아침 한 병씩 마신다는 당시의 통념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운동은 대담한 방침의 전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겁을 먹습니다. 더구나 사업경영을 수반하는 협동조합에서는 가능한 한 조합원의 일상심리를 거역하는 방침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극히 일반적인 협동이라든가 참여를 호소하는 것에 머물게 됩니다. 실은 이러한 모습 자체가 지도하는 데 따라 끌려 다니기만 하는 우매한 대중을 만들기 시작하며, 운동을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운동의 도달점과 한계를 늘 확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 ① 운동의 도달점이란 각자의 활동이 쌓이면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를 분명히 하고, 그 인식을 기초로 다음을 전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헛된 소망이나 무의미한 비관론을 배제하게 된다.
- ② 운동의 한계란 조직의 주체적인 역량을 객관 정세에 맞추어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주체적인 역량을 가늠하는 데에는 성원 각자의 철저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
- ③ 이러한 행위가 일상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운동과 조직의 모순이 모두에게 공유되고, 때에 따라서는 대중적인 능동성을 발휘하는 기초인식이 된다.

대중운동의 다양화와 조직화

1. 운동의 다양화

오늘날 대중운동은 대단히 여러 가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중운동은 주민운동, 소비자운동, 여성운동, 반전평화운동, 반공해운동 등 그 운동의 담당자나 혹은 운동목적에 따라 호칭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구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활동범위도 한 직장, 한 학교, 한 동네 안에서와 같이 좁은 범위에서부터 전국 규모, 지구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 견잡을 수 없이 수많은 대중운동의 발생이야말로 현대 대중사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운동은 겹겹의 층을 이루어 서로 의존하고, 서로 부정하며, 서로 피해를 입히면서 생성·발전·소멸되고 있으며 그것은 기존의 이데올로기로는 파악할 수 없는 유동성을 지니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의 대중운동 내부에도 다른 운동의 여파를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여 운동의 목적을 풍부하게 하여 조직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무작정 추종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기존조직이 흔히 하는 것처럼 목적 이외의 행동을 거부할 것인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생활클럽이 펼친 다양한 운동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우유를 공동구입하여 반 단위로 공급받는 체계가 정착되면서 동시에 그 체계를 이용하여 일용식품, 잡화의 공동구입이 시작됩니다. 구

입한 곳은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였습니다. 그 중 세제가 있었는데 고급알콜 원료로 만든 합성세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합성세제가 발매된 지 10년을 경과하면서 시장을 장악한 합성세제는 각종 피부장해를 비롯하여 건강장해를 가져오고 토양, 하천, 바다 등 자연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점이 지적되어 전국 각지에서 기존의 비누를 사용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생협에서는 직접 개발한 합성세제를 정당화하는 이론을 내세웠고, 생활클럽도 거의 합성세제를 정당화하는 이 주장을 추종하였습니다.

당연히 조직 내부에서 그것을 추종하고 있는 체제에 대한 비판이 속출하여 우선 합성세제와 가루비누를 같이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아무런 모순의 해결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합성세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비누를 쓰지 않으면 자신의 안전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합성세제와 가루비누를 같이 쓰는 것조차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결정된 것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학습하고, 논쟁하여 뜻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 합성세제로 인한 피부장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빨래의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재검토, 환경문제를 포괄하는 사용가치의 추구, 상품인 합성세제와 소비자의 인식 등에 관하여 토의되고 엄청난 자료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과를 거쳐(세제와 비누를 함께 취급한 지 1년 정도 지난 후) 모든 합성세제는 건강장해와 환경오염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 가해자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또한 동시에 합성세제를 상품으로 시장에 내놓게 한 편리함이나

그렇듯한 생김새를 부정하고, 빨래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용가치는 가루비누가 갖고 있다는 점을 합의한 것입니다. 조직 내부에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가루비누 사용을 위한 캠페인이 전개되고,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합성세제 사용금지 조치를 내릴 것을 청원하는 활동이 전개되어 운동의 내용은 한층 더 다양해집니다.

소비 행위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면서 매일 버리는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생활개선, 재이용, 재활용운동이 일어나고, 단지 서비스행정뿐인 시책에 대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자신들이 낸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게 하려는 정치활동이 펼쳐집니다. 위의 내용은 조직 내부에서 당시 소수였던 사람들의 문제제기가 전체로 확산되어 그것이 생활클럽생협이라는 대중운동단체 활동의 기본방향으로 결정된 한 사례입니다.

이 실천과정을 통해 도출된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오늘날과 같은 대중사회에서 생겨나고 존재하는 대중운동은 다양한 문제의식의 반영이며, 그 조직체 자체도 그러한 문제의식의 집합체이다. 출발점에서 운동의 핵심주제는 다양한 욕구의 하나의 결합에 불과하며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 ② 조직 내부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운동은 기본적으로 조직의 능동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파악해야만 한다. 이러한 인식이 없어졌을 때, 운동의 활력은 떨어지며 조직은 폐쇄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 ③ 다양한 욕구에는 미리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서열을 매겨서도 안 된다. 서열은 욕구가 조직적으로 공유되는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이다.

2. 다양한 운동의 조직화

수많은 대중운동 조직이 운동과제가 다양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구성된 그 조직이 고유의 기능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우려는 지도자의 인식, 조직구성의 모습, 과제에 대한 조직성원의 인식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는 조직의 운동이 장애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러면 운동조직이 다양한 운동과제를 조직 내 운동으로 전환시킨 예를 생활클럽의 실천을 통해 살펴봅시다.

앞에서 운동의 다양화에 대한 한 사례로서 가루비누 사용에 대하여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대다수 사람들의 뜻에 따른다’는 방침에 따라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그 결정방법 자체는 흔히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그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과 그 이후의 실천이 얼마나 대중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란 점에 있습니다.

대다수의 뜻에 따른다고 한 이상,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빙자하는 집행기관의 결정이나 유도책이어서는 안됩니다. 말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토의에 참가하고, 풀어야 할 과제를 이해하여 찬반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갈라진다면 조직은 분열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과제의 다양화는 단지 그 시시비비에 그치지 않고 조직 안의 개인인지 개인의 조직인지를 정면에서 묻는 일로 전환됩니다.

가루비누 사용을 주장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대중운동 조직에

도 속해 있으면서 그 주장을 생활클럽에서 실천한 셈이지만, 이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조직 방침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조직을 자기 것으로 변혁시키려는 주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조직적인 신뢰를 얻어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책임 하에 조직화한다는 목표가 생겨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생활클럽의 조직 내 활동의 기본적인 부분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뜻에 따른다는 기본방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은 그 방침만 정하고, 토의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 토의가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또한 토의에 참여하여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으로서 세제부회(洗劑部會)가 설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부회는 결정권은 없지만, 가장 먼저 당면문제를 규명해 가는 입장에 서게 됨으로써 전체기관이나 조직에서 지도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 참여를 통해 생겨나는 전문부회의 선도성을 조직 내에서 인정하는 체계는 그 후 생활클럽의 활동을 다양화하는 데 적용되어 현재 위원회와 부회방식은 종적인 기관에 대한 횡적인 기구로 정착되어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대응 결과 가루비누 사용을 주장한 사람들의 활동은 조직 내에 다양한 실천과제를 가져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루비누만을 취급한다는 조직방침을 낳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험에서 대중운동의 운동 과제가 다양해지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볼 때 그 다양한 운동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 ① 대다수의 뜻에 따른다는 것을 원칙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대다수의 뜻을 모으는 목적은 조직성원이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자각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일반적으로 민주적인 조직은 민주적인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극히 낙관시 한다. 그 결과 조직의 목적이 흐려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료적으로 전락해버린다.) 본래 대중조직에서 조직성원의 동질성은 가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뜻에 따른다는 것은 성원의 동질성에 대한 환상을 의식적으로 끌어내리고, 동질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어떤 목적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자각적으로 형성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 ② 말할 것도 없이 조직의 기구(결의, 집행하는 곳)들은 조직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운동이 다양화될 때 기구는 때때로 그 능력의 한계를 핑계삼아 다양한 운동의 조직화를 거부하는 경향을 지닌다. 이러한 경향은 본래 조직의 기구란 항상 운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기구들이 운동의 다양화를 과제로 삼지 못하고, 운동의 내용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구들은 그 시점에서 운동의 다양성을 거부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말아야 하며, 그 문제점을 명확히 하여 대다수의 뜻이 향하는 곳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③ 운동의 다양화는 다양성을 주장하고 다양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조직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이 경우 조직의 종적인 기구에 대하여 자주적인 횡적 조직이 내부에 형성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종적인 기구로 인한 조직 자체의 소외를 막고, 동시에 대다수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을 단지 목표로만이 아닌 전형적인 실례로서 조직 내에 실현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횡적인 조직이 자주적인 능동성을 가지고 기구와 조직에 대해 선도성, 지도성을 발휘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허용해야 할 원칙이다.

조직성원의 확대와 민주주의

1. 성원 확대의 문제의식

일반적으로 조직성원의 확대는 조직 내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온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는 조직이 본래 가지고 있던 목적이 퇴색하고, 조직성원의 능동성 및 자발성이 저하하면서 조직의 통제 기능이 확대되고, 관료화한다는 말로 표현됩니다.

확실히 전통적인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이나 농협 등에는 기업이나 부락까지도 조직적으로 가입되어 있고, 각 단위조합은 상부조직을 향해 피라미드식으로 집중되어 늘상 반복해서 그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중사회 안에서 전통적인 조직이 새삼스럽게 그 대중성을 문제 삼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은 성원의 확대와 조직 내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 커다란 교훈은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중조직들이 이러한 전통적인 조직의 대형화, 피라미드화에 따르는 문제점이라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조직의 규모가 작은 것이 마치 민주적인 조직운영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처럼 부르짖는 풍조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풍조를 바꾸어 말하면 조직성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관료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다양하게 발생하는 대중운동의 자립적인 교류를 심화시키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결국 규모가 큰 조직은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에 대하여 ‘큰 것이 뭐가 나쁘

나'고 묻는다면 '소조직은 작기 때문에 민주적'이라는 말로 자기 만족할 뿐이며, 그 안에는 아무런 발전도 없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전통적인 조직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되고 있는데, 최근 십여 년 동안 생겨난 대중운동의 경우, 조직성원의 확대와 민주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불충분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학 관계의 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가들 각자가 제각기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과 조직의 민주적인 운영에 관하여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음은 생활클럽이 성원을 확대하면서도 어떻게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했는가에 대한 실적인 과정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민주적이었는가를 나날이 반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성원확대와 조직의 목적

생활클럽이 생협조직으로 전환하여 발족했을 때의 조직 구성원은 약 천 명이었으며, 그 활동범위는 도쿄의 모퉁이에 있는 한 동네에 불과했습니다. 발족 후 13년이 지난 1981년 조합원은 9만여 명이 되었고, 활동영역도 1도 4현에 이르고 있습니다. 1980년도 일본생협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생협수는 658개인데, 그 중에서 생활클럽은 조합원 수에서 아홉 번째입니다 조합원이 52만 명인 효고 현의 나다고베 생협을 비롯하여 2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생협이 전국적으로 네

개가 있으므로, 생활클럽은 조직의 규모 면에서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현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상징적으로 말하면, 상품화 사회가 가지고 있는 획일화된 생활문화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생활인의 자각적인 공동체를 조직하여 자립해 가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조직 목적의 옳고 그름을 가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각적인 공동체의 형성, 요컨대 보다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키는 것을 조직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조직에서는 가입, 탈퇴의 자유를 표방하고 있든 없든 실제로 그것은 자유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성원은 항상 증감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조직의 활동이나 그것을 둘러싼 사회의 정세에 따라서 급격하게 성원이 늘어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수동적인 성원 확대라고 한다면, 생활클럽의 경우는 주체적인 성원 확대를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이미 조직 성원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원이 늘고 있는 조직’과 ‘자각적으로 성원을 늘리고, 이를 촉진하는 조직’의 차이가 나타나며, 그것은 또 그 자체로 조직 내 민주주의의 내용적인 차이를 알려줍니다. 결국 자신의 권유로 가입시킨 이웃을 조직의 관료주의 때문에 떨어져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조직의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조직이란 본래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해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는 교류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한 성원의 가입을 적극적인 인간관계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그 조직의 상태를 기본적으로 규정해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생활클럽은 성원 자신들이 직접 성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생활클럽에 가입한다는 것은 가입자가 스스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새로운 반 조직을 형성하든가, 혹은 이미 조직된 반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생협 조합원이 되면 출자금을 내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공동구입에 따르는 갖가지 규칙을 지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립된 개인이 가입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웃과 협동관계를 전제로 한 조직체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소멸, 생활의 고립화(한편 서비스제도의 확대)가 진행되는 도시사회에서 이러한 전제에 사람들은 쉽게 익숙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활클럽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회에 대한 도전이 조직의 목적이기 때문에 서비스 사회와 타협해 안일하게 가입을 권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 성원의 확대는 기존 성원의 조직 목적에 대한 재인식 활동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어느 정도 조직의 여과장치를 통과한 사람만이 조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할 때 갖는 조직에 대한 인식과 가입 후의 현실적인 대응 사이에는 항상 차이가 존재하여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에는 개인적으로 탈퇴하거나 반 조직이 붕괴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성원 상호간의 교류를 심화하고, 실천적인 과정을 통해 조직의 목적을 원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조직은 가입할 때 그리고 가입하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조직의 목적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원 상호간의 긴장 관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민주주의가 성원의 능동성을 통해 유지된다고 한다면, 그 능동성을 서로 돕구어줄 수 있

는 인간관계와 그것을 규정할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대중운동 조직에서 성원의 확대가 조직의 민주주의를 해친다는 것은 성원의 확대를 조직활동의 주된 목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가입하는 성원을 받아들였을 경우를 가리킨다. 반대로 조직성원들이 직접 목적의식적으로 성원을 확대하였을 때에는 조직 내 민주주의의 활동성화로 이어진다.
- ② 이것을 전제로 조직에 가입할 때 가져야 할 조건은 조직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조직의 규칙을 엄수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성원 자신의 능동성을 기대하는 것이며, 조직 전체의 능동성을 해치지 않기 위한 방책이다. 이러한 각오가 없는 성원의 확대는 조직성원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지도자나 기관에 대한 지나친 의존만을 가져와 민주주의를 형식화시킨다.
- ③ 조직이란 인간 상호간의 전달, 교류과정으로서 항상 과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원 상호간의 교류가 없으면 조직도 존재하지 않는 구조를 내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 내에서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조직의 민주주의는 성원의 열등감으로 인해 생기는 자기합리화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확립하는 주장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성원 확대와 조직 운영

생활클럽의 조직은 반, 지구, 지부 그리고 총체적인 모습인 생활클럽생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도나 현의 생활클럽생협이 연합하여 연합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앞에서 말한 조합원수는 연합

회에 속한 전체 인원입니다. 또한 각각의 조직에는 다양한 사업의 운영을 위한 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이 있으며, 과제별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형태 그 자체는 대중운동의 성격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므로 따로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운영 내용이며, 특히 여기에서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성원을 확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소집단사회인 반 •

생활클럽에서 성원이 확대된다는 것은 8명 정도로 구성되는 반이 확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라도 반에 소속되지 않으면 이익을 얻을 수도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고독한 개인으로 존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점점 소멸해 가는 이 사회에서 반도 항상 붕괴의 위기에 놓여 있으며 반만을 기초조직으로 하여 이루어진 생활클럽은 항상 붕괴하느냐 발전하느냐 사이에서 팽팽하나 긴장감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대기구화된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점차 고립되고 의존 관계를 잃어가는 만큼 잠재적으로 소외의식을 안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자기를 표현할 장소가 없어진 것이며,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소집단으로 구성된 반은 인간의 본성인 사회성을 회복하는 터전이 됩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협동을 자각적으로 실천하며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소사회에서 본질적인 자치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에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전체와 관계된 문제를 자발적으로 토의해서 결정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소집단이 조직운영의 기초로 이용되고 있는 사례는 농협의 마을단위 운영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반 조직을 중시하는 일본생협연합회의 정책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공동체의 통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며, 조직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에 반하여 생활클럽에서는 소집단인 반을 결성하여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운동의 목적 그 자체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반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공동구입은 협동행위의 실천이며, 조직의 민주주의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립의 범위 안에서 획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조직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한 개인으로서 사회에 요청되는 민주주의적인 행동을 폭넓게 체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 자립과 연합을 위한 기구 •

현실적인 문제로서 소집단은 인간과 인간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하여 능동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체 조직에 대하여 폐쇄적인 경향도 갖습니다. 그것은 안정된 것을 바라는 인간의 마음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반을 단위로 경제행위를 할 경우 그 안정적인 운용이 보수지향을 낳게 됩니다. 개인의 의견이 다양한 것처럼 반의 의사결정도 다양하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각자의 자주성을 살리면서 통일된 의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것이 기구입니다.

따라서 기구의 성원은 반이 폐쇄적인 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힘쓰며, 반 자체가 다른 반과의 관계(즉 조직관계)를 자각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러한 자립적인 반의 연합을 구현하는 것이 기구의 역할입니다. 각각의 조직범위에 맞게 기구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연합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리 잡는 것이지, 통치하기 위한 기능을 갖지는 않습니다.

기구의 지도력은 반이 자립한 정도에 따라 고양되며, 그것은 또한 반의 시야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기구는 그 지도성을 상실합니다. 기구의 성원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갖더라도 혹은 개성있고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기구의 지도력에는 별 도움이 안됩니다. 새삼스럽게 기구의 통상적인 기능을 정지한다 해도 반의 능동성, 자립성을 회복시키고 연합기능을 되살려야 합니다. 그러한 조직운영의 결과, 성원들이 아무리 평등하게 출자금을 낸다도 해도 받는 이익은 다르게 됩니다. 이익은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최소한도 반 내의 협동, 그리고 지구, 지부 단위에서 연합하는 능력의 결과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 자치의 형태와 범위 •

반의 자립과 그것을 기초로 하는 연합기능이 자치의 형태인데 그 범위를 좁혀 어떻게 자주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성원이 늘어나면서 생겨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자립과 연합을 통한 자치의 규칙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성원에 의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규칙 자체가 퇴색할 우려가 있습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공받기놀이의 거리를 얼마로 할까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하는 공받기와 가까운 거리에서 하는 공받기놀이는 형식면에서는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깨가 약한 어린이에게는 멀리 떨어져서 하는 공받기놀이는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재미가 없어집니다.

생활클럽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부를 더욱 분할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구역 정도의 범위를 정하여, 성원 수도 천 명을 한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전의 공급과 활동이 거점이었던 센터를 운영의 범위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클럽생협 그 자체의 분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치의 범위를 좁혀 자치권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이상적이지만,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주관리 능력을 키우는 데 따르는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자주관리는 엄격한 자기부정을 내용으로 삼고, 상호 비판을 연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고, 또한 고통을 인간적인 기쁨으로 여기는 조직적인 방향과 윤리가 우선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 지속적인 과제

짧은 글 속에 대부분 문제제기만 했을 뿐, 왜 그런가를 따져볼 여유도 없이 글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현 대중운동의 실천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검증하면 많은 모순이 존

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전통적인 조직을 분석한 글은 있어도 새롭게 생겨난 대중운동의 운동조직론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또한 이 글을 쓴 또 다른 이유는 기존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대중은 무지몽매하다’는 변함없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대중사회에서 발생한 대중운동 그 자체에 엄연히 존재하는 근본적인 모습을 인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대중운동이 아닌 대중 그 자체를 평균적으로 취급하여 전위적이라 불리는 기존의 조직에 계열화시키려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직과 운동의 명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 해답은 우리가 스스로 인간임을 느끼는 과정 속에서 찾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미리 결정해 놓지 말고 그 가능성을 다양하고 근본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

박재일 | 한살림 회장

한살림운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17년이 됐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하면 농산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비가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이 길을 모색하다보니 농산물 거래라는 게 딱 걸립디다. 시장에 가보니까 도저히 그게 안 된다는 게 느껴진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도시 사람들과 농촌 사람들이 기존 농사 방식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즉 소비자에게는 어떤 농산물이 공급되어야 하는가,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농산물을 어떻게 생산하고 또 농산물의 정당한 가격 실현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가를 서로 공유하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의견을 모아 해결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기존의 관행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생산자와

* 2000년 생산자 연수 자료집에 실린 원고를 2003년에 다듬고 수정한 글.

소비자가 함께 직접 만나서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직거래를 생각한 것인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개념이 정확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거래라고 했을 때 그것도 결국은 사고판다는 개념이 들어 있는 것인데, 제가 생각한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딱 나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와 인간관계를 바꿔내자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공산품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는 모두 팔고 사는 관계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경제적인 관계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상반됩니다. 소비자는 보다 싸게 사려고 하고 생산자는 보다 비싸게 팔려고 합니다. 결국 둘 중 하나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대립관계가 한참 가면 어떻게 하든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밥상을 살리는 일이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로는 불가능합니다. 소비자의 밥상살림과 농업살림은 둘로 나뉜 대립 관계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즉, '생산과 소비가 하나'라는 관점에서 출발했을 때 필요한 것을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 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농산물 직거래 운동, 도농 간 삶의 연대, 공동체운동 등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같이 모여서 생산자는 밥상을 살리고 생태계를 살리고 땅도 살리는 생명의 농업, 즉 유기농업 운동을 해나가고, 소비자는 그 운동이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소비를 책임짐으로써 농업도 지키고 건강한 밥상도 지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밥상살림과 농업살림을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것이죠. 농민 생

산자는 생산, 소비자는 소비 역할을 동시에 나눠서 하는 것이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주인으로 참여하는 한살림운동

이런 생각을 갖고서 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서울에서 86년 12월 4일 동대문구 제기동에 '한살림농산'이라는 직판장을 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회원제 운영도 아니었습니다. 직판장에 다 생산물 갖다 놓고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생산을 한 것이니까 자유롭게 이용하시라는 정도였습니다.

20평 되는 점포를 임대해서 시작했는데 한 일주일 있어도 사람들이 안 와요. 그냥 왔다가는 사람에게 한살림을 시작한다는 홍보물을 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오기도 오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상하다 생각하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물건을 보면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배추는 벌레가 먹어 구멍이 뽕뽕 뚫려 있으니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파니까 '참 웃기는 놈들도 다 있다'는 표정으로 외면해 버리고 말더군요.

이렇게 처음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운동을 해 오면서 사람들에게 대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바쁜 세상이고 삭막하게 돌아가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정말로 사람이 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뜻밖에 참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손님이 뜸하긴 했지만 저희의 참 뜻을 이해하기도 하고 좋은 의견도 나누면서 한두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일 년 반쯤 지나니까 매장을 거쳐 간 사람들이 한 1,500세대,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10% 정도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직판장에 공급한 물품은 쌀을 중심으로 한 열 가지밖에 안 되었습니다.

계속 하다보니까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이 운동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다 협동조합방식이 떠오른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한살림공동체 소비자협동조합'으로 했다가 '한살림생활협동조합'으로, 그리고는 지금의 '사단법인한살림'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협동조합 방식의 한살림운동은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한살림운동은 우리 밥상과 농업을 살리고 나아가 온 누리의 생명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기초적으로 먹을거리와 밥상을 살리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살림은 밥상을 차리는 소비자와 생산하는 생산자가 같이 주인으로 참여해 함께 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생산자 회원, 소비하는 소비자 회원이 다 같이 회원으로 참여해 같이 꾸려나가는 형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한다

농산물을 다루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을 생산

하다보면 생산자는 보통 9월이나 10월 초에 수확을 합니다. 몇 가마를 수확하든 생산하면 이를 일거에 팔아야 영농비와 생활비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밥상 차리는 소비자가 일 년 먹을 밥상을 하루 아침에 차리고 364일은 밥상 차리지 않아도 된다면 몰라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생산은 일시에 되는데 소비는 일 년 내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생산한 쌀을 누가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초기에는 생산자 회원들이 해결했습니다. 수확이야 한 번에 하지만 관리는 일 년 내내 해야 되니까 고생이 많죠. 그러나 꾸준히 소비만 되면 힘든 것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죠.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는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생산은 계획생산을 하고 소비는 책임소비를 해나가는 역할과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이런 관계와 목표를 정하고 회원들이 모여 일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일단 물건이 올라오면 대금을 빨리 생산자에게 보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를 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 가치가 사람가치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가치, 생명 가치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경제 가치는 이의 보조 수단이 되는 관계로 생각을 한 것이죠. 우선 회원이 되려면 자금을 출연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자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5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3만 원을 출자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자금은 물품구입, 사무실 얻는 돈, 배달차량 구입, 기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정으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만든 게 88년 4월 21일이었습니다. 그때 참여한 회원 수는 70여 명이었고 모인 돈은 약 78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죠. 지금 현재 회원 수는 매년 늘어나 2003년 11월말 현재 서울에만 4만9천 세대(전국적으로는 7만3천여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회원들이 출자해서 모은 돈은 45억 원 정도에 이릅니다. 출자금에 제한은 없지만, 회원이 되려면 3만 원 이상의 출자금은 내야 합니다. 출자금이기 때문에 서울에 살다가 이사를 간다든지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든지 해서 탈퇴를 하게 되면, 출자한 돈을 환불해 드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살림살이를 꾸린 후에 매년 결산 총회를 하는데 차량비나 인건비 등 운영비와 모임이나 산지 방문 등 행사하는 데 드는 비용 등 전체 예산을 다 제하고 남은 돈은 다시 회원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완전히 공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필요한 자금은 충당을 하고 다음 해의 생산과 소비 계획을 짭니다. 생산계획을 예로 들면 쌀농사는 가을에 추수하고 12월 중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모여 의논을 합니다.

증가한 회원 수를 감안하여 내년도엔 쌀 소비량이 몇 천 가마가 될 것인지 계산을 합니다. 그게 곧바로 생산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계획량을 생산자 회원들이 의논해서 산지를 배정하고 계획 생산을 합니다. 일 년이 지나 수확한 쌀을 도시에 있는 소비회원들이 책임소비 합니다. 그런데 계획한 대로 책임소비가 딱딱 들어맞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3천

가마 예상했는데 살림살이를 해보니까 2천9백 가마만 소비를 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농사가 안 되어서 2천9백 가마밖에 생산을 못해 100가마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합니다만, 모든 물품이 다 그렇습니다.

17년 전에 출발했을 때는 10개 품목밖에 안 되었지만 현재는 생산력도 높아졌고 품질도 높아져 많이 발전했습니다. 처음 3~5년 계속 노력을 해오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땅도 살아나고 생산도 증가됩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자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귀하구나,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수확량이 떨어지지만 지력이 자꾸 회복되니까 생산량도 늘어납니다. 안전성 뿐만 아니라 품질도 굉장히 향상됐습니다. 요즘은 쌀 같은 경우는 시중에 나오면 다른 일반미 못지않게 잘 나갑니다.

초기에는 형편이 없었습니다만 겉보기에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개선시켜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가공품까지 합쳐서 일 년에 약 450여 가지의 물품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도시 소비자 회원들은 한살림 생산자 회원들이 생산해 내는 것만 가지고도 시장을 보지 않고 밥상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산하는 삶과 소비하는 삶이 연계를 긴밀히 해가면서 하다보니까 하나하나 목적인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딸기가 한창 익을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 자고 나면 100kg 따는 것이 200kg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남은 100kg을 한정된 소비자 회원이 갑자기 먹을 수가 없잖아요. 딸기는 며칠만 두면 망가지기 때문에 가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딸기잼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공품들이 자꾸 개발되고 늘어나서

350여 가지가 된 것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나눔의 행사를 통해 신뢰를 돈독히 한다

이런 과정이 여러 해 동안 진행되다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나 관계도 달라집니다. 현재 한살림 회원들은 일반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지 못합니다. 이 물건을 사도 괜찮은 것인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 소비자 회원들은 생산자 회원이 생산한 것에 대해서 이런 불안감을 갖지 않습니다. 믿고 안심하고 사는 것이죠.

저희는 '한살림'이라는 소식지(물품정보 포함)를 한 달에 두 번씩 발행합니다. 시기마다 나오는 생산물과 가격의 변동, 그리고 이 품목은 누가 만들었다는 것이 이 소식지에 나옵니다. 직접 찾아가던지 전화를 하던지 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축적되니까 불신이 견힙니다. 일단 약속이 되면 바로 생산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와 농촌을 따로따로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 관계도 바뀝니다. 만약에 태풍이 몰아치면 소비자 회원들이 생산자 회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태풍이 왔는데 사과 어떻게 됐느냐? 다 떨어지지 않았느냐? 홍수 때문에 벼가 어떻게 됐느냐? 사람 다 친 데는 없느냐?" 식으로 자기 일처럼 걱정하고 안부까지 묻습니다. 도농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쌀 생산하는 지역은 5만여 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이 부락들은 삶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우리의 농업

이 이런 식으로 계속 도시에 의해 피폐해지면 농촌사회가 깨집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공동체마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농촌과 도시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회가 아니라 삶을 얼마든지 함께하고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단지 물품만이 오고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직접 왕래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생산자는 농사를 지으면서 도시에 있는 우리 회원들 얼굴을 떠올립니다. 도시의 소비자 회원들은 짝이든 수박이든 딸기든 수확물을 먹을 때, 우리 생산자 회원들의 얼굴과 삶을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직접 생산지를 방문해 생산자를 만나고 농사체험도 하고 서로를 알아 가면 저절로 생각이 나게 됩니다.

직접 해보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0여 년 전만 해도 소비자 회원들이 벼 베기를 많이 했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면 소비자 회원들이 전부 낫을 쥐고 직접 거둬들입니다. 평생 처음 낫질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억에 남고 생산자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수확 철에 논에서 메뚜기가 생겨나면 아이들하고 메뚜기 잡으러 오라고 연락을 합니다. 농약 준 논에는 메뚜기가 별로 없지만 저희 생산자 회원들은 모두가 유기농을 하기 때문에 그때만 되면 메뚜기가 천지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한바탕 어우러져 노는 거죠.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배추 등 채소를 심어 났는데 일손이 부족해 자꾸 풀이 자라면 김매기를 도와주러 갑니다.

또 하나 음력 5월이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자리에 모여 파종의 기쁨을 나누고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단오잔치한마당'을 엽니다.

5월 단오는 사실 모 심는 문화 축제였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거든요. 이것을 다시 살리려는 것이죠. 그래서 89년부터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도시 소비자들이 어느 생산지 하나를 정해서 갑니다. 옛날처럼 그네도 만들고 여러 놀이도 즐기며 마을 사람들과 소비자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단오 문화행사를 합니다. 이런 문화행사는 더욱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한 번 행사에 참여하고 나면 사람들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또 추수가 끝난 후 10월말이 되면 도시에서 농촌의 생산자를 초청해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한 해 동안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인 '한살림 가을걷이 잔치 한마당'을 엽니다. 말하자면 장터 같은 형태죠. 각지 생산자들이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갖다 전시도 하고 음식을 만들기도 해서 소비자들과 함께 무사히 수확을 할 수 있게 한 모든 이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이것도 89년도부터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의 행사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곁들여 합니다. 우리 문화의 의미도 되새길 수가 있고, 재밌게 장을 벌립니다. 우리가 처음 이런 장터를 할 때는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못 봤는데 요즘은 많은 곳에서 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 뜻이 변질만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살림에서는 산지 방문과 도시의 장터 행사라는 나눔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살림이 하고 있는 중요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운동은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후세들에게 좀 일찍 빌려 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자

식들에게도 그런 생각들을 일러줘서 그들이 살아갈 환경과 생존 터전을 제대로 가꾸도록 가르쳐 주어야 하죠. 그것이 미리 빚내서 쓰고 갈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시 아이들은 자연에서 떨어져 있어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귀한 아이들을 위해 저희는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 방학 때 '한살림 생명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생산지를 한곳 정해서 3박4일 동안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논 댐 시기엔 논도 매보고, 풀도 뽑아보고 감자도 캐보고, 소꼴을 베어서 소에게 먹여보기도 하는 등 농사 체험도 하고, 생태관찰도 하고,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협동생활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자연을 온몸으로 체험해 보는 기회는 또한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 매우 유익합니다. 게다가 그곳을 갔다 온 아이들은 자연에 대한 이해가 어른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핵심적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함께 뒹굴고 놀아 본 아이들은 친구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혼자서만 놀던 아이도 친구들과 같이 놀 줄 알게 되기도 하죠.

먹을거리운동은 공동체운동과 환경운동으로까지 확대된다

어쨌든 우리 농업이 잘 보존되고 발전되어서 식량자급을 완전히 이뤄내야 하겠지만 워낙 국토가 좁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같은 기본적인 기초식량은 충분히 자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생산자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의 삶이 농업에 대한 협력적인 삶으로 나아가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농업이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 돼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 밥상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흙 자체도 죽어 결국에는 생산하고 싶어도 생산이 안 되는 심각한 사태가 올 것입니다. 비료와 농약만 마구 치면 땅은 얼마든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맘껏 생산해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화학비료에 의존하던 농사는 더 이상 증산이 되지 않고 땅만 망가져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아무리 비료를 쏟아 부어도 되질 않습니다. 고작 30~40년 만에 이런 상태로 와버렸어요.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기초식품 생산은 농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 전체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안보 문제입니다. 북한 보세요. 안보가 보장되고 있습니까? 철통 같아 보이던 안보가 먹을거리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면초가가 되었죠. 그와 같은 먹을거리 기초식품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농업방식이 보급되고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환경보전형 농업'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이 하나로 힘을 모아내는 공동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를 실현하는 데에는 생산자들이 할 몫이 있고 소비자들도 할 몫이 있습니다. 이 몫들을 서로 나눠서 열심히 해나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살림의 경우가 바로 한 예입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든지 처음 하려고 하면 힘도 들고 발전은 느리지만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도 17년 전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호소를 해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들이나 와서 술이나 먹고 갔고 저희도 화가 나서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모여서 어느새 7만3천여 세대라는 규모가 되었습니다.

한살림을 이용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좀 복잡하죠. 일주일에 한번 정한 날에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조금만 나가면 없는 물건 없이 빠르게 진열되어 있는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들이 준비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편리해졌지만 저희는 주문을 해도 날마다 갖다 주지도 않고 4만 원 이상이 아니면 공급비용을 더 받아요. 몇 년 전에는 매장도 많지 않았고 다섯 가구 이상 공동주문을 하지 않으면 아예 갖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까닭은 단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게 단지 건강한 먹을거리를 먹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삶이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 간에도 서로 나누는 문화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런데 현재 도시의 문화라는 게 어떻습니까? 서로가 삶을 나눌 기회는커녕 파편처럼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20여 년 만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제가 떠날 때는 서울이 이렇게 않았거든요.

아파트가 엄청나게 생겼고, 길들이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아파트의 옆집과 옆집 사이의 두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하찮은 두께가 대단한 철용성이에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도 옆집 사람과 인사 정도는 하고 사는데 서로 부딪히는 기회가 없어 진짜로 몇 달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그래 얼마 전에 복도에서 만났는데 서로 나눈 인사말이 '오랜만입니다'예요. 바로 옆집 사람끼리 이런 인사말이 성립할 수 있는 건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한동에 100여 세대가 사는데 같이 이웃하며 살면서도 이웃이 없어요. 다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털어내기 위해 공동구매라는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이걸 하니까 물건을 주문하려면 옆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 어색하지만 자꾸 공동구매를 하다보면 자주 접촉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친한 사이가 됩니다. 친한 사이가 되니까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기쁨도 얘기하고 고민도 얘기하고, 그러다 좀 더 발전해서 서로 취미활동을 같이 한다든가, 아이들 글쓰기, 그림그리기 등을 부모가 돌아가며 가르쳐 준다든가 하면서 자체 모임을 만들어 갑니다. 그 모임이 커지면 지역공동체가 되고 지역공동체가 좀 커지면 지부가 됩니다. 그 지역에 사는 회원들이 지부를 만들어 말하자면 독립을 하는 것이죠. 현재 한살림서울생협에는 지부가 다섯 곳 있고 공동체(지역 모임)는 더 많습니다.

한살림 회원이 되면 공동체로 이용할 수도 있고, 개인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섯 가구 이상이 모여야 회원가입이 되었지만, 97년부터는 개인 가입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 가구 이상이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이용금액에 따라 우대혜택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1회 이용금액은 4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그래야 공급하는 비용이 나옵니다.

17년 전만 해도 강남 쪽에 가면 길은 넓고 차는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형제들이 차를 몰고 나가면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죠. 이제는 너무 많이 막혀 일하기가 곤란할 정도예요. 그리고 주부들의 사회활동 기회가 늘어나면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문도 못하고 개인 주문도 못하는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지역점포를 만들었습니다. 2003년 현재 고양을 포함한 수도권에만 과천, 분당, 일산, 전농 등 19곳에 있습니다. 공동주문, 개인주문, 매장판매 등 세 가지 형태로 물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되 중심은 공동주문 공급방식입니다.

저희 소비자 회원들은 또한 여러 가지 환경운동도 합니다. 90년부터는 우유팩을 모아 1주일에 한 번 공급 나갈 때 모아 와서 그것을 제지회사에 가서 휴지로 만들어 재활용했습니다. 이후에 환경부에서도 분리수거 한다고 하여 계속 할 필요가 없어서 그만두었습니다. 용기도 재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재활용을 합니다.

산지에서 나온 물품 병을 회원들이 깨끗이 닦아 다시 물류센터에 보내면 물류센터에서 수집해 다시 산지로 보냅니다. 폐식용유 같은 것도 하수구로 흘러보내면 한강물이 굉장히 오염되기 때문에 분리수거해 비누를 만들었고, 나중에는 '협성생산공동체'라는 곳에서 젊은 노동자들이 모여 재생비누를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은 다시 한살림에서 받아 회원들에게 공급합니다. 이런 환경운동 및 재활용운동을 하다 보니 행정부처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조금 지원을 해주면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하는 일을 맡겠다고 제안하게 된 것이죠. 몇 군데 아파트단지를 선정하여 그곳에서 배출되는 음식

물찌꺼기를 직접 수거하여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장으로 보내어 바로 사료로 직접 활용하는 실천운동도 했지요. 이렇게 직거래 운동은 환경운동으로 나아가고 또 정부를 바꾸는 일로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생명가치관에 따른 환경농업만이 살길

한살림운동은 밥상차림 운동으로부터 시작했지만 밥상살림과 농업살림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밥상살림과 농업살림을 통해서 우리 삶과 운동을 생명살림 운동으로 변화시켜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세상은 온통 물질과 돈과 출세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생명가치에 중심을 두고 생명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삶을 바꾸어 가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바꾸고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도 바꾸고 농사도 그런 세계관에 따라 짓는 생명살림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유기농산물을 취급한다니까 관이나 협동조합, 농협 등에서 상당히 백안시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생각이 좀 뼈딴하지 않느냐, 속이 빨강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은 세상이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아남아 국제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격경쟁 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환경도 살리고 국민의 건강도 보장해 주는 농업, 즉 질적으로 맛도 뛰어나고 안전성도 있는 농업, 이것이 바로 앞으로 미래

를 열어갈 농업입니다.

지난 98년 11월 14일 '환경농업 육성 보전을 위한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동안 환경농업육성을 위해선 법이 필요하다 해서 관련 단체들이 모여 이뤄냈습니다. 99년 1년 동안 환경농업육성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시행령을 작업했습니다. 작년 11월 14일 날 시행령이 발표되어 이제 환경보전형 농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습니다.

14년 전만 해도 우리의 일에 대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는데 지금은 정부가 함께 나서서 법도 만드는 그런 세상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 때는 주위 분들도 직거래 운동에 대해 자문을 구하면 필요하기는 하지만 고생스럽고 가능성이 있겠냐 하며 말리기만 했습니다. 그런 일을 저희들 같은 미련한 사람이 그야말로 소처럼 미련스럽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한강의 둔치 같은 넓은 공간에서 직거래를 위한 문화장터 한번 열자고 해도 허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운동을 지혜를 갖고 열심히 해 나가면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갈 수 있지 않겠냐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운동이 산업주의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 여러 절망적인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살림운동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 상 국 | 한살림 전무이사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인가?

1. **한살림적인 삶과 문화를 창출하여 한살림적인 사회**, 즉 「한살림선언」이 추구하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즉,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현 공업 산업문명 속에 위기를 맞고 있는 온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였다.
- 한살림의 의미는 내 생명을 살리고 사는 일처럼 온 우주생명을 살리고 함께 사는 일. 상생과 공존, 순환의 이치로 한 몸처럼 모든 사물과 사는 일.
-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고, 살려내려 하는가?
 - 가치관: 생명 중심 가치관
 - 세계관: 생명세계의 존재 질서(상생과 공존, 상호의존, 순환 등)대

* 한살림서울생협 창립 자료집, 2003

로 모든 사물과의 관계를 가짐

- 생산양식: 자연 생태 순환시스템에 따른 지속 가능한 생산, 유기순환적 농업
- 생활양식: 공경(敬天, 敬人, 敬物)과 삼감, 아낌과 보살핌, 나눔과 섬김
- 실천사상: 식일완 만사지(食一碗 萬事知, 밥 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이치를 알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된다.) “온 우주 생명체의 협동활동을 통해 밥이 만들어지듯 이 밥을 먹는 사람의 삶도 더불어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 어떤 실천 전략으로 세상을 살리려 하는가?

- 의식과 삶의 양태의 전환 및 변혁을 통한 삶, 문명 양식의 전환 및 변혁. 자기로부터의 변화, 이웃의 변화 지역의 변화를 통한 보편적 대안을 삶의 모습으로 제시하는 문화적 전략
- 생각과 삶의 변화, 새로운 사람의 탄생, 사회와 세계변화
- 내가 삶으로써 세상을 살린다. 생명의 먹을거리 생산과 나눔, 삶과 사회변화
-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

2. 모든 사람이 한살림적인 삶을 살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사회가 될까?

- 생명가치관과 세계관에 입각한 생활재의 생산양식이 이루어지고
공경과 치유와 살림의 생활을 하는 사회
- 단순 소박하게 사는 협동과 자치의 사회

- 지역 순환적인 생태농업이 튼튼히 뿌리내리며, 온 생명이 평화롭게 사는 농심의 세상

이 세상 실현을 위한 중간 목표로 우리는 한살림 생산지가 농약 없는 마을, 생태적으로 사는 마을, 나아가 시군 단위 전체가 한살림 이념에 따라 사는 농촌지역 건설을 각 도마다 최소한 한개 지역씩은 만들어 도시적 문화, 공업 산업 문명관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현장 학교구실을 하게 함과 동시에 사회적 대안으로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10만 명 회원 규모가 되면 최소한 2개 지역은 만들어보자는 희망을 3년 전에 공유한 바 있음).

어떤 조직틀을 가지고 일하는가?

1. 한살림서울의 조직형태 변화 역사

1986년 12월 4일 제기동에서 ‘한살림농산’이라는 이름의 쌀가게 형태로 한살림이 시작할 때의 운영형태는 박재일 현 회장님의 개인 소매점 형태였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어떤 형태의 조직모습을 갖는 것이 한살림 이념을 잘 실현할 수 있을가에 대한 연구를 했다. 한살림회로 하면 어떨까, 한살림소비자협동조합으로 하면 어떨까 등을 놓고 이런 저런 장단점과 실현가능 여부를 따져봤다. 당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많았는데, 농협으로 대표되는 협동조합 모습이 관제 어용의 이미지로 많이 비추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소비자협동조합도 일반 슈퍼마켓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선뜻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선택하는데 머뭇거림이 있었다. 그러나 협동조합운영원리 자체는 한살림 이념을 수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틀이어서 한살림이 한국의 소비자협동조합의 모습을 본래의 협동 원리,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협동운동으로 변화시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가지고 1988년 4월 한살림공동체 소비자협동조합으로 조직 틀을 갖추게 되었다. 쓰고 버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소비자라는 단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려고 조직명칭을 약칭 ‘한살림 공동체’라 부르기로 했었다. 당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 법인격을 갖는 지역조합을 설립할 수 없어서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가 재정부로부터 받은 법인단체의 지부적인 성격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다.

1993년 한살림 생산자조직과 한살림모임(한살림 사상연구)을 하나의 조직운영 틀 속으로 통합하면서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을 ‘한살림생활협동조합’으로 변경했다. 이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이 우리나라에서는 공식 조직 명칭으로는 처음 사용한 것이다.

세무서에서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 감사를 하는 과정에, 흑자가 발생한 한살림이 독립조직으로 있었다면 세금을 내야 했는데 실제로는 지부가 아니면서 중앙회의 지부로 사업을 하여 세금을 내지 않은 것(당시 대부분 지역소비자협동조합이 중앙회의 지부로 사업을 하고 있었

는데 대부분 적자운영을 함에 따라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의 전체 재무상태는 적자로 나타나 모든 지역 소비자협동조합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음은 탈법 행위나 다를 바 없다며 벌금을 부과하고, 3개월 내 모든 재산을 중앙회로 귀속시켜 실제로 지부가 되거나 독자별도 법인설립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에 사단법인 설립을 요청하여 지금까지의 조직들(사단법인 한살림)을 운영해 오고 있다. 주변상황 변화에 따라 이 같은 조직의 운영 형태로 변화하면서도 협동조합의 기본운영 원리에 충실해 왔고 사업내용과 운영 또한 일관되게 밥상살림, 농업살림을 바탕으로 온 생명이 더불어 사는 세상살림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에는 변함이 없었다. 생활물자 교류에 있어서도 생산과 소비의 분열, 대립적 일반관행을 호혜적 관계로 통일시켜내는 사업 방식에 충실하려고 노력해 왔다.

2. 왜 또 다시 우리는 조직을 변화를 하려 하는가?

그동안 한살림서울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했던 사단법인한살림(전국 한살림 대표기능)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해 왔던 한살림서울이 다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1999년 제정)에 근거한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한살림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한살림 각 부문 영역들의 규모가 늘어나고 살림살이 내용도 여유가 생겨 분화와 전문화(한살림운

동의 풍부화)가 이뤄지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한살림이념 아래 통일성을 기해가는 체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생산자회원의 자주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전국의 한살림 생산자모임 결성, 생명사상의 심화와 다양한 전개방법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과 살림연구소 설립(예전의 한살림 모임의 임무 수행), 수도권 지역의 조직확대와 효과적 운영을 위한 한살림고양의 분화, 물류 효율화를 통한 지역 한살림운동의 지원을 위한 한살림 사업연합 설립이 그것이다.

- 각 지역 한살림과 이러한 부문의 일을 한 방향으로 조정하고 지원, 협력, 교류하는 전국적 기능을 하는 조직들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끝에 법적으로 전국 조직의 틀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사단법인 한살림으로 하고, 사단법인 한살림에서 한살림서울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 사단법인 한살림이 법적으로 각 지역 한살림마다 독립 운영할 수 있는 법인격을 가질 수 있으면 현 체제 속에서도 다양한 영역을 운용할 수가 있는데 독자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지역독립회계를 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
- 한살림서울이 가질 수 있는 조직틀로서는 주식회사 아니면 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한 법인격이었는데, 한살림 성격이나 실제 운영 가능한 틀로서는 생활협동조합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다. 나아가 앞으로 도시지역에서의 한살림운동의 틀은 한살림서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생활협동조합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모았다. 이 같은 일련의 변화는 생활협동조합법이 설립되어 있어서 가능한 일이 되었고, 9년 만에 서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름을 다시 붙이게 되었다.

3. 정관상 어떤 변화가 있는가?

- 명칭: 사단법인한살림 ⇒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목적: 본회는 유기농산물과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직거래운동을 전개하여 농업과 자연생태계를 살리고 더불어 사는 생명살림 운동의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합은 생명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생산한 먹을거리 등 생활용품을 생산자와 직접 교류하며 모심과 살림의 생활양식 변화를 위한 다양한 협동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순환농업이 튼튼히 자리잡는 더불어 사는 생명살림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합원(회원)의 자격: 한살림운동 취지에 동의하는 생산자, 소비자, 법인, 기타 단체로 한다. ⇒ 사단법인한살림 회원으로서 서울 및 인근 도시에 살거나 활동하고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나 단체로 한다.
- 사업의 내용
 - 한살림 운동의 확산을 위한 회원확보와 기금 조성사업
 - 회원간의 유기농산물 및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유통 촉진사업
 - 회원을 위한 유기농산물 및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가공사업
 - 생태계 보전 및 자원재활용 활동
 - 지부 사업 및 활동의 지도협력
 - 상기 사업을 위한 조직, 교육, 홍보, 조사 및 연구활동
 - 기타 한살림 목적에 필요한 제반활동

- ㉠ 농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그 가공품 및 환경 물품(재활용품, 재생용품, 환경친화용품 등)을 구입하거나 이를 가공 공급하는 사업(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법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가공품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품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 중고품을 수리, 보수하여 공급하는 사업, 환경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 표시 사용 인증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
- ㉡ 생활에 필요한 공동 이용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보육시설, 양로시설, 의료시설, 기타 다중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 생활개선 및 교육, 문화,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주부대학, 취미 교실 등 사회교육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예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실 등 생활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여행, 스포츠 등 여가사업, 기타 생활 개선 및 교육,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 ㉤ 생산자, 생산자 단체, 문화단체 등과의 공동경제사업 및 생활 개선 사업
- ㉥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운영원리

1. 소비자협동조합의 일반적인 뜻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더 나은 생활,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뜻을 같이하고 협동적 활동을 함께 하기로 하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협동조직을 말한다(더 나은 생활이란 어떤 것을 말하고, 무엇을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지에 따라 조합사업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고 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모든 소비자협동조합 조직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도 동일한 것은 아니다)

2.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운영원리

소비자협동조합의 기본운영원리는 농협, 수협, 신협 등 일반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와 같은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 민주주의의 원리 1인 1표의 철칙을 핵심으로 하여 일반적 민주주의를 더욱 깊이, 더욱 넓게
- 자발성의 원리 가입과 탈퇴가 자유이어야 한다는 것
- 자치의 원리
- 공정의 원리 잉여금의 공정한 배분, 일체의 특권을 부정, 편견, 편파, 비인간성 배제
- 상호성의 원리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한 협동

- 보편성의 원리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모두가 함께 하는 것
- 발전의 원리 발전이 없으면 현상유지도 어렵고 존재의 의의는 상실되는 것

3. 협동조합의 운영원칙

- 가입과 탈퇴의 자유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든 사람에게 문호는 개방
- 민주적 관리 조합원은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과정에서 1인 1표로서 동등하게 참여, 선출된 임원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지고 봉사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본조달(출자)에 공정하게 참여하며 자본을 민주적으로 관리 - 출자액에 따른 제한적 배당, 잉여금 일부의 적립을 통한 협동조합의 발전,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 제공,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여타의 활동을 위한 지원
- 자율과 독립 자치와 자립-다른 조직과의 관계나 자본 조달을 함에 있어 민주적 관리와 조합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당해서는 안 됨.
-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조합원,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제공,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
- 협동조합간의 협동 지역 및 전국, 국제적으로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한살림서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란?

(소비자라는 단어가 한살림운동의 의미에 비추어보면 삭제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생활협동조합법 제정과정에서 기업체로부터 소비자보호라는 의미로 소비자협동조합을 이해하는 정부 당국자의 이해폭을 극복하지 못한 채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붙일 수밖에 없다.)

서울이라는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한살림 회원들이 한살림 이념을, 밥상을 살려내는 데서부터 실천하여, 지역생태농업을 살려냄으로서 이 땅에 온 생명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농적 문명의 기틀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적인 틀을 소비자협동조합으로 한 것이 한살림서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한국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현황

통칭 생협이라고 말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우리나라에 4가지 유형이 있다.

- ① 초기의 소비자협동조합의 흐름을 이어오면서 일본의 소비자협동조합의 모델에 충실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는 생협전국연합회에 가입되어있는 63개 조합
- ② 생협전국연합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별도의 생협연대 조

직을 만들어 가고 있는 ‘한국생협연대’ 가입 생협 41개(전국의 물
류, 공급을 통합, 조합비제로 경비조달, 활동은 지역적으로, 사업은
통합효율성으로 운영 원칙)

③ 지속가능한 생태적 생활양식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는 농업을
살려내기 위한 생활협동운동의 틀로서 협동조합 운영원리를 갖고
있는 곳: 한살림,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천주교 우리농공동체, 경실
련 정농생협, 한울생협 등

④ 여성민우회처럼 여성운동의 한 부문 사업으로 하는 생협

한살림은 앞으로 위와 같은 생협조직들과의 관계를 (가칭)한살림생협
위원회 같은 전국기구를 만들어(어느 집단에 지역한살림별로 개별 관
계를 하지 않고) 연대할 사안이 발생하면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조합원을 중심에 둔 조직운영을 위하여*

모심과 살림의 생명운동을 지향하며

윤 희 진 | 한살림서울 조합원활동실

조합원 주체성은 한살림을 한살림답게 하는 내면의 힘이다

한살림 생협 안에서 ‘조합원 주체성’이란 말은 쉽고 하고 어렵기도 한 개념이다. 지식의 가르침으로 이해하면 아주 간단하다. 마치 우리가 ‘한살림’이라는 말을 쉽게 쓰고, ‘당신이 바로 한울님이다’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조합원 주체성이라는 것이 실제로 조직(세상)에서 온전히 실현되기란 그리 간단치가 않다. 대단한 내면의 힘이 필요하다.

조합원 주체성은 한살림(운동)을 하게 하는 힘이다. 내가 한살림을 하는 것도, 조합원들이 한살림을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모두 이 조합원 주체성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 한살림 실무자연수 자료집, 2004

보이는 활동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조직의 힘의 원천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앞으로 한살림이 생명운동의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더구나 조합원 주체성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 글에서 ‘조합원 주체성’이라는 말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는 생협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조합원(협회의 조합원 주체성)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체성, 개별자들의 주체성, 대중들의 주체성(광의의 조합원 주체성)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생명운동의 전제에는 모심이 있다

1. 신령하고 무궁한 우주생명을 모신 인간

생명운동이 기존의 사회운동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생명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김지하 선생은 반복하여 ‘신령하고 무궁한 우주생명을 모신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하고 있다. 즉 ‘모심’이다. ‘모든 존재, 삼라만상은 그 안에 무궁한 우주생명의 생성을 모시고 있음으로 해서 사는 것이고, 모시지 않은 것은 살 수 없으며, 산다는 것은 곧 우주생명의 생성을 모시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김지하 선생은 이와 같이 모든 생명운동의 전제가 되고 있는 ‘모심’을 테야르 드 샤르댕의 현대진화론과 수운의 모심 해석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풀어나가고 있다.

2. 모심에 대한 과학적 해명

고생물학자이며 신부였던 테아르 드 샤르댕의 현대진화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화의 내면에는 의식의 증대가 있고(inward Consciousness) 2) 진화의 외면에는 복잡화가 있으며(outward Complexity) 3) 군집은 개별화한다(Union differentiates). 그런데 테아르 드 샤르댕의 이와 같은 내면 의식, 외면 복잡화, 그리고 개별화라고 하는 우주 진화의 세 법칙은 놀랍게도 수운 최재우 선생이 말하는 모심 해석과 일치하고 있다. 즉 1) 안으로 신령이 있고(內有神靈) 2) 밖으로 기화가 있으며(外有氣化) 3) 한 세상 사람이 서로 옮겨 살 수 없음을 각각 깨달아 실천한다(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테아르 드 샤르댕과 수운의 우주진화 법칙과 모심 해석을 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

첫째는 드러난 질서로서의 기화(복잡화)활동에는 언제나 숨겨진 질서로서의 신령(의식화)의 활동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진화의 과정에는 반드시 개별화 과정이 등장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수운의 각지(各知; 각자 나름대로 알아서 실천한다)의 대상이 불이자(不移者; 옮길 수 없는, 분할할 수 없는 우주의 총체적 유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모심 해석, 그리고 우주의 진화 법칙이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리고 조합원 주체성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자.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시대는 진정 변하고

있다. 그 변화의 흐름을 아주 예민하게 느껴보라. 이 시대는 정보화, 창조화의 시대임과 동시에 개별화의 시대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집단 의식은 지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누구라도 부처가 되고 예수가 되고 하느님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중들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를 통과하여 삶의 개인적 성취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한다. 많은 자기개발 프로그램들이 ‘~가 아니라면(너무 늦지 않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

생명운동에서 강조하는 개인들의 영성적 삶의 성취를 일반 대중들은 자아실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자아실현이란, 쉽게 말해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 또는 자신이 자기 우주의 창조자요 주인임을 알고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중들의 주체성, 개별자들의 주체성, 조합원 주체성으로 표현되는 것이며, 주민자치운동의 기본적 원리가 되는 것이다.

3. 모심에 대한 윤리적 해명

수운은 시천주 해석에서 ‘주’에 대한 해석을 ‘칭기존이 여부모 동사자야(主者 稱其尊而 與父母同事者也)’라고 하였다. ‘님’이란 것은 높이 불러 부모와 더불어 친구로서 사귀고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격·비인격, 생명·비생명을 막론하고 ‘님’으로 높여 부르며 부모를 대하듯이 공경하면서 동시에 친구와 같이 수평적으로 사귀되 함께 창조적인 일을 동역한다는 뜻으로 이는 모심의 윤리적 해명이요, 동시에 모심의 파트너십에 대한 해명이라 말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일상 속에서 모심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와 같은 윤리적 태도로서의 모심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한살림 조직 안에서 실무자와 조합원과 임원들과의 사이에 이와 같은 모심의 태도가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을까? 가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우리는 사실 ‘모심’이라는 말을 ‘살림’이라는 말만큼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 공경보다 좀 더 큰 공경,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물론 이 정도의 이해만으로도 크게 부족함은 없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모심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우주 생명 원리로서의 모심을 주체적으로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원리로서의 모심과 윤리로서의 모심은 생명의 안팎과 같은 것이다. 상대를 무궁하고 신령한 우주생명을 모신 존재로서 깊이 자각하지 않는 모심의 태도는 쉽게 권위와 복종의 형태로 변질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존경, 진정한 감사, 적절한 정보, 합당한 인정, 이러한 것을 현대문명의 생필품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향상시키고 일을 더 잘하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매진하도록 동기를 주는 근본적인 에너지이다. 상대에 대한 공감과 사려 깊음은 그것이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치유와 안식의 힘을 풀어놓는다.

한살림 안에 조직의 윤리로서의 모심, 조합원과의 관계에서의 모심, 실무자와 조합원 간의 모심, 모든 업무와 활동에서의 모심, 이런 것들을 대범하게 실천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살림운동 주체로서의 조합원

살림은 생명운동에 대한 정의를 빌려 말하자면 ‘모심을 전제로 신령한 생명을 살려내며, 그 흐름에 따라 자기의 생활을 바꾸며 심화시킴으로써 이웃들과의 교감과 화해, 자연과의 친교, 생활의 심화, 이를 끝없이 예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진정한 살맛을 획득해가는 것’이다.

그러나 ‘살림’이라는 말이 현재의 한살림 조합원의 언어가 되려면 살림은 각 개인의 살림살이 즉 가사노동을 뛰어넘어, 생활과 일치하는 생산, 생산적 생활, 생활적 생산이라는 개념으로 빠르게 도약해야 한다. 살림이라는 말은 ‘생산’과 ‘생활’을 지역에서 하나로 연결해주는 핵심 개념이 될 수 있으며, 지역의 경제와 지역의 활동들을 표현할 수 있는 지역의 말로 정리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살림은 바로 지역 자립이요, 지역 주민자치활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살림운동, 지역운동의 구체화에 대해서는 연수 뒷부분에서 별도로 진행시켜 나가리라 생각한다. 다만 이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지역운동의 진정한 주체는 지역에서 생활과 생산을 영위하고 있고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 그 중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젊은 주부들이라는 것이다. 한살림도 앞으로는 (지역)살림운동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나는 주민자치활동이고, 또 하나는 회원자주관리사업(워커즈컬렉티브 사업)이다.

조합원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직의 선결과제들

1. 의식의 자기조직화, 창조적 진화의 기틀 마련하기

생명의 가치,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 조직의 지향들을 꾸준히 만들고 키워나가는 공부모임이 필수적이다. 이 공부모임은 조직의 방향을 움직이는 거대한 잠재력이며 활동가를 키워내는 의식의 창조 공간이다.

⇒ 공부모임을 누가 조직할 것인가? (정신적 리더의 역할 생각해보기)

⇒ 공부모임을 통해 조합원은 엄청난 의식의 확장과 자기만족을 경험한다.

2. 의사소통 구조 만들기: 생명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조직 내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기구(이사회)와 집행구조(실무자사무국, 조합원사무국) 간의 소통, 이사회와 조합원 간의 소통, 조합원과 조합원 간의 소통, 사무국 간의 소통에 대하여 꼼꼼하게 생각해야 한다. (소통이 가장 안 되고 있는 공간은 어디인가?)

⇒ 의사소통의 중심은 누구인가? (정치적 리더의 역할을 생각해보기)

⇒ 의사소통의 핵심은 무엇인가? (정직과 책임: 보고·연락·총괄의 습관화)

3. 조직의 목표 세우기: 정책은 어떻게 세우는가?

조직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목표 세우기이다.

우리 조직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정말 하고 싶은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조직의 역사와 경과를 잘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 ⇒ 경영적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가?
- ⇒ 정책 수립에 있어 적절한 절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합원을 중심에 둔 조직운영의 구체화에 대하여

1. 조합원조직 만들기

- 1) 기초 생활 조직: 조합원 모임을 활발하게, 꾸준하게, 광범위하게
동네모임, 소모임, 직장모임을 활발하게 만들고 운영하기
대중들을 만나고 경험하기(소개모임)
- 2) 다양한 위원회들의 결합
생협 안에서의 다양한 이슈를 조직화하기
다른 단체들을 만나고 경험하기(연대활동)
- 3) 이사회, 이사장
 - ⇒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 이사장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인가?
 - ⇒ 리더들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정신적·정치적·경영적 리더)

2. 조합원 활동을 풍요롭게

1) 조합원 활동가 양성

모든 일은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잘 어우러질 때, 거기에는 반드시 자유롭고 창조적인 공간이 생겨난다.

⇒ 현재 조합원활동가가 한 분도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2) 지속적인 활동 보장

활동비에 대해서 고민하자. 조합원 상호 간에 이해할 수 있는 활동비의 기준을 마련하자.

⇒ 활동비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은가?

3) 조합원활동은 조직운영과 떨어져 있지 않다

조합원을 생각하는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

조합원을 생각하는 물류와 그렇지 않은 물류

조합원을 생각하는 매장과 그렇지 않은 매장

조합원을 생각하는 공급과 그렇지 않은 공급

조합원을 생각하는 주문 상담과 그렇지 않은 주문 상담

조합원을 생각하는 조직 활동과 그렇지 않은 조직 활동

.....

모든 것을 대입해보라. 얼마나 다른가?

3. 조합원노동은 지역을 향해가는 노동이다

한살림 또는 생협에서의 조합원 논의는 이제 많은 발전을 하였다.

초창기 생협에 있어서의 조합원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나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협에 가입하고 이용하였으나, 점차 생협이 지역사회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나가면서 조합원의 활동 역시 지역사회를 향해 꾸준히 확장해왔다고 판단된다.

조합원노동은 바로 생협 또는 한살림이 지역사회와 만나는 그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조합원노동이 좁게는 생협 내 조합원노동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넓게는 지역 안에서의 새로운 노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합원노동은 조합원의 자기실현 또는 자기표현의 연장에서 진행될 때 자신의 본래적 의미(조합원활동의 연장으로서의 노동)를 잃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조합원주체성을 전제하지 않는 조합원노동은 시장의 논리대로 임금노동과 같등하거나 아니면 비정규노동으로 자신을 한정지으며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조합원들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조합원노동은 앞으로 한살림이 성장해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한살림과 지역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그러하다. 한살림이 지역의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지역의 살림살이를 실질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상당 부분 조합원 노동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이라는 공간은 생산과 분리된 생활공간으로 그 의미를 한정지어 왔지만, 지금은 생활 공간이 다시 생산 공간으로써 의미를 갖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직장이 아닌 생활에서 발견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생존의 문제를 넘어 자아실현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한국도 일본처럼

럼 개호보험이 실시될 것이다. 이제는 사람을 돌보는 일이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전환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과연 누가 맡아서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안심하고 사람을 맡길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고민해나가면 좋겠다.

조합원노동을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임금노동과의 혼란과 갈등은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각 조직마다 조합원노동에 대한 경험도 다르고 해결 방법도 물론 다를 것이다. 하지만 기본은 역시 조합원 주체성이 보장된 노동 구조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무리

한살림은 자기 운동의 화살 방향을 어디로 둘 것인가? 묻고 또 묻고 또 물어보자. 마음이 스스로 그 답을 알 때까지 말이다. 조합원은 조직의 마음이며, 잠재력이며, 대지와 같은 존재이다. 당신이 조합원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은 무엇인가? 아마 그 신념대로 조합원을 경험할 것이다.

‘조합원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놓치지 말자.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양만큼 조합원은 성장하고 운동한다. 우리 조직에서는 누가 과연 그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 고민을 아무도 진지하게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조직은 단언컨대 자기 성장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를 조직하는 내면의 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원 주체성은 결국 한살림이라는 조직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

락이면서 동시에 조직의 내용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진정한 내면의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그것은 소비자 조직에 한해서 뿐만 아니라 생산자 조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제 실무자가 할 일은 그러한 주체들을 잘 모시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을 더욱 일할 맛이 나도록 만들어가는 실무자들의 진정한 주체성이 아닐까. 아름다운 모심은 언제나 힘찬 살림을 이끌어가는 추동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

참고문헌

-
- 김지하, 『생명학1·2』 (화남), 「모심·살림·고리」 (모심과살림연구소)
데이비드 호킨스, 『의식혁명』 (한문화)
테야르 드 샤르댕, 『인간 현상』 (한길사)

한살림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실천 과제*

한살림 20년의 평가와 전망

윤 형 근 | 모심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들어가며

21세기를 10년 앞둔 1989년 10월 발표된 「한살림선언」은 ‘생명’이란 화두를 잣대로 환경파괴와 전쟁으로 점철된 20세기 인류사를 반성하고 21세기 인류의 삶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었다. 선언이 발표되기 몇 해 전인 1986년 한살림운동은 그 이름을 처음 내걸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실현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삶의 소재인 농산물을 매개로 ‘생명’의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실천하고자 했던 한살림운동은 민중민주운동이 중심이던 당시 사회운동으로서는 상당히 낮은 것이었음에 틀림없었다.

그로부터 스무 해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생명’이란 화두는 대안을 찾는 거의 대부분의 사회운동에서 궁극적 지향이 되었고, 운동의

* 2007 한살림생협학교 학습 자료집

소재이던 유기농산물도 이제 일반 시장의 대형할인매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이런 경향은, 시대적 조류에 따른 것이고 다양한 사회운동의 노력이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한살림운동이 사회적으로 던진 의미와 역할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만은 확실하다.

하지만 처음 내걸었던 문제의식이 사회적 공동의 자원으로 보편화 되어 버린 이상, 한살림운동이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더해나가기 위해서는 시대에 던지는 화두를 더 선명히 하거나 새 길을 찾아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한살림운동의 현황과 지금까지 운동의 성과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앞으로 과제로 삼아야 할 내용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

한살림운동의 현재

한살림운동은 친환경 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이란 현장의 실천운동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실험을 거쳐 지역 단위조직은 생활협동조합으로, 통합된 물류시스템은 주식회사라는 외형으로, 그리고 전국을 통합하는 운동체는 사단법인으로 그 형식을 갖추고 있다.* 거기에 전체 생산자를 아우르는 생산자모임, 운동의 방

* 물류시스템인 한살림사업연합은 주식회사라는 형식적 틀을 갖고 있지만 생산자 조직과 소비자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조합 성격을 띠고 있다. 사업연합은 2002년, 전국조직은 이전에는 지역한살림의 협의회 형식으로 존재하다가 한살림서울이 분리된

향을 모색하는 연구소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흙살림, 물살림 등 내 외각의 다양한 조직들이 사단법인의 회원조직으로 포진해 있다. 가장 중추가 되는 사업은 역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과 농약, 화학비료로 오염된 땅을 살리기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공급·소비하는 일이다.

1. 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으로서의 한살림

지역한살림은 2007년 5월 현재 전국 19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서울, 청주, 원주, 대구, 경남, 강릉, 부산 등이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창립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그 나머지 대전, 광주, 청주 등 조직은 2000년 이후 생겨난 신생조직이다. 이 지역조직들을 합쳐 회원수는 2006년 말 현재 13만여 명, 공급액 930억 원, 참여하는 회원들이 직접 마련한 자본금인 출자금의 액수는 110억 원에 이르고 있다.

1986년 농산물 직판장 성격의 한살림농산을 출발로 1년 반 정도의 조직 과정을 거쳐 1988년 서울에서 생협이 창립된 이후 한살림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해마다 회원수, 공급액 모두 30% 이상의 고성장을 보여 왔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환경생태 위기 및 먹을거리 등 생활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또한 1996년 물류센터 준공으로 물동량 확대, 물류업무의 체계화, 전문화를 통해 제한된 물품, 열

2003년 사단법인으로 정착되었다.

악한 품질, 불안정한 공급체계 등을 보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2005년 이후 공급 적체로 인해 다소 성장 둔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취급 품목을 확대하고 웰빙 바람이 휩쓴 2004년에는 무려 43.2% 증가세를 나타냈다.

〈표 1〉 전국한살림 조직 및 사업 추이 (2007년의 경우는 추정치임)

년도	회원수(명)	공급액(천원)	출자금(천원)
1988	1,545	400,255	
1990	5,548	1,791,870	
1995	17,460	9,908,490	
2000	31,511	18,475,050	1,938,234
2001	41,031 (30.2)	27,189,800 (47.2)	2,401,525 (23.9)
2002	60,363 (47.1)	37,822,556 (39.1)	3,453,157 (43.8)
2003	76,680 (27.0)	49,482,247 (30.8)	4,720,060 (36.7)
2004	99,761 (30.1)	70,874,999 (43.2)	7,593,553 (60.8)
2005	115,851 (16.1)	80,932,609 (15.3)	9,513,968 (30.6)
2006	132,787 (14.6)	93,592,257 (15.6)	11,787,539 (23.9)
2007	152,900 (15.2)	107,780,618 (15.2)	14,300,000 (21.3)

* 사단법인한살림 제20차 정기총회 회의자료,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한살림에서 취급하는 물품이 거의 대부분 친환경 유기농산물과 이것을 원료로 한 가공품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다소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살림의 2004년 공급액은 농림부가 추정한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5,500억 원의 12.8%에 해당하는 양이다.* 수입 유기농산물이나 유기식품이 급증하고, 초록마을, 신시 등 유사매장의 등장은 물론 CJ의 프레시안, 풀무원의 올가, 삼양사의 구텐모르겐 등 대기업 자본이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친환경 유기농산물 시장에

*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조사 결과>(농림부, 2004.8)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 전망이지만, 그래도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한살림은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12% 내지 13%를 점유하는 무시 못 할 존재였다.

2. 생활협동운동으로서의 한살림

한살림의 각 지역 단위조직들은 ‘생활협동조합’이란 조직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각종 화학물질, 독성물질에 오염된 밥상을 살리기 위해 회원과 조합원들이 스스로 출자하여 자본을 조성하고, 그 자본금을 바탕으로 생활협동사업, 즉 유기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출자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살림 운영에 참여하고 또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주체가 된다. 한살림이 생협이란 형식을 취한 것은, 참여자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구매력을 결집함으로써 사회적 권력(power)을 발현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생활협동운동을 전개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한살림 이외에도 생협전국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한국생협연합회 등 연합조직에 속한 95개 조합들이 있다. 한살림은, 이들 가운데 조합 수로는 전체

*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한살림이 생협이라는 조직틀을 취한 데는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강점 때문이었다. “첫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낮고 병충해, 기상변화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예약소비처 없이는 친환경유기농업을 시도하거나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생산비가 일반농산물보다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생산자가 가격 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사정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래형태가 되어야 재생산이나 지속적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소비자 입장에서 생산자와의 직접 교류를 통해 생산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갈 수 있고, 친환경유기농업이 지향하는 가치관과 기본적인 생각을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친환경유기농산물은 일반농산물 가격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데 시장경쟁가격에 영향을 받는 소비자들의 친환경유기농산물 구매의사를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해가기 위해서는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래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조완형(2005), 「우리나라 생활협동조합운동의 실태와 과제」)

95개 중 18개로 18.9%, 조합원 수로는 전체 20만 명 중 11만 5천여 명으로 57.4%, 공급액 면에서는 49.6%, 출자금은 5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면을 볼 때 한살림은 친환경 유기농산물 시장에서나 생활협동운동 영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한살림이 1980년대 후반 이후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식품오염에 민감해져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는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고, 이를 결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 생협조직별 조직 및 사업 현황

연합회명	회원수 (생협)	조합원수 (명)	총사업고 (백만원)	출자금 (백만원)
한 살 림 생 협	18	115,336	79,402	9,531
한 국 생 협 연 합	46	32,922	43,110	4,546
두 레 생 협 연 합	15	34,627	27,179	1,687
여 성 민 우 회 생 협	4	12,077	6,653	468
Y M C A 생 협	8 (3)	3,600 (2,404)	2,500 (1,697)	150 (100)
전 북 생 협 연 합	4	2,200	1,200	90
합계(평균)	95	200,762	160,044	16,472

주1) 〈2006 생협통계〉 생협전국연합회 (2006년 6월), 이것은 2005년 말 현재 통계이다. 집계 과정의 문제로 위에 인용된 한살림의 통계자료와 약간의 편차가 보인다.

주2) 전국연합회 회원 데이터는 생협전국연합회 회원생협 통계 중 지역 회원생협의 통계로 조사된 33개 조합의 평균데이터이며, 생협전국연합회 회원생협은 한국생협연합회, 여성민우회생협을 제외하고 각각 각 연합회에 회원이 중복되어 있다.

주3) YMCA 생협의 () 안의 데이터는 두레생협연합회에 중복 가입된 생협의 데이터임.

3. 한살림의 생산기반과 농업, 농촌

한살림에는 2천여 농가가 생산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농산물 시장 개방의 추세 속에 위기를 느낀 생산자들의 참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생산자들은, 5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생태지역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아산시한살림생산자연합회를 비롯하여 홍천생산자연합회, 당진 매산리공동체, 괴산 솔피공동체, 의성 청암공동체, 울진 방주공동체, 상주 갯머리공동체, 청주공동체, 보은 백록동공동체, 부여 청마공동체 등 20여 개의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 생산지들에서 주곡, 잡곡, 채소, 과일 등 180여 품목의 친환경 유기농산물이 생산되고, 이들 1차 농산물을 가공한 과자류, 면류, 건강식품류, 가공곡류, 양념류, 음료 등 230여 품목의 가공식품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이런 직거래 사업을 바탕으로 한 해 5천여 명 이상의 도시 소비자들이 일손돕기, 견학, 단오잔치 등 행사를 통해 생산지를 방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도시와 농촌을 잇는 도농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또한 단오잔치, 가을걷이한마당 등을 통해 자연의 순환 질서에 따른 세시풍속과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름과 겨울의 생명학교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느끼고 생명의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주곡 등 주요 생산물의 가격 결정은 매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협의하여 결정함으로써 국가 소유와 규격을 토대로 한 계획경제, 사적 소유와 가격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모델로

협의경제를 실험하고 있다.* 아직 자리가 잡힌 것은 아니지만, 생산 안정기금 설치를 통해 급격한 기후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농업생산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특히 500여 명의 생산자가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산에서는 경종, 축산, 가공부문을 통합적으로 결합하여 지역 복합의 물질순환 농업시스템, 즉 지역농업을 바탕으로 한 대안적 생명지역 형성을 실험하고 있고, 최근에는 획일적으로 계량화되는 친환경농업 국가인증 시스템을 넘어서 물질순환과 농업의 생태적 가치를 평가하는 한살림 독자의 인증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한살림운동의 사회적 의미

사회적으로 드러난 유기농산물 직거래와 생활협동조합이라는 한살림운동의 모습 이면에는 생명사상이 있다. 즉 지금까지 한살림운동은, 유기농산물 직거래의 생활협동운동과 함께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이에 입각한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를 내건 생명문화운동의 두 바퀴로 전개되어 왔다. 초창기에는 이 두 측면이 별도의 조직으로, 별도의 실천양태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대개 상호보완적인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생명문화운동은 일상적인 직거래운동이나 생협운동을 실천의 양식으로 삼았고, 직거래운동이나 생협운동은 생명문화운동이

* 나카무라 히사시(1995), 『공생의 사회 생명의 경제』, 윤형근 역, 한살림

** 생명문화운동을 주로 담당하는 한살림모임은 「한살림선언」을 발표하고 1989년 10월이 창립되어 활동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1995년 한살림생협으로 통합된다.

제시하는 이념적 지향을 실천 속에 담아내려고 노력해 왔다.

이런 특성은 한살림운동이 사회에 던진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는 있는데, 농민운동이나 직거래운동, 생협운동을 생명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문명전환의 차원으로까지 승화시키는 동력이 된다. 먹을거리를 매개로 일상적 삶 속으로부터 자율·자치를 실현하고 또한 건강한 먹을거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농업을 살리며 자연과 조화하는 생태적 대안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새로운 문명 창조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1. 농민운동의 차원 변화

한살림은 농민운동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강원도 일원 농촌과 광산 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운동과 협동운동을 전개하던 원주캠프*와 가톨릭농민회 운동을 전개하던 일군의 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지금까지 농민운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농민운동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던 것이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1960~1970년대 추진했던 도시화, 산업화, 근대화의 경제 개발 프로젝트는 철저하게 농촌의 희생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농촌을 해체시켜 농민들을 이농시키면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었고, 그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가의 곡물 정책을 펴으로써 농촌과 농민은 이중의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이런

*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불렸던 원주에서 장일순과 지학순 주교를 중심으로 모인 운동가들의 그룹을 사람들은 원주캠프라고 표현하였다. 김지하(1999), 『사상기행2』, 실천문학사

정황 때문에 농민운동은 생존권 투쟁,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피해 보상 투쟁에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한살림운동의 주창자들도 농민 생존권 투쟁의 핵심에 있었다. 하지만 농촌의 해체가 한참 진행 중이던 1970년대 후반 이후 권익을 중심으로 한 투쟁의 한계를 직감하고, 가치 변혁의 새로운 차원의 운동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그것은 농업이 역사 이래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통합적 관계를 통한 생명공동체의 기반이었는데, 경제 개발과 근대화의 과정이 이 기반을 송두리째 뿌리 뽑고 있다는 자각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즉, 농민들이 소득을 위해 농약과 제초제, 화학비료를 남용하는 것은, 설혹 그것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필연적인 산물이라 하더라도, 인간 삶의 기반인 생명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자기비판을 근거로, 생명공동체의 회복을 새로운 농민운동의 방향으로 삼았던 것이다.

새로운 운동은 유기농업을 통한 자연과 인간의 공생,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협동적 삶의 실천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그것은 도시적 풍요가 아니라 물질 순환이 완결될 수 있는 생태지역의 형성과 농업을 바탕으로 한 소박한 공동체적 삶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었다.

한살림이 제기한 새로운 방향의 농민운동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고조된 생태환경 위기에 대한 자각과 맞물려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고, 농업이 지니는 자연과의 공생, 농업을 기반으로

* 원주캠프처럼 한편에서는 협동을 통한 자립, 자구의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경향도 꾸준히 전개되고 있었으나 대정부 투쟁이 농민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한살림운동은 굳이 계보로 따지자면, 그 지역사회개발운동, 협동운동의 맥락 속에 있었다.

한 협동적 삶의 실천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경쟁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부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세계화에 따른 대농 중심의 농업 정책, 농업 개방에 따른 수입 농산물 오염에 대하여도 소농을 통한 유기농업과 생태지역농업의 구상, 건강한 먹을거리의 생산·유통·소비의 신뢰 시스템을 사회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즉, 한살림운동은 인간 보편의 통합적 가치를 지닌 생명공동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민주화운동 이후 농민운동이 새로운 사회적 공공성을 획득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던 것이다.*

2. 생활협동조합의 차원 변화

소비자협동조합(이하 소비조합)은 자본주의 초기의 열악한 노동조건, 지속적인 보장이 없는 일자리, 장시간의 노동, 값싼 임금으로 인해 비참한 삶을 영위하던 노동자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협동의 힘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싼값으로 공동구입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점이었다. 사실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광고를 통해 인간의 욕구를 조작하여 대량소비를 조직하는 공급자 중심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자본에 의해 이중적

* 가치 변혁 중심의 농민운동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권익 중심의 사회운동은 그 주체가 사회적 약자였을 때는 사회적 공공성이 부여되지만, 최근 대기업 노조처럼 주체의 조건이 변화되었을 때는 집단이기주의로 전락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농민들은 늘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지만, 시장경제에 포섭된 농업, 그 담당자인 농민은 이미 이 조건을 벗어나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로서의 권익보다는 사회 변혁의 공공적인 가치를 농민운동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생활협동운동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으로 이용당하면서 자본의 축적을 돕는다. 이런 맥락 속에서 소비조합은 사회적 약자로서의 소비자의 권리, 즉 소비자 주권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었다.

한국 사회에 소비조합이 탄생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과 거의 같은 맥락 속에 있었다. 1977년 최초의 소비조합으로 설립된 동해탄광 조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필품의 조달이 어렵거나, 값싸게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농촌이나 광산촌에서 소비조합은 처음 결성되었다. 그리고 그 후 도시 지역의 구판장 형태로 급속히 확산되어 1989년에는 전체 조합수가 90개에 이른다.

하지만 이후 급속히 퇴조를 보이다가 결국 1997년에 이르러 모두 파산해 버린다. 그 이유로는, 첫째, 농촌, 광산촌에 설립된 소비조합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마을 구판장 수준으로 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교통수단의 발달과 농촌 인구의 감소로 그 존재 의미를 잃게 되었으며, 둘째, 도시지역의 구판장 형태의 소비조합은 대형 할인매장의 등장으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였고, 조합원의 구매력 결집과는 상관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슈퍼와 다를 바 없었고, 그마저도 매출부진으로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점을 들 수 있다.**

한살림운동은 생명사상이라는 이념적 바탕을 가지고 사회 변화와 소비자들의 욕구를 예견하면서 소비조합이 갖는 한계를 직시하고 생

* 지금까지는 최초의 소비조합이 1979년 설립된 강원도 평창의 신리조합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스무살 한살림 세상을 껴안다』에서는 동해탄광 조합이 최초의 조합으로 기록되어 있다.

** 박상신(2004), 『생활협동조합운동(1987-2002)』, 시민운동 15년사, 시민의 신문사

활협동운동의 새로운 차원을 기획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간다. * 사실 최초의 소비조합인 동해탄광 조합도 한살림운동의 원류인 원주캠프의 지역사회개발운동의 맥락 속에 있었다는 점**은 한살림이 소비조합, 생활협동조합이 갖는 협동의 힘을 충분히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지만 한살림운동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소비 영역이 갖는 국소적 한계를 직시하고 자연의 물질순환 과정 전체를 운동과정 안으로 포섭해낸다. 즉, 생산자 농민과 도시 소비자가 계약을 통해 생산된 물품을 전량 소비하는 신뢰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동시에 이 생활협동운동을 근거로 환경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인 자연의 물질순환 과정, 생산에서 폐기, 분해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한살림운동 안에 조직해 내고 있었던 것이다.

한살림은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자본주의 사회가 지니는 공급자 중심 시스템에 대하여 소비자 주권을 내건 소비조합의 의미를 넘어서 ‘농업’이 지니는 가치를 부각시키고 생산-유통-소비-분해(폐기)의 전 과정을 하나로 잇는 생태 사회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통경로를 단축함으로써 경비를 절약한다는 경제적 의미를 뛰어넘어 직거래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킨 점도 한살림의 빼놓을 수 없는 공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익명성을 전제로 한 현대사회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구조 속에서 농산물의 생산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의 관계망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자는 소비

* 생활협동조합이라는 용어는 생산-소비를 통합하는 생(명)활(동)을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이라는 보다 확장된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를 중심으로 한 한살림 이후 생활협동운동은 이전 소비조합과 구분하기 위해 생활협동조합이나 약칭 생협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 김영주 선생 대담, 무위당 선생을 기리는 사람들의 모임 홈페이지,
<http://jangilsoon.com>

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도농 공동체, 도시-농촌 연계의 생명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농민운동에 대한 한살림운동의 문제제기와 마찬가지로 경제가치를 중시하는 권익 위주의 생활협동운동이나 직거래운동을 가치 변혁 중심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거기에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점들이, 한살림운동이 현재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중심으로 정착된 생활협동운동을 선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3. 생활협동운동을 통한 자치의 훈련 - 민주주의의 기초 형성

한살림운동의 사회적 공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생활협동운동을 통해 자율과 자치를 훈련하는 터전을 마련한 점이다. 즉, 한살림운동은 먹을거리를 매개로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던 일상적 삶을 공공화하여 사회적·정치적으로 의제화함으로써 시민사회에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한계를 넘어서 참여를 통한 풀뿌리민주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근대적 주체 형성 실패의 역사를 딛고 참여를 통한 근대 시민사회의 가능성을 열고, 또 한편 서구 근대에 의해 비주류로 전락한 주부와 농민을 역사의 주체로서 부각함으로써 탈근대 대안의 전망을 제시한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 생활협동조합은 의료생협, 대학생협 등을 제외한 모든 구매생협이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생활협동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처음부터 농업살림을 내걸고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생활협동운동을 전개한 한살림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생활세계의 부상(浮上)과 시민운동

지난 20세기를 통틀어 한국사회는 자생적 근대화의 좌절과 근대적 시민의식 형성의 실패를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오랜 식민지 경험과 더불어 군사독재에 의해 타율적으로 추진된 산업화, 근대화의 과정은 근대국가와 시장의 규칙(rule)을 스스로 만들고 제어해야 할 주체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30여 년에 걸친 군사독재 정권이 급속한 산업화·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자유·인권을 포함한 사람들의 생활세계는 무시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다. 중앙 통제를 통한 생산력 중심주의, 경제성장 제일주의가 그동안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심적인, 거의 유일한 동력이었다. 급속한 근대화의 과정은 전통사회의 동질적 지역 공동체를 급속히 해체시켰다. 문제는 사람들이 전통 공동체를 대신할 대안적 결속원리를 마련하기 위한 시간적·정신적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는 데 있었다. 독재정권의 압제 아래 경제성장의 기본방향에 문제제기를 할 수도 없었고, 따라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공공영역은 형성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사회운동도 필연적으로 물리적 억압과 정치적 배제에 대한 저항운동, 그리고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축으로 하는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산업화·근대화의 산업역군으로 국가와 시장에 의해 도구화된 존재로 자리잡게 되고, 한편에서는 돈에만 의존하는 개인의 사적 공간으로 침잠해 버리게 된다.

1987년 이후 부분적이기는 했지만, 민주화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국가와 시장의 영역에 대한 견제력과 발언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사회운동, 시민운동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중앙집중적 발전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는 “새로운 목소리들은 자율성과 정체성, 참여와 자치를 주장하면서 작은 조직과 네트워크식 조직 양식으로 참여의 과정 자체를 중시하면서 생활세계와 삶의 세계의 일상적인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부각시켰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식품공해, 주택문제, 교육 및 시민생활에 대한 시장과 국가 개입의 강화, 건강의 문제, 군사적 파괴의 잠재력, 핵발전소, 핵폐기물, 개인의 신상 자료의 중앙적 통제와 오용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터져 나오게 된 것이다. 국가의 논리, 시장의 논리에 억압되었던 ‘생활세계’가 사회운동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생활세계의 이슈를 문제삼기 시작한 시민운동은 “민주화된 체제 안에서 기존의 사회시스템을 인정하면서 더 많은 참여와 올바른 공공정책”, 사회 시스템을 공정하게 유지하는 규칙(rule)을 형성하는 데 주력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시민들이 형성되며, 또한 이들이 바로 시민운동 성장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2) 한살림 생활공동체를 통한 자율과 자치의 훈련

하지만 지나간 근대 100년의 식민지 경험과 군사독재의 중앙 집중화 과정의 폐해는 우리의 뱃속까지 파고들어 있었다. 우리 사회에는 불편 감내와 타성의 문화가 보편화되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극단적 수동성이 만연해 있었다. 이 수동성의 문화가 자율적 공공영역의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돈에만 의존하는 사적 공간(밀실)의 확장을 가져왔던 것이다.

백 년 이상 겹겹이 쌓여온 이 견고한 타율의 문화는 쉽게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십수년 가까운 사이에 시민운동의 성장이 괄목할 만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민 없는 시민운동’, 주로 각성한 지식인들, 전문가 그룹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타율과 수동성의 문화가 얼마나 견고한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돌파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결국 타율과 타치의 궁극적인 극복은 밀실로 숨어버린 개인의 삶과 사회(정치)의 연관을 찾고 개인의 소소한 일상적 삶을 광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 있다. 한살림의 등장과 그 성장이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그 돌파구를 열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농약과 화학비료, 각종 첨가물 등의 식품오염, 즉 자신이 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이웃들과 함께 구매력을 결집하고 유기농업 생산자와 연대함으로써 이러한 개인의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즉, 식생활이란 개인 삶의 영역이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타율적 근대화 과정을 통해 외부적으로 주어진) 정치와 시장이란 중앙화된 제도(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폐기의 경제과정)에 의해 조정되며, 그로 인해 왜곡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여 한살림을 통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새로운 시장의 형성)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식생활이란 개인 생활의 영역을 이웃들과의 생활공동체라는 광장을 통해 공공

*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일상의 문제가 공론의 장으로 기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시장과 권력으로 대표되는 지배의 기제가 더욱 유연해지고 갈수록 견고해져 ‘일상적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파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의 식민화’나 기든스의 ‘삶의 정치’가 등장하던 맥락도, 또한 이반 일리히가 교육과 의료, 가사노동 등 전통사회에서 자율적이고 자립적이었던 영역들이 시장에 의해 침식당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여겨진다.

화하고,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새로운 공동체 시장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한살림운동의 과정 자체가 타율과 타치(他治), 불편의 감내와 타성의 문화, 극단적 수동성의 개인을 깨치고 극복하는 자율과 자치의 훈련 과정이며,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식이 강한 지식인이나 전문가들이 아니라 평범한 생활인들이 생활 그 자체를, 민주사회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자율과 자치의 영역으로 재구성해 나가고 있는 셈이다.

한살림운동의 의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외부적 강제에 의해 주어진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시장이나 국가 시스템이 남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한살림운동은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주부들이 주체로 등장시키고, 또 한편 근대화가 가져온 중앙집중화와는 달리 생활의 장인 지역이 운동을 이루는 지점이 된다는 점이다.

4. 지역농업을 바탕으로 한 생명지역의 창조

즉, 한살림운동은 인간의 삶에 대한 각성을 바탕으로 생태적 물질순환을 이루고 자치의 공동체를 형성할 적소(適所)로 지역을 삼는다. 지역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즉 영성적 삶, 생태적 삶과 공동체적 삶을 조화롭게 실현함으로써 행복을 가져다주는 전일적 생명활동의 장이다. 무한경쟁이 지배하는 세계화 시대에 대자연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협동경제의 지역을 회복하는 것은 한살림운동의 최고 목표라

고 할 수 있다.

한살림은 그 구체적인 실천을 일정한 지역을 배경으로 생태적 경종 농업과 유기축산, 그리고 가공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지역농업 실현에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생명의 질서와 자연순환 원리에 입각한 생명농업을 마을과 지역으로 확산하고 경종-축산-가공을 연계하여 물질 순환을 지역적으로 완결시키자는 것이다.

아산 생산지가 그 단초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500여 명의 유기농업 생산자가 참여하는 아산시생산자연합회와 가공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푸른들 영농조합, 그리고 생산자들이 직접 소비자를 조직한 천안아산 한살림을 통해 생태지역농업의 희망을 구체화시켜 가고 있다. 현재 120만 평의 논, 100여만 평의 밭에 쌀과 밀, 콩, 그리고 50여가지의 제철 채소를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무농약 이상의 농사로 짓고 있다. 마을별로 반을 결성하여 작물, 파종 시기, 출하가격 등을 협의함으로써 자치를 실천하고, 100억 원에 이르는 생산물을 계약 생산하여 한살림으로 전량 출하하고 있다. 거기에 1990년대 후반 콩나물 공장을 시작으로 2000년에 농민들 스스로 주체가 된 푸른들영농조합을 결성하여 두부공장을 설립하고, 2005년에는 무농약 콩으로 두유를 생산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이들 가공영역에 연합회 회원들인 농민들 모두가 직접 출자하여 조직운영의 주체가 됨으로써 생산기반을 안정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벼와 밀, 콩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벃짚과 콩대, 그리고 그 가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찻겨와 밀기울, 또 두부나 두유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비지 등을 활용해 수입 곡물사료를

대체하여 경종농업과 유기축산을 결합하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생태지역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자신들이 생산한 유기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제공하고, 농민들의 노후를 대비한 실버타운을 계획하는 등 생명이 숨쉬고 사람들이 살 만한 통합적 지역에 대한 전망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것은 도농공동체 한살림의 한 축인 도시 소비자들의 신뢰와, 최근 들어 지방정부의 지원 및 친환경농업 아산 클러스터 선정에 큰 공을 세운 산학협동이 어우러져 이룩해 낸 성과였다. 더 나아가 한살림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마을공동체들도 지역농업을 바탕으로 생명지역을 창조하려는 크고 작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한살림은, 경쟁과 효율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진행과정에서 점차로 해체되고 있는 농업, 농촌의 위기라도 생명지역을 거점으로 농민과 소비자, 지방정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서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5. 역사적 뿌리와 전통의 계승

한살림운동이 일상을 공공화시키는 자치 훈련의 장이 되고 농민운동과 생활협동운동의 차원 변화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운동이면에 바로 생명사상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생명’이란 화두는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인간 소외가 심화되고, 생태환경이 파괴되며, 공동체가 해체되는 현상에서 연유한다. 그것은 특히 생명을 탄생시키고 기르고 보살피고 치유하는 주체인 농민과 주부들을 희생시

킨 현대 문명이 ‘생명’ 파괴의 문명임을 읽어내고, 농민과 주부들을 오히려 문명전환의 주체로 부각시킴으로써 폴뿌리 민주주의의 전망을 마련할 수 있었고, 유기농산물 직거래와 생협운동을 문명전환 운동으로까지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문명에 대한 진단과 대안의 제시가 가능했던 것은 한살림운동이 동학의 생명사상, 전통 민중문화,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1970년대, 1980년대 일군의 사회운동을 창조적으로 계승함으로써 생명사상을 구체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 동학의 생명사상과 농민혁명의 계승

우리 사회에서 생명사상은 서구문명이 동아시아를 전면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던 서세동점(西勢東占)의 시기에 동학(東學)사상으로 집약된다. 동학은 자연과 호흡해 온 농민들의 생명에 대한 감각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자본주의 등을 앞세운 서구 문명이 생명 파괴의 문명임을 직감하고, 농민이 지닌 땅의 철학, 생명의 포태자로서의 여성을 강조하는 생명사상을 통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려는 개혁운동을 전개한다. 그것이 현실로 구체화되었던 것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이었다.

생명사상으로서의 동학은 “해월 최시형이 말한 천지부모(天地父母)와 이천식천(以天食天)에 잘 드러난다. 해월은 하늘과 땅, 아버지와 어머니의 낱말은 비록 넷이지만 이것은 모두 하나로 볼 수 있어서, 천지가 곧 부모요, 부모가 곧 천지라고 말한다. 어머니의 포태는 천지의 포태이며, 어머니의 젖이 바로 천지의 젖이어서 어려서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고, 커서 먹는 곡식은 천지의 젖이다. 따라서 우리를 낳은 육신의 부모님뿐 아니라 큰 부모인 천지에게 효성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다 존귀한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니 이 세상에 생존하는 모든 생물은 한울님이 한울님을 먹고사는 셈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한울로써 한울을 먹는, 이천식천(以天食天)의 논리가 그것인데, 약육강식의 논리를 넘어서 생태계 순환의 원리를 종교적인 언술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의 근원인 밥이 햇볕과 공기, 물과 바람, 흙 속 미생물과 벌레들의 상호작용, 그리고 농부의 땀과 어머니의 살림 등 온 우주의 협동 속에 만들어진다는 해월의 “밥 한 그릇을 알면 만사를 안다(食一碗萬事知)”는 말은 만물의 유기적 연관성을 가장 민중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밥 한 그릇’ 사상은 한살림운동에 직접적으로 계승되어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동학의 자연생명에 대한 태도는 경물(敬物)에서 극치에 이른다. 해월은 경천(敬天)만 할 줄 알고 경인(敬人)을 할 줄 모르면 이는 종자를 두고도 땅에 심지 않는 것과 같고, 경천·경인만 할 줄 알고 경물을 할 줄 모르면 이는 도에 닿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며, 물을 공경함에까지 이르러야 덕에 합일될 수 있다고 말한다.

경물의 큰 마음은 결국 동귀일체(同歸一體)의 우주적 본 마음으로 귀결되며, 개별적으로는 생명의 그물에 대한 깨달음에 모아진다. 侍에 대한 수운의 해설 중 마지막 부분인 각지불이(各知不移)이다. 동학의 어법에서 ‘동귀일체’는 각자위심(各自爲心)과 대비해서 사용된다. ‘각자위심 하지말고 동귀일체 해라’는 식이다. 이때 각자위심이란 자기의 존재가 ‘각각 스스로(생명그물 속의 한 그물코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일컫는다. 나는

나고 너는 너, 사람은 사람이고 환경(동물, 식물, 생태계)은 환경일 뿐이라는 생각 따위가 그것이다.

다시 말해 ‘생명’ 사상으로서의 ‘동학’은 사람들이 원래는 알고 있었던(혹은 터득하고 있었던) 생명의 본성과 그 본성에 따른 삶의 양식이 문란해져서 각자위심한 것이 ‘쇠운’이라고 보고, 다시금 생명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동귀일체)이 후천개벽이며, 그러한 ‘성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이런 동학의 생명사상은 농민들에 대한 착취, 서구 문명의 앞잡이로서의 일본의 침략 등에 대해 사회적 변혁을 꾀한 동학농민혁명으로 구체화하면서 생명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개벽의 전망을 모색하였다.

한살림은 역사에서는 실패로 끝난 동학의 생명사상을 계승하여 천지부모의 파수군인 농민과 생명의 포태자로서의 여성을 주체로 또 다른 개벽, 생명가치를 바탕으로 한 문명전환을 기획하게 된다.

2) 민중문화의 창조적 계승

한살림운동은 한편 전통사회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민중문화, 1960년대 후반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그것을 부활시키려 한 민중문화운동의 전통을 계승한다.

196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하여 1970년대 사회적으로 깊이 뿌리내린 민중문화운동은 한편에서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잃어버린 공동체에 대한 회귀였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그 잃어버린 공동체성의 회복을 통한 독재정권에 저항할 근거이자 에너지의

* 주요섭(2001), 「東道東器的 환경담론을 위한 시론」, 환경과 생명, 2001년 가을호

원천이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전통사회의 민중예술이었던 판소리, 탈춤, 가면극, 무속, 대동굿, 두레노동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 민중들의 저항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당시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의 이미지를 강하게 각인시켰는데, 그 에너지는 철저하게 땅에 뿌리박은 민중들, 농민들의 대동성, 공동체성, 생명력에서 나온 것이었다.

전통사회의 민중예술은 대개 “노래와 춤으로써 하늘과 땅, 신령과 인간이 하나로 융합되어 새로운 생명과 문화를 창조하는”* 현상이었다. 민중들의 공동체적 노동인 두레에서, 혹은 공동체의 노래와 춤을 통해 체험하게 되는 신명은 우주 생명력과 교합된 상태로 확대된 자아를 말하며, 우주 생명이 인간 내부에 지퍼들어 자기 안에 우주가 확대되어 나오는 영성적 체험이다.** 즉, 전통사회에서 신명은 예술과 일상의 삶, 또한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인생 여정을 매개로 우리가 생명의 그물망으로서의 세계에 참여함으로써 인간과 자연과 우주가 조화된 문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제국주의의 침략과 근대화, 산업화의 20세기를 거치며 인간과 자연과 우주가 분열되고 도구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신명과 영성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상실해 버린 신명의 회복을 통해 잃어버린 공동체를 되살리려는 시도가 바로 민중문화운동이었다.

197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된 민중문화운동은 민중문화가 지녔던 생명력을 부활시키고, 그 문화의 기반이었던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의 공동체성을 되살리려는 기획을 통해 한살림운동으로 계승

* 유동식(1975), 「한국 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 출판부,

** 채희완(1996), 「한국 전통 춤의 생명 사상」, 『녹색평론』 96년 1-2월호(통권 제26호), 녹색평론사

된다. 민중들의 자연과 인간과 사회에 대한 신명(영성적) 체험의 뿌리였던 마을공동체는 생명공동체의 모습을 이미 그 안에 온전하게 담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한살림이 마을공동체를 생산기반으로 삼으며,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단오잔치나 가을걷이 한마당 등 절기에 따르는 세시풍속을 오늘에 맞게 재창조하고 영산줄다리기, 각종 놀이문화 등을 계승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이다.

급속한 사회 변화와 한살림운동의 과제

한살림운동에서 안전한 밥상 살림을 통해 농업을 살리고 자치와 생활협동의 공동체적 삶을 이루는 매개였던 유기농산물은 점차로 일반 시장에도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높아진 환경의식과 더불어 몇 해 전부터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웰빙(well-being)이나 로하스(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등의 문화코드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유기농산물의 소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난립하고 있는 유사매장은 물론이고 거대 자본들이 유기농산물 시장에 뛰어들어 대형 유통매장에서도 소비자들은 유기농산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외국산 유기농 식품 수입의 증가와 더불어 급속한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농민들이

* 이 문제의식은 민중문화운동의 주역이었고, 한국 생명사상의 최고 이론가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지하의 생명운동 초기 저작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김지하(1984), 『밥』, 분도출판사, 김지하(1985), 『남녘땅 뱃노래』, 두레, 1985

대거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면서 유기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환경은 한살림운동으로 하여금 대대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생명의 질서에 맞는 유기농업 생산을 확장하고 생태지역농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량적인 확대를 목표로 하던 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의 수익 모델에서 벗어나 한살림운동의 본래적 문제의식인 전일적인 대안의 삶을 창조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지역 모델을 구현하는 대안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더 부각시켜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1. 통합적 지역의 창조

현재까지의 한살림 직거래운동과 생활협동운동에서는 천지인이 조화되는 전일적 삶의 창조*를 위해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생태적 삶의 뿌리로서 농업의 육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다. 이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더욱 강조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살 만한, 살고 싶은 농촌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소비의 확장과 소득의 확대를 통한 생태적 삶의 뿌리로서의 농업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이런 희망을 실현하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농업과 농촌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창조적 진화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물질순

* 주요섭은 한국의 전통사상인 삼재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천-영성적 삶, 지-생태적 삶, 인-공동체적 삶으로, 이를 통합하는 것이 지역적 삶이라고 주장한다. 주요섭(2000), 「지역적 삶을 위한 생명운동의 정치적 상상력」, 『환경과 생명』, 2000년 가을. 윤형근은, <한살림선언>이 삼재론을 바탕으로 기계론의 산업문명의 대안으로 천지인이 조화되는 전일적 삶을 내세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형근(2004), 「한살림선언을 통해 본 한살림운동」, 『생명학』 강좌 자료집, 한살림서울.

한편만 아니라 영성 문화적 교감과 자치를 통한 공공영역의 창조가 통합되는 장으로서 지역에 대한 전망을 그려나가야 하는 것이다. 사실 아산의 지역농업도 총체적 구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수익모델 중심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대안은 바로 교육, 문화, 복지, 생태, 환경, 경제, 의료, 자치, 공동체를 포괄하는 지역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태지역농업에서 말하는 지역은 중요한 거점이다. 물론 물질순환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폭을 확장하여 지금까지 삶에 대한 각성, 그리고 자치와 공동체를 통합적으로 실현하는 전망이 필요하다.*

지역은 천지인, 다시 말해 영성 문화적 교감, 생태적 물질순환, 자치를 통한 공공영역의 창조가 통합되는 장이다. 나카무라 히사시의 표현대로, 지역은 전일적인 생명활동의 장이다. 전일적 삶의 창조는 지역 속에서 가능하다. 전일적 삶을(물론 세계로 열려져야겠지만,) ‘지역적 삶’이라 바꿔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이것은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도시도 농촌과 마찬가지로 천지인이 조화되는 전일적 삶의 창조, 즉 자립, 자치, 순환의 지역사회를 어떻게 구상할지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렇기에 현재 삶에 대한 각성, 생태적 삶의 뿌리로서 농업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 자기조직화의

* 이런 점에서 풀무학교를 중심으로 한 홍성, 홍동면, 문당리는 좋은 본보기이다. 만약 그렇다면, 농업과 농촌에 대한 한살림의 지원 체계도 달라져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생태지역농업이란 말이 생명세계를 地의 영역으로만 축소되어 인식된다는 면에서 방편적인 개념으로는 유효하나 천지인을 통합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 구분은 잠정적이고 방편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자율과 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창조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지역 자치는 한살림의 중요한 일감이며 실현해야 할 우선적 과제이다. 무엇보다도 자치의 바탕이 되는 조합원들의 자율성, 주체성이 한살림의 모든 사업과 활동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공동구입의 강화를 통한 사회적 권력의 형성

전일적 지역 창조의 바탕에는 유기농산물의 공동구입이라는 자율 자치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권력을 만들고, 그것을 경험한 생산자와 소비자 주체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물류사업의 효율화는 한편에서는 시장과의 경쟁 강화를 명분으로 유통의 비대화·관료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살림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지역에 밀착한 작은 단위들의 네트워크로 재편하고, 한편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연대와 ‘협회의 경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전국화 되어 있는 물류를 점차 지역 내 생산과 소비라는 지역물류시스템으로 전환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생활인들의 필요와 욕구를 자치적으로 조직해온 한살림의 조직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문명의 그늘로 인한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결집하고 이를 조직화하여 생활인들의 만남의 기회를 늘리고 다각적인 소통구조를 정립하여 구매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마을모임, 지역모임을 더 강화하여 조직력을 다지고 참가자들 사

* 하지만 도시는 생태적 삶의 뿌리로서 농업적 토대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 토대를 포괄하는 도농공동체의 형성,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한 농업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도시 지역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여기서 지역은 개념적으로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다.

이의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함으로써 기초 생활물품에 구매력을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웃들과 함께 생활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의식주는 물론이고 교육, 의료, 복지, 노동 등의 영역을 협동을 통해 자치하는 대안적 삶을 기획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3. 주체의 조건 변화와 한살림 활동의 확장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진전은 한살림운동의 주체인 농민의 삶을 궁지로 내몰고 또 한편에서는 주부들의 사회 진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즉, 농민들은 점차 고령화되어 이제 5년 뒤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가부장제 사회의 성별 역할 분업과 맞물려 주부들은 사회의 주류 남성들의 보조 역할인 비정규직, 파트타임 노동자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운동의 주체를 둘러싼 사회변화와 맞물려 한살림은 새로운 활동과 전망을 기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가치의 변화를 통한 귀향운동, 귀농운동을 통해 농업생산의 주체를 확충하고,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성장한 사회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지 문화를 풍성하게 가꾸는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주부들의 사회 진출이 사회적 협동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즉, 한살림을 통해 성장한 주부라는 사회적 자원을 대안적 지역사회를 창조하는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생협운동이 고령화 사회를 맞아 복지 위커즈의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를 재구성해 가고 있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조합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보신을 위한 고급스런 소비, 웰빙은 한살림이 극복하려던 풍요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은 소박한 삶, 자치와 협동의 삶, 자연친화적인 사람, 지역순환의 생태적 삶이라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제기하는 문화운동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살림운동이 유기농산물 직거래나 생활협동운동의 새로운 차원을 연 것은 사실이지만, 그 활동들이 갖는 위험성 중의 하나인 자족적인 조합주의에 언제든지 빠져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것은 일상적 활동 속에 한살림이 지향하는 대안적 삶과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끊임없이 사회화시키려는 정치기획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물품 하나, 소모임 하나에도 한살림이 지향하는 사회 변혁의 가치를 실현하고 그에 대한 자율적 학습, 의식화 과정,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학습은 한살림운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나오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살림운동은 ‘생명’이란 화두에 기초한 참여, 자치, 공생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기획하려는 선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한국적 맥락에서도, 군사정권의 돌진적 근대화를 토대로 경제성장에 성공한 한국사회가 대중소비 사회 속으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생태적 고려가 부재한

덕없는 낭비적 소비문화 확산의 한계를 지적하고, 또한 동시에 민주화, 정보화의 조짐이 등장한 시점에서 생명의 세계관을 토대로 한 새로운 인간 이해, 사회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뜻 깊은 것은 공동체적 존재로서 뿐만 아니라 생태적 존재, 우주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복권시킴으로써 사회운동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는 점이다. 즉, 자연에 대한 생태적 이해, 인간에 대한 양성적 이해를 근거로 운동 주체인 인간은 사라지고 객관적 역사 법칙만 남아버린 기존 사회운동, 또한 권익 중심으로 기능화 되어버린 협동조합운동 등에 대해서도 예리하게 비판하고, 그 대안적 실천을 모색하고 있었다.

특히 일상의 ‘밥’을 실천영역으로 하는 생활협동운동을 추진함으로써 구체적인 생활의 문제, 개인의 삶을 매개로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를 바꾸어나가는 운동방식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주변인이었던 여성과 농민들을 운동의 주체로 등장시켜 여성들의 ‘살림’, 농민들의 ‘땅’에 대한 감각을 운동의 핵심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은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이다.

하지만 한살림운동은 이제 또 다른 전환점에 서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이라는 도전 속에서 상품화된 유기농산물 시장을 넘어서 전일적인 삶과 대안적 사회의 전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참고문헌

- 김영주 선생 대담, 무위당 선생을 기리는 사람들의 모임 홈페이지, <http://jangilsoon.com>
- 김지하 외 지음(1990), 『한살림』, 도서출판 한살림, 1990
- 김지하(1984), 『밥』, 분도출판사
- 김지하(1985), 『남녘땅 뱃노래』, 두레
- 나까무라 히사시(1995), 윤형근 역, 『공생의 사회 생명의 경제』, 한살림
- 농림부(2004),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조사 결과」, 농림부.
- 모심과살림연구소(2006), 『스무살 한살림 세상을 꺼안다』, 그물코
- 문순홍 편(2000), 『생태학의 담론』, 솔
- 박상산(2004), 「생활협동조합운동(1987-2002)」, 『시민운동 15년사』, 시민의 신문
- 사단법인한살림 홈페이지, <http://www.hansalim.or.kr>
- 사단법인한살림(2007), 제20차 정기총회 회의자료
- 생협전국연합회(2006), 2006 생협통계
- 오문환(1994), 『해월의 생활정치사상』, 연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 요코다 카쓰미(2004), 나일경 역, 『어리석은 나라의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시민』, 논형
- 유동식(1975), 「한국 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 출판부
- 윤형근(2001), 「문화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 환경과 생명 봄호(통권27호), 환경과생명사
- 윤형근(2002), 「대안운동으로서의 생활공동체운동」, 시민의 신문,
- 윤형근(2004), 「한살림선언을 통해 본 한살림운동」, 『생명학』 강좌 자료집, 한살림서울
- 이경숙·박재순·차옥순(2001), 『한국 생명사상의 뿌리』, 이화여자대학출판부
- 임재해(1993), 「농민문화의 전통과 생명운동」, 녹색평론 1993년 9-10월호
- 임호선(1984), 『삶의 정치사상』, 한길사
- 장일순(1997), 『나락 한알 속에 우주』, 녹색평론사,
- 정문길 외 지음(1998), 『삶의 정치 - 통치에서 자치로』, 대화출판사, 1998
- 정수복(1996), 『녹색대안을 찾는 생태학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 조완형(2005), 「우리나라 생활협동조합운동의 실태와 과제」, 시민사회연감 수록 예정
- 조혜정(1992), 「새로운 사회운동의 모색: 운동가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크리스찬아카데미 주최
- 『90년대 한국사회와 민간운동의 방향Ⅱ』 발제문
- 佐藤慶幸 엮음(1989), 이효재 감수, 유보경 옮김, 『부엌에서 세계가 보인다』, 도서출판 옴과 흙, 1989
- 주요섭(2000), 「지역적 삶을 위한 생명운동의 정치적 상상력」, 『환경과 생명』, 2000년 가을
- 주요섭(2001), 「東道東器의 환경담론을 위한 시론」, 환경과 생명, 2001년 가을호
- 채희완(1996), 「한국 전통 춤의 생명사상」, 녹색평론 1996년 1-2월호
- 천규식(1996), 「줄긋기의 대동성」, 녹색평론 1996년 1-2월호

천규석(2004), 『쌀과 민주주의』, 녹색평론사
최혜성 외(1989), 「한살림 선언」, 한살림모임
크리스찬아카데미(1997), 『생명가치와 환경윤리학제간 연구』
크리스찬아카데미 편(1995), 『주민자치, 삶의 정치』, 대화출판사, 1995

모심과살림연구소는

전일적 생명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활양식과 문명을 창조하는 지혜와 지식을 나누고자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생명사상과 협동운동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세미나 및 포럼 개최,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네트워크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9 서초월드 809호 (137-862)

전화 02-6931-3604 | 전송 02-6715-1808

누리방 <http://mosim.or.kr> | 전자우편 mosim@hansalim.or.kr

한살림 협동운동 자료모음

한살림의 협동을 말하다 I

기획·편집 모심과살림연구소

펴낸이 박맹수

펴낸날 2013년 7월 31일

* 날권 값은 3천원, I·II권 묶음은 5천원입니다.